

2
0
0
6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I. 지정과제 : 5월의 정신사적 지평, 5월의 세계사적 지평

- | | |
|-----------------------------------------------------|----|
| 1. 민족과 민주의 민중적 역동성 복원을 통한 '자치사회'
박영자 숙명여대 연구교수 | 5 |
| 2. 표상(表象)과 권력 :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 39 |

II. 자유과제

- | | |
|---------------------------------------------------------------------|-----|
| 1. 5·18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
김정숙 청주대학교 | 75 |
| 2. 5·18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분석
김창욱 부산음악학연구소 | 101 |
| 3.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광철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137 |

2
0
0
6

I. 지정과제 : 5월의 정신사적 지평, 5월의 세계사적 지평

1. 민족과 민주의 민중적 역동성 복원을 통한 '자치사회'

박영자 | 숙명여대 연구교수

2. 표상(表象)과 권력 :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임종명 | 전남대 사학과

민족과 민주의 민중적 역동성 복원을 통한 '자치사회'

박영자(숙명여대 연구교수)

I. 서론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발전하고 시민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근대 사회의 핵심 정신이다. 자유와 평등의 실현경로는 '민주주의' 이고 그 과정이 '민주화' 이며, 그 그릇은 공동체이고 주체는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시민이다. 그리고 그 지향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인간연대' 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도출되는 자유·평등·평화는 21세기 현재에도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정신이다.

그리고 80년 5월 민중항쟁은 이 정신을 현실화한 운동사이다.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소수 권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권리와 노동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집합적 시민체로서 '민중' 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인간연대' 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점이 바로 5월 민중항쟁이다. 그러므로 5월 민중항쟁이 군부폭력에 진압되었음에도, 이후 한국사에 기점이 되어 자유·평등·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민중' 이념 형성의 정신사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5월 정신의 중요성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김대중 정부의 등장·노무현 정부로의 이행 과정에서 제도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한반도 내 '적대적 분단체제' 를 '평화공존체제' 로 전환하려는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2006년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하며, 민족과 민주 정신의 위기는 무엇인가? '5월 정신' 이 민족과 민주의 창조적 미래지향과 연계될 수 있다면 그 정신사적 지평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신군부에 의해 '광주사태' 로 호명된 80년 5월의 역사가 87년 민주화 이후 '민중항쟁' 으로 재호명되면서 점차 국가담론화되고, 항쟁의 진상규명 및 계승 주체가 '진보적 민중과 지

식인'에서 '제도화된 민주화관련 기념단체'로 바뀌며, '국가권력에 대항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사'이며 '위로부터의 강제 및 규율에 저항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사'라는 역동성이 쇠퇴되게 된 배경과 역사를 중시한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제도 발전에 비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질 민주주의의 문제, 분단체제 지속, 민족이념의 폐쇄화와 패권적 민족주의의 재등장, 법률주의와 대리정치, 신자유주의와 불평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적 문제 해결에 단초를 '5월 정신'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중적 역동성 복원을 통한 평화공존적 '자치사회' 건설의 가능성이 바로 '5월의 정신사적 지평'이라고 인식하며 본 연구를 수행하려 한다.

또한 '5월 정신'이 민족·민주·민중이 가지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자치 정신'임을 논증하고, 이 정신이 국가기념적 규범으로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역동성을 견지할 때, 차이와 연대를 존중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노동 및 인간 권리 실현을 통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치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려 한다.

II. '민족' 정신의 폐쇄화와 민중적 재구성

1. 민족정신의 '폐쇄화'

현실'사회와 '민족적 상상'(national imagination)으로서 사회를 동일하게 이해하는 민족국가 이념은 20세기 가장 강력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영토를 경계로 한 국가통치 기제가 되어 내적으론 사회구성원의 인간성을 집단화하였고, 외적으론 다른 민족국가와 구별하려는 "경쟁과 배제의 논리"로 작용하였다. '인간사회의 연대 공동체로서 민족'이 통치를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로 발전한 것이다. 이 때 민족주의는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았다(Ulrich Beck 2003, 453). 외적으로 다른 공동체와의 갈등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공동체 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며, '민족'정신의 폐쇄화를 초래하는 등 이기적 이념이 되었다.

'이념'이란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인간과 사회는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인간과 사회질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지향'까지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홍기빈 2005, 154). 대개 이데올로기로 명명되며 프랑스 혁명 이후 인간과 사회질서의 지향으로 '자유와 평등'이 분화·발전되면서 자유를

기치로 하여 20세기 자본주의체제의 근간 이념이 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체제의 근간 이념이 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정립되었다.

그런데 이 양대 이데올로기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자유와 평등의 무게중심 경쟁이 20세기 적대적 냉전체제 수립에 기초가 되면서, 대부분의 민족국가는 사회에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민성 또는 민족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1·2차 세계대전과 내전을 경유하며, 타 민족국가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불러일으켜 배타적 민족주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산업화가 진전된 자본주의부터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이념의 상이함과 무관하게 민족주의는 냉전질서에서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려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이념으로 2차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의 형성·발전·위기 상황 마다 핵심적인 대중동원과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기제로 활용되었다.

역사구조적으로 볼 때, 16세기 이후 서구에서 형성되어 발전한 '국가' 개념은 18세기 이후 신분제적 봉건지배에 반대하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대중자치' 체제에 대한 욕구를 '민족' 정신으로 흡수하며 사회화되었기에, 그 출발은 분명 '진보'였다. 때문에 이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근대적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될 시기 민족 개념은 '대중자치'와 '공동체' 정신에 기초했으며 중세 신분질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진보성과 역동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흥 부르조아들이 주도한 테르미도르 반동을 경유하며, 나폴레옹의 소위 '시민해방 전쟁'으로 근대 군국주의(軍國主義)가 나타나고, 국내외적 반동으로 빠리꼬뮌이 무너진 19세기 과정을 경유하며 서구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폐쇄적 통치담론이 되었다.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둘 다로 해석되는 의식의 한 형태로서, 권력체제를 갖춘 인종집단 및 국가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충성심,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정체감과 의식을 특징으로 완성되게 된다.¹⁾

이로부터 내셔널리즘은 '자유·민주적 시민친화성'에서 '지배·배타적 시민통제성'으로 그 성격이 중심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수적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론 배타적인 배외주의 또는 국수주의로 나타났고, 또 다른 한편으론 대중의 희

1)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 박형신 역 2003, 119-121).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 국민주의 또는 민족주의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의미로 동일화되어 있다. (우에노 치즈코 아사미 역 2000, 12).

생과 침묵을 요구하는 중앙집권주의 및 군국주의·집단주의로 나타났다. 보수적 담론이 되어 버린 내셔널리즘은 일체화된 국가주의로 발전하였고 수많은 식민지 구축과 1·2차 세계대전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내셔널리즘은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처럼 '체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념' 또는 1차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해석에 따른 가변성을 그 특징으로 하였기에, 어떠한 목표와 전망에 의해, 어떤 세력에 의해 전유되었는가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순환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특히 외부로부터, 급속한, 그리고 종속적 근대화가 시도된 수많은 식민지 및 제3세계 운동사에 커다란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제국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치공동체'를 원했던 19-20세기 식민지 반제국-반봉건 운동주체들은 수탈적인 제국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근대화된 독립국가 건설과 자유·평등 실현이라는 복합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시도하거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 사회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시기 억압적 국가체제를 경험한 제3세계 사회에서 대개 민족주의는 저항적 의미로 인식되었으며, 국가주의는 지배적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역사의 복잡성 때문에 식민시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논쟁과 활용을 낳았다. 그 중 한반도의 민족주의는 구한말~일제식민기, 해방~근대국가수립~분단 시기~산업화, 5월 민중항쟁~민주화시기 등 크게 3시기를 거치며 고유한 성격을 구성하였다.

구한말 인민주권 개념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근대 민족국가 모색은 동학운동을 좌절시키며 식민화를 초래했으며, 일제의 폭력에 대응하여 만주·상해·하와이 등 해외독립과 국내 적색노조 및 비밀결사 등 각계약진하며 진행된 반제민족해방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민중자치운동을 조직하지 못하였고,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루어진 해방은 민중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에 건설된 전평²⁾의 자주관리운동을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과 냉전으로 좌절되게 하였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적대적 남북관계가 형성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 세력관계에 긴밀히 연관되게 하였다. 1945년 이후 분단체제 형성 과정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전쟁과 전후처리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커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남북관계 문제는 '남한-미국' 對 '북한-소련'의 관계를 넘어서, 남한·북한·미국·중국·일본·소련으로 2006년 현재까지 소위 '6자 회담' 구성원

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해방정국에서 주로 좌익진영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11월 5~6일 결성한 한국 최초의 전국노동조합조직이다. 당시 전평은 조직결성 1, 2개월 후 전국적으로 223개의 지부와 1,757개의 지방조합에 55만 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미군정기 최고의 노동조직으로 성장하여 당시 자주관리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하고자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연표 2006).

의 문제가 되었다. 냉전과 동북아 지역 패권이라는 각 체제와 국가의 이해에 따른 세계열강들의 개입과 합종연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편 분단체제가 수립되며 남북대립 질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남북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론 남북대립과 체제경쟁 논리로 사회구성원의 민주주의 권리를 유보하고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억압과 통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반공과 체제대결 논리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적 논의조차 쉽게 무시되게 하였고, 국가권력은 대립질서를 체제정당화에 활용하며 각종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국가기구와 법령들을 구축하였다. 이 대립질서는 남북한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국가권력에 충성하는 수동적인 신민(臣民)이 되도록 행동과 정신을 위축시켰다.³⁾

한국사회에서 '민족' 정신의 폐쇄화가 전체 사회에 내면화되게 한 시기는 박정희 정권 통치기이다.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부는 혁명공약의 제1항과 2항을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선포하며⁴⁾ '반공규율사회' 제도화에 나섰다.

1961년 반공법을 제정하고 교원노조·노조지도자·보도연맹 관련자들 등 약 4천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하며 저항세력을 억압하였다. 반공교육 체계화를 위해 1961년 문교부는 '반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용 지침서'를 배포하고 도덕교과를 반공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중학교에 『승공통일의 길』이라는 국정교과서를 보급하는 등 반공교육 사업을 구체화한다(조희연 2003, 141-43). 한국전쟁이후 내용과 실질적인 계획이 없이 추상적인 지배담론으로 존재했던 '반공의식'을 전 사회에 규율화하는 민족국가의 핵심이념으로 활용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반공이념은 모든 국가정책에서 '안보'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안보론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는 정당화기제로 활용되었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책임 중 최우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1975. 1. 14. 연두기자회견)이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르다"(1975. 1. 14. 연두기자회견), "민족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보

3) 남한에서 지배권력과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흐름은 곧바로 '북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세력', '국가를 위협하는 빨갱이들', '전쟁을 일으키려는 체제전복 세력'으로 지목되어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에서 지배권력과 체제 비판 또는 저항흐름은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파괴·임해분자', '인민의 혁명을 뒤엎으려는 반동', '미국이나 남한정부의 사주를 받은 간첩', '부르주아 반혁명 세력' 등이 되었다. 그리고 숙청과 처벌 및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남북한 국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나아가 권력의 요구에 맞춰 자기 자신을 항상 검열해야만 했다.

4) 박정희대통령진자도서관, <http://parkchunghee.or.kr/> 검색일 : 2006년 8월-11월.

장이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1975. 1. 21.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회의), “사회를 혼란시키면서까지 회복해야 할 자유나 민주가 따로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1975. 1. 22. 국민투표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은 박정희의 공식발언⁵⁾에서 확인되듯이 ‘반공 → 안보 → 국민권리 → 유보 → 저항세력 탄압 → 절대권력 강화’ 과정에서 80년 이전 한국의 ‘민족’ 개념은 민중통치를 위한 반공안보 이념에 막혀있었다.

유신체제시기 모든 사회직능단체가 관변화되는 과정에서 유독 활약이 돋보였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조직했던 단체가 반공단체였다. 반공단체에는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상이용사회, 승공지도자회, 통일축진회, 실지회복이북동지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공단체에는 장교로 예편한 직업군인 출신이나 예비군 중대장 출신들이 대의원으로 다수 포진해 있었으며, 이들은 반공연맹의 회원이었으며 각 지역에서 반공이념을 매개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⁶⁾ 이 과정에서 반공안보 이념은 ‘민족’ 정신의 핵심내용이 되어, 아래로부터의 권리요구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폐쇄적’ 동치기제로 사용되었다.

또 다른 한편 분단에 의한 남북 대립질서는 체제경쟁과 산업화 전략과 어우러져 정치권력에 의한 국민동원을 일상화하였다. 체제 대결과 경쟁논리로 남북 각각은 정치권력에 의한 억압과 동원이 일상화되었으며, 운명공동체라는 집단주의 논리에 의해 애국심과 일체심이 강제되었다. 또한 서로간의 침략 위협을 근거로 각각의 정치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리더십이 독재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져도 아래로부터의 상당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강력한 결속력과 리더십을 위해 남북한 각각은 ‘한국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기치로 모든 사업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빠른 속도의 공업화와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1970년대까지 강력한 민족·개발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단시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하에서 남북한의 경계는 정치·경제·문화·심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5) 박정희대통령전자도서관, <http://parkchunghee.or.kr/> 검색일 : 2006년 8월-11월.

6) 반공을 사회이념화한 대표적 단체는 자유총연맹의 전신인 한국반공연맹이었다. 반공연맹은 해방 후 이승만에 의해 결성되었고, 유신체제에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박정희는 이 단체를 국가법인체로 발전하게 하여, 재정지원의 확대와 정부 직접개입으로 국가기구에 준하는 단체로 강화시켰다. 반공연맹은 1965년 대공업무를 수행하던 정부 산하 <내외문제연구소>를 흡수하고 6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공산권문제연구소>로 개칭하였으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에 개입하였다. 반공연맹의 안보교육은 교사, 학생, 공무원, 해외파견기술자, 직능 및 지역단체 조직요원과 중앙요원을 중심으로 1주 23시간에서 67시간까지 교육하였다. 강연식으로 진행된 반공연맹의 이념교육은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위의 연수프로그램과 연계되었고,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던 자영업자와 부녀회 소속의 주부가 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 성립이후 반공연맹은 전국 시군구에 지부를 둔 전국조직으로 발전하였다(정상호 2004, 100).

서 대칭축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과 남북한 체제 경쟁은 두 체제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두 체제를 연결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한 것이다. 바로 이 분리와 연결의 이중적 기능이 1970년대 남한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유일체제'가 구축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효과를 낳았던 것이다(이종석 2000). 한쪽의 군대확장과 군비증강이 그 반작용으로 다른 한쪽의 군대확장과 군비증강을 초래하여 결국 동일한 양상과 운영원리를 갖게 된 것이 대표적 예이다.⁷⁾

이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성격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분단이 한반도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다. 먼저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책임으로 인한 국제적 분단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동서독 분단의 관리와 전개과정도 대개 국제정치와 국제정세 변화에 크게 좌우되었다. 반면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는 면에서는 독일과 유사한 국제적 분단의 성격이 컸으나, 한국전쟁으로 드러난 한 민족공동체 내 이념충돌이라는 국내적 갈등이 증첩된 것이었다.

따라서 분단의 관리와 전개과정, 그리고 갈등 역시 국제와 국내적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대중적으로 교육되고 불릴 정도로 각 정권과 사회의 한반도 통일지향이 당연시되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경험과 이를 지배도구로 활용한 남북한 정치권력에 의해 한반도 내부의 증오와 갈등, 그리고 불안이 해방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지배세력은 각각의 사회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수 있는 민주화 요구와 인권문제, 불평등과 억압·통제의 문제를 진보적인 사회개혁이나 사회발전을 위한 저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와 문제제기로 인해 초래 될 남북 대립질서의 완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불안과 전쟁의 위험성, 그리고 대북·대남 경계심의 이완을 지적하며 각각의 사회에서 국내정치의 보수화를 추진하였다. 강력한 반공주의, 반자본주의 논리로 기득권을 유지했던 세력들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관계개선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자신의 권력 불안정과 이익 축소를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7) 따라서 분단시대 남북한은 '거울영상효과(mirror image effect)'로 상호간 의심과 위협의 상호 상승작용에 의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결국 전사회의 군사화와 위계적인 명령체계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집단적 편집증(collective paranoia)'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tuart A. Bremer 1992, 318). 1970년대 남한의 유신체제와 북한의 유일체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의 권위주의 체제와 군사화는 이러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에 의해 초래된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즉 분단을 기점으로 한국 민족주의는 '자립공동체인 국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로부터 '정치권력체인 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로 이행했으며, 1960년대 이후 '성장중심-분배 희생'을 핵심정책으로 하는 국가주도 개발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박명규 2005, 117).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다수 민중에게 배타적으로 자원을 독점했고 재벌에게 분배를 집중하여, 불균형적이고 불평등한 민족국가를 형성하였다. 또한 80년·87년 민중항쟁의 힘으로 97년 이후 2대에 걸친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 개발민족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민족 정신의 폐쇄화를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 20세기 냉전질서 해체는 동아시아가 19세기 말 중화질서 해체이후 벌어진 세계적 질서재편 시기 혼돈에 빠진 한반도를 연상케 한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감소와 미소대립 해체, 더욱이 미국에 대응할 만한 세계 맹주로 등장한 중국,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대응, 그리고 세계 군사강국으로 생존을 보장받으며 '단번 도약'하려는 북한정권의 군사주의 야심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동아시아는 아직 세계화가 촉진하는 지역통합 움직임보다는 민족주의적 열망과 정서, 국민국가 중심 이익추구가 강력히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박명립 2002, 136-137).

이와 같은 우려는 2006년 7월 북한의 제2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과 10월 핵실험 이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함께 미국·중국·일본의 행보가 주시되고 있는데, 이들 3개국은 냉전해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보수적 흐름과 세계전략,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역사재구성 및 독도 영유권·동북공정 등 패권적 국가이익 추구 흐름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실험은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현재 이들 3개국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며 안보체제와 보수담론을 적극 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남한의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보수적 목소리를 높게 하고 있다. 불확실한 안보 불안은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켜 1987년 이후 급격히 향상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 노무현 정부의 주요 갈등의 한 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둘러싼 내외의 진통이다. 특히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일보 진전한 성과를 내기위한 가장 결정적 변수는 한미관계이다.

북한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하는 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미군존속 및 기지이전, 한미 FTA 등 세계평화와 민중 생존을 침해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이권 문제에서 미국 측 이해를 수용하면서까지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양보⁸⁾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북관계에서 남한정부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노무현정부의 대선공약 및 정치이념과도 맞지 않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등 미국의 이해와 관련된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하면서까지 얻으려 한 대북정책 및 동아시아 정책에 자율성 관련 '미국의 조치'나 지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한정부를 여전히 미국의 종속국가로 사고하고 있는 북한은 오로지 북미협상에 올인(all in)하며 노골적으로 남한당국과의 대화를 무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소위 남한의 '민주정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통일운동세력의 사회적 정당성 및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과거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였고 현재도 특히 노동진영에서 노동자 배제 및 탄압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밖에 없는 각 현장의 생존권 및 노동권 확보 투쟁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배제되어 '노동운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경제성장과 안보체제 강화 및 선진국으로의 도약, 각종 스포츠와 국제대회를 통한 국위선양 기획들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환영받고 있다. 이러한 개발주의적 발전전략은 수십 년간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 기본구상은 2006년 현재에도 달라지지 않았다.⁸⁾ 이 상황에서 박명규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도 이제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해보자는 집단적 자존심"이 특정한 정치기획과 결합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분단체제 해체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패권적 국가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박명규 2005, 122-123).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가볍게 이야기되는 북한이 막강한 핵과 군사무기를 가지고, 이후 통일되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언급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쁘티 내셔널리즘'이 이미 신념화된 일부 극단적 통일주의자들과 결합된다면, 북한사회의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전망을 가로 막아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이념이 고갈되고, 남는 것은 그저 비현실적인 신념과 가벼운 열정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폐쇄적 민족주의' 일 수 있기 때문이다.

8)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정부로부터의 자율권

9) 한국연예인의 아시아적 인기를 반영한 오늘날 한류에 대한 자부심의 배후에는 거대한 미디어 산업과 한국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자기긍정이 강하게 깔려있다. 이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대중적 선망을 허상이나 이데올로기적 효과, 또는 지역주의로만 치부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아니다. 한국민족주의는 강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가능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부심이 자주와 독립이라는 원초적 저항민족주의와 결합할 가능성도 커진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곧 이어 대규모 반미시위로 이어지고 광범위하게 반미정서를 확산시켰던 것은 이러한 결합의 전형적 사례이다(박명규 2005, 121).

2. '민족'의 정신사적 지평 : 의사소통과 자기실현

5월 민중항쟁은 국가권력이 통치를 위해 구성하고 선전한 '상상화된 공동체로서 민족'이 아니라, 공통의 시간과 공간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실재하는 시민공동체로서 민족' 정신을 보여준 역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5월 정신은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다원화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폐쇄화되고 있는 21세기 인간 세계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정신으로 제기한 '자기실현(self-effectuating)' 개념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Jurgen Habermas 2003b, 87).

'실재하는 시민공동체로서 민족' 정신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와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설정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 실현이 중요하다. 폐쇄와 통제가 아닌 연대와 자율에 기초한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시민들의 민주의지 형성에 깊이 작용하며,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하게 하고, 모든 정파와 주장이 공개적인 정당화 과정을 밟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연대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자기의 이해와 요구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인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능력'만이 '자본과 권력의 기계적 메커니즘으로부터 인간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세계'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한 것이다(Jurgen Habermas 2006). 그러므로 의사소통과 자기실현은 '민족' 정신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기 위한 민중적 재구성 과정이며, 5월 민중항쟁은 한국사회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근대 민족 정신이 민족 간 상호 주권의 인정을 전제로 하고 민족 내부성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면, 근대 민족국가 개념은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과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위정자들이 모색한 근대 국가이념은 인민주권이란 개념을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¹⁰⁾ 아래로부터의 근대를 모색한 동화혁명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인민주권이념과 민중운동이 지배층과 일본제국의 야합에 의해 탄압 및 해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구한말 지배층의 불완전하고 민중지배적 민족국가 이념은 결국 한반도 민중을 식민지

10) 대한제국기에는 대중 민족주의와 같은 문제의식은 부재하였다. 당시 논의된 계몽군주는 인민주권 또는 국민주권 개념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 공화국을 상징하는 주권체로서 국민이란 개념은 기존 체제에 커다란 부담이었던 것이다(김동백 2004, 199-204). 한편 주목해 볼 만한 사례로 19세기말-20세기 초 네이션 개념을 둘러싼 중국 내 논쟁은 개량파의 국가 민족주의와 혁명파의 종족적 민족주의의 대립과 접합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개량파의 국가 민족주의는 국가 내 지방 및 종족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네이션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적 권리(civic rights) 혹은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을 역압하는 경향성을 이미 배태하고 있었다. 근대 이후 중국의 생존위기 상황에서 상보적이며 대립적인 이 두 내용 중 국가주권이 강조되고 인민주권이 억압되는 국가주의(statism)가 민족주의의 주류가 되었다(박상수 2005, 106-7).

배로 귀결되게 하였다.

식민지배를 초래한 구한말 황실과 권력층의 민중배제와 지배욕망은 결국 조선왕조를 '되새길 가치없이 몰락' 하게 하였다. 그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초기 국가수립 과정에서 남북한 지역 공히 민족주의자 건 자유주의자 건 사회주의자 건 모든 유력 정치세력에게서 식민지배 이전 '왕조적 지배체제' 로의 복귀흐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정치 이념이든 다수 민중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한반도를 40여 년간 일제에 의해 지배받게 만든 구한말 대한제국을 용서할 수 없었으며, '근대적 공화제' 를 수립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일반적 동의가 있었다.

근대 민족국가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지배권력의 '민중배제적 권력횡포' 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중운동사' 는 구한말 동학혁명 → 일제시대 3·1운동 → 해방 후 전평 → 이승만 정권시기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에서 폭력적 국가권력에 대항한 민중항쟁사로 발전하였다. 특히 5월 민중항쟁은 국가권력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동체 지배에 대항한 '민중' 들의 시민결사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지배권력의 통치기제로 활용된 박정희정권의 반공안보 이념에 기초한 '민족' 개념을 민중공동체 정신으로 재구성하게 한 역사였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권력층 내부갈등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함에 따라 체제비상사국이 도래한다. 아래로부터의 민중운동에 의한 투쟁으로 붕괴되지 않은 절대권력자의 사망은 군부권력의 재등장을 야기했고 이것이 12·12 쿠데타로 드러났다.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설치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보도검열과 언론통폐합 및 통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의 해소방지와 대학졸업정원제 채택 등 학원 통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치권 통제를 위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국 대학생들의 시위에 폭력진압으로 대응하였고,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는 등 유신잔당과 신군부 세력의 체제개편 음모가 노골화되었다. 계엄당국은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침략위기를 과장하여 유포함으로써, '계엄해제', '유신잔제 청산', '군부의 정치적 중립', '민주화' 를 요구하는 저항을 반공안보 규율로 억압하며 자신들의 집권음모를 은폐하려 하였다.

군부독재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80년 서울의 봄과 각 지역별 민주화 요구로 외현화 되었으나, 민족국가의 새로운 이념과 저항을 준비할 여유가 없던 저항 엘리트 진영은 '반공안보' 이념을 기치로 60년대 이후 한국 민족국가를 지탱했던 신군부의 총칼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인민주권과 시민공동체로서 민족 개념과 그 정신을 부활시킨 5월 광주의

민중항쟁이 있었다. 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이 주축이 되었던 80년 서울의 봄과 각 지역의 신군부에 대한 투쟁은 '단 한발의 총성'으로 진압되었으나, 신군부에 의한 '야수적 폭력'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종식'을 넘어 '국가폭력에 대항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저항적 시민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5월 항쟁은 통치기제로 활용된 민족 개념에 '인민주권'과 '시민공동체의 정당성'이란, 근대 민족국가 형성시 핵심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 공동체'라는 아래로부터의 민족 정신을 불러온 것이다. 그리하여 5월 민중항쟁은 이후 한국에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1989년 이후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민족' 정신의 폐쇄화가 재확산되는 이 시기, 5월의 정신사적 지평의 한 축은 바로 '민족' 정신의 '민중적 재구성' 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앞서 제기한 의사소통과 자기실현 과정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와 함께 폐쇄적 민족주의가 새로운 양태로 대중적 침투력을 발휘하고, 상당수 정치인과 시민단체 또한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족 정신은 핵심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인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족주의는 20세기 전반 독일 일본에서 보듯 평등 및 민주 정신과 만나지 않으면, 파시즘 및 독재로 흐를 위험이 항상 내포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의사소통의 합리화와 자기실현을 통한 민족 정신의 민중적 재구성이다.

Ⅲ. '민주' 정신의 쇠퇴 배경과 역동성 복원

1. 법률주의와 대리정치

민주주의의 근대법률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전적 가치와는 다른데, 그것은 국민이라 불리는 사회구성원에게 복종적이라는 것, 법률제정자에 의해 생산된 규범이 '구성에서 실행까지 집합적 국민을 의미하는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적 자유와 가치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징이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는 자유주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자기결정은 오로지 자유를 보충하는 구조적 재산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중개로 이해되어졌다. 특히 냉전질서에서 자유주의의 실현은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인

간권 개념(the idea of human right)을 규율하는 “법치배 개념(the idea of a rule of law)”으로 실현되었고, “대중주권(popular sovereignty)”은 정당화의 이차적 원천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법치배와 대중주권이란 “모순적 원리의 역설적 조합”에 이중성은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률주의(constitutionalism)가 관련되었는가라는 정치·사회의 핵심적 화두를 제기한다(Jurgen Habermas 2001, 766).

사회구성원 다수의 의지에 의해 생성되고 그에 복종해야 하는 근대법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다수를 법집행의 대상자인 수신인(addressees)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자들의 규율에 따라 규칙적 방법에서만 행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왜 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개 개인이 자신의 동기로 간주하도록 규율화되었는지? 법률주의가 어떻게 민중의 역동성을 박제화시키고 쇠퇴시켰는지? 애초 근대법의 주요 특성인 ‘다수 국민에 의한’이란 민주주의 원리는 어떻게 복원 가능한지?를 주목해야 한다. 법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의존성은 평등과 자유 이념의 긴장과 갈등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중적 역동성을 차목하지 않으면 권력을 소유한 소수의 사적 이익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Jurgen Habermas 2001, 779-780).

또한 근대법이 민중주권에 기반했음에도 민중주권을 통제하는 규율기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면서 법률주의가 곧 민주주의인 것으로 해석되어, 결국 법률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통제하는 기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민중항쟁과 뒤이은 투쟁들은 근대법의 정신과 주체문제를 제기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97년 이후 집권한 한국의 민주정부가 ‘법률주의를 제도화된 민주주의’로 해석하고 사회에 확장하면서 한국사에 큰 저력인 민중적 역동성이 쇠퇴되게 하는 데 작용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의 무차별한 시민학살은 국민세금과 안보부역(의무군역)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권력이 결코 범해서는 안되는 ‘도덕적 경계’까지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신군부는 근대 민족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폭력적으로 붕괴한 것이다. 때문에 5월 민중항쟁의 처절함과 함께 장기화된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열망’이 한국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성장하였다. 5월 민중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기 경제적 생존과 ‘아주 작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된 ‘민주 對 반민주’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항한 투쟁의 연장선이며, 학생과 지식인 계층 주도로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진행된 군부독재 철폐와 신군부 독재권력 수립저지 과정에서 폭발한 민주화 투쟁이다. 그러므로 1980년대 전후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세력의 민주주의 운동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민중항쟁사이다(김용철 2003, 229).

무엇보다 5월 민중항쟁은 87년 민주화 이행의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정당성과 투쟁의 결절점이 되었고, 국가권력의 비민주성을 감시·고발하며 나아가 투쟁하는 '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었다. 5월 민중항쟁을 기점으로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합법/비합법/반합법적 '정치조직 운동'과 민주화에 대한 민중적 열망을 모아내는 '전선운동'이 동시에 성장하면서,¹¹⁾ 1987년에는 3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각계각층의 민주화 투쟁이 한 해 동안 지속되었다.¹²⁾

그 결과 한국 민주화를 상징하는 87년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87년 체제가 2006년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87년 체제 형성과정에서 광주 민중항쟁 이후 민주화의 근본동력이었던 민중적 역동성을 쇠퇴시킨, 대리정치(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와 법률주의의 정적(靜的) 제도화에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헌법은 헌법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과 "조국의 민주개혁" 사명 등을 언급하며,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 강화, 표현의 권리 강화, 최저임금제 실시, 적절한 소득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 사회정의 실현 조약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 신설, 지방자치 명분화를 통한 중앙권력의 분권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4·19, 5·18, 6·10 항쟁의 광범위한 민중참여와 대조적으로 개헌은 민중의 직접적 참여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권에 위임한 상태로 진행'되어, 운동주체와 그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주체가 분리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민주화제도 역시 '임기 5년 대통령단임제' 등 여야의 정치이해에 따라 정략적으로 합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첫째, 사회와 국가의 괴리는 지속되었고, 둘째, 지역주의 정치가 오히려 확장되었으며, 셋째,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의 역동성이 쇠퇴되고 민중참여가 배제된 채, 법적 판결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 실

11) 합법 80년대 송반 선누합성권이 권력구조의 안정을 믿고 체제안정을 위해 실시한 민주화세력에 대한 유화조치는 오히려 대학생과 지식인이 주축이었던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적 열망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 정치이념을 가진 비합법 전위조직과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전선운동'이 지속적으로 조직되고 성장하였다. 또한 이당 정치권에 대한 단계적 해금조치와 야당분열 정책으로 야권의 정치인들이 독자적 야당으로 세력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야인사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추진협의회 등 조직을 결성하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열망을 모아내게 하였다(장해구 외 2004, 51-57).

12) 19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의 시작은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연행되었던 서울대생 박종철의 고문살인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저항으로 불붙었으며, '4·13호헌조치'에 맞서 군부독재종식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7~9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전개된 하반기 민주화 운동은 노태우후보 퇴진 요구와 거국총림내각 쟁취투쟁, 그리고 부정선거 규탄투쟁으로 지속되었다. 6월 항쟁은 전국 34개 시 4개 군에서 연인원 4~5백만 이상의 대중이 참여하여 19일 동안 지속된 전 민중적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당시 노동부 집계 따르면, 노동자 투쟁 및 참여도 3,311건에 11,225,83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에는 총 발생건수의 74.6%인 2,469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82건이 발생한 것으로 1986년 하루 평균 0.76건에 비하면 무려 108배나 증가한 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연보, 2006).

현으로 지배제도 내에서 최종심급의 결정이 이루어져도 정당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이 절대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정해구 2005).

각종 시민단체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으나, 그동안 간헐 있다 표출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은 폭발적 참여요구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정치적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결국 법제도 및 정치권에 기대는 법률주의와 대리정치가 확산되었다. 폭발적으로 증대된 시민단체 또한 대중적 참여를 모아내는 사회활동 보다 정치 및 기업과의 로비활동과 정치화된 활동에 치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 이념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한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대립은 '국민분열'로 지목되어 위험한 현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질적인 민중 참여기제는 마련되지 않은 채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민중적 역동성'은 쇠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정 정치인의 지지기반 지역에 대한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정당체제와 정치보스, 그리고 정치인 재생산이 강한 힘을 발휘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정치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대하여 무관심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배신감이 확산되었다. 더욱이 분단체제 하 반공안보 이념이 아직도 뿌리 깊게 체제에 내화되어 이념정당의 발전이 미약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곤 모든 정당의 이념차이가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여야 대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의 이념부재 정당현실이 구조화되었다. 더욱이 민주주의가 법률주의로 전환되면서 아래로부터 민중적 참여나 역동성이 개입해 들어갈 공간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5·18 민중항쟁의 자산 위에서 확대된 87년 6월 민중항쟁의 성과를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이념정당이 아닌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야권 및 지식인 계층이 6·29선언으로 타협을 주도한 군부권력의 '대통령 직선제' 제안을 수용하며 마감하였다. 그 결과 7~9월 진행된 노동자 대투쟁이 노동자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끝나게 하였으며, 협약과 선거는 기존 제도정치권의 이념정당으로의 발전을 가져오지도 못한 채 보수적인 여·야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었다(신광영 2005, 80).

민주화의 동력은 민중항쟁이었는데 그 성과는 여야 정치권의 "거래에 의한 민주화"로 진행되면서, 권위주의 정치권력이 붕괴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등장한 노태우정권은 1989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비토권을 행사하여 개정법률안을 거부하고, 공안정국을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등 과거 독재정부와 동일한 정책을 펼쳤다. 집권 민정당은 제2야당과 제3야당을 통합하는 '보수대연합' 이후, 권력을 장악한 김영삼정부는 국민 대다수를 포괄하는 노동자권리 정책에서 노태우정부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신광영 2005, 80-81).

이렇듯 민중항쟁의 성과를 제도 정치권의 대리정치로 넘겨줌에 따라 나타난 후과는 1991년 5월 투쟁에서 중간층으로 표현되는 시민사회의 불참을 초래했으며, 이미 권리를 이양받은 정치권의 외면과 사회분열 우려 및 통합지향이라는 민족국가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한 민주실현의 실패로 드러났다. 91년 투쟁과정에서 당시 야권은 수동적 지지와 방관으로 일관했고, '사회안정 및 통합'이라는 국가권력의 통치이데올로기에 동조하며, 선거준비에 몰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확장된 정치영역 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며 성공한 기존 야당 정치권과 이념적 분화를 시작한 시민사회가 분리되었고, 80년대 형성된 민주연합이란 전선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보수적 민주화의 결과이다(정해구 외 2004, 180).

그리고 민중항쟁의 성과에 기반하여 국가권력 구조에 안정적으로 세력을 구축한 야권과 이들을 지지하며 세력을 확장한 정치화된 시민사회의 성공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창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념적 분화를 시작한 민중운동 진영의 분화와 민중적 역동성이 쇠퇴되는 과정에서,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이념 혼란의 시기에 탄생한 한국의 민주정부는 애초에 이념정당에 기반하여 훈련되지도 않았으며 이념적 지향도 분명하지 않았기에, 경쟁과 불평등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이념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과 '참여'라는 기치는 '집권정부를 지지하는 국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라는 배타적 질서로 자리 잡게 되고, 후분배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선성장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협박하면서 민중진영 내 분화를 주도하기도 하였다.¹³⁾

'국가경쟁력'이란 담론은 노동배제와 친자본성을 강화하였고, 국민정부 하에서 경제위기 책임을 계기로 경제개혁에 나섰지만 대자본 내 서열변화나 벤처라는 형태로 신규자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했을 뿐,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규율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비타협적 정책을 시도한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나 경제개혁, 한국사회 양극화 등에 대해 적극적 극복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삼성 등 이미 거대화 된 자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연대하면서 이를 규제하거나 양극화를 상쇄할 만한 적극적 사회경제 정책을 구사해보지도 못하는 "정책적 불구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상태에서 확장된 사회분야는 민중의 역동적 참여가 아닌, 민주개혁의 위기에 의해 "보수의 능동화"를 촉진하였다(조희연 2005, 80-84).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무능력'이란 담론을 주도하고 '보수의 능동화'를 초래하게 한 민

13) 그리하여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에도 2005년 현재 OECD 가입국가 중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연수가 가장 낮은 4.6년이며, 노동시간은 가장 긴 나라가 되었다(신광영 2005, 87-88).

주정부의 민주주의의 실행 수준은 어떠한가? 이를 <표 1> 민주주의의 유형과 특징(정영태 2005, 4)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민주주의의 유형과 특징

	최소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	절차적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사회적민주주의
정치적 자유·경쟁·공정선거 실시	○	○	○	○	○
보통선거권 부여	○	○	○	○	○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의한, 비선출직 국가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	×	○	○	○	○
국가의 자의적 행동 방지를 통한, 개인의 표현·결사 자유의 효과적 보장	×	미약	○	○	○
계급·인종성 등 사회적 속성/ 지위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높은 비율로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	×	○	○
사회경제적 성과의 평등한 분배	×	×	×	×	×

○ 시행, ×미시행

위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 3대에 걸친 민간정부들은 '최소민주주의'를 실현한 수준이다. 그리고 국민정부는 '위임민주주의'를 참여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향했을 뿐 이를 실현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결국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고, 참여정부는 '참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애초에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5월 '민주' 정신의 역동성은 쇠퇴되었다. 90년대 그것도 항쟁주체에 의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5월 민중항쟁은 국가승인을 받게 되었다. 법률가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5월 정신은 역동성이 상실된 담론(談論)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성격은 첫째, 저항담론에서 권력담론의 일부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둘째, 국가안보나 경제발전 담론 같은 여타 국가발전 담론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고, 셋째, 민주화와 연계되어 민족·민중·인권 담론과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라는 담론화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정일준 2004, 109).

주체 측면에서 5월 정신이 정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90년대 국가승인 과정에서 항쟁의 주체와 그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책임자 형사처벌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합헌성 획득에 치중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민중항쟁의 책임성'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물론 당시 사회운동이 발전하고 대중조직이 급격히 자기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운동적 측면의 연대가 한계적일 수도 있었지만, 과도한 '법률의 민주성 강제식' 대응은 5월 정신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퇴색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는 90년대 광주시민을 대변한 법률계가 5·18 민중항쟁을 '쿠데타를 통하여 국가권력 찬탈을 기도한 불법세력인 신군부세력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적 민주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집단적 형태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한 것이다. 당시 법률계는 민중항쟁에 관여한 광주시민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유가 '저항권에 앞서는 통제적 법'의 성질 때문임을 깊이 천착하지 못했다. 저항권은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물론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은 시민들에게는 저항할 권리를 수권하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법 적용 및 실행자들에게 자신 또한 재판에 적용할 것을 강제한다. 그러나 대개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권력을 찬탈한 세력은 법의 관철기구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법원이 저항권을 원용하여 저항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¹⁴⁾

법률은 현존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구성원 규율기제이므로 저항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며, 민중적 역동성을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려 한다. 더욱이 법률은 정신이나 의도보다 행위에 착목하므로 물증이 될 수 없는 정신세계는 배제하려 한다. 그러므로 5월 정신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위한 높은 정치적 지향이나 민중 참여, 사회발전을 위한 의지 등은 법률에 간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5월의 열기로 수립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정치적 대리주의와 법률주의를 적극적 정치기제 활용하고 신봉하면서, 5월 항쟁을 역사발전의 동학으로 자리 잡게 하였던 민중적 역동성은 90년대부터 2006년 현재까지 상쇄된 것이다.

그리하여 80년대 민중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 전국화되어 민주화를 추동했던 5월 민중항쟁의 정신은, 직접적인 항쟁의 주체였으며 그 집단적 힘으로 명예회복과 보상까지를 받은 광주시민조차 '아득한 과거의 신화'로 인식하게 되는 쇠퇴의 현실에 봉착한 것이다.

2. 신자유주의와 불평등

5월 '민주' 정신 쇠퇴를 야기한 대리정치와 법률주의의 근본적 제약은 이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같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는 2대에 걸친 한

14) 더욱이 저항행위에 대한 법윤리적 승인도 용이한 것이 아니다. 저항은 종종 혼란과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국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념은 5월 민중항쟁의 핵심인 '민주' 정신의 연대성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다수 민중의 노동권리 배제를 초래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로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고 불리는 '산업 및 노동 구조조정'(실업, 폐업, 민영화, 불안정고용 등)과 1980년대 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노동자 국가'를 표방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생산을 통한 사회발전과 평등사회 건설의 주체'라는 노동자들의 미래에 암울한 절망을 주었다.¹⁵⁾ 그리고 냉전질서의 해체와 시장의 확대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접목되게 된다.

대치의 명구 "사회란 없다!(There is no society!)"에서 보여지듯, 신자유주의 이념은 근대 민족국가 형성에 기초했던 "인간공동체"라는 선협적 가정을 부정한 것이다. 오로지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탐욕적 개인들"만 주목할 뿐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계산적 합리성이 인간이성의 본질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연적 질서"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홍기빈 2005).

이때 신자유주의 이념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앞서 설명한 '법률주의'에 기초한다. 법률주의란 그 주체가 폭군이건 민중의 합의와 의지를 담은 민중권력이건을 막론하고, 국가 권력이 간섭할 수 있는 범위에 엄격한 한계를 두어 그것을 헌법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률주의가 규범화되어 정치영역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면 시민사회로부터의 '민주주의적 역동성'은 심각히 제한 당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주 내용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무기력한 상태가 되면서 속수무책이 될 때가 많다. 실제 신자유주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에서 법률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거의 적대적 모순관계로 전환되어 민주주의적 국가형태를 변형시키고 있다(홍기빈 2005, 160-161).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신보수주의적 국가가 탄생하는 데, 그 내용은 법치의 소중함을 실현하는 작지만 강한 국가이다. 그런데 이 강한 국가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기에 경제에 대해선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신자유주의 이념이 경제와 정치를 통해 점차 현실화되면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사회집단과 인간생활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법률이 제도화된 폭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전체 과정에서 민주 정신의 역동성은 쇠퇴되고 억압되었던 것이다.

15) 더욱이 성실한 노동과 숙련을 통한 '생산의 주체', '세계발전의 주체', '다수에 의한 실질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 등으로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자 담론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 IMF 체제 이후 한국사회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이념은 정부로 하여금 권위주의체제와 유사하게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급속한 위로부터의 구조조정과 자원배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영역은 다수 민중들의 생존문제에 직결된 경제와 노동정책이다. 민주화이후 민주정부들이 현실논리로 받아들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고용불안과 경제적 양극화를 확대하여 경제와 노동에 얽혀있는 사회구성원의 미시적 삶에 여러 형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본효율의 합리성이란 미명하에 재벌대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을 약화시키는 생산체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소수업종에서 재벌기업은 빠르게 성장했으나 국가 전체의 성장은 별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고용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중소기업의 침체로 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자본친화적으로 전환되었다.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정규-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화는 대다수 노동자의 시민권과 복지의 질을 악화시켜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 시장 및 경제의 집중축적 논리에 따라 한국경제의 민주적 발전전망을 어둡게 한 것이다(최장집 2005, 14-15).

애초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쟁의 병행 발전을 제기한 국민의 정부는 '어떤 민주주의'이며, '어떤 시장경제' 인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산업화 이후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경유했음에도, "국민생활을 위해 시장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시대가 되었고, 참여정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출발하였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서 자본이 국가 내외를 넘나들며 민족과 민주적 책임에서 해방되어 축적의 자유를 누리고, 국가는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 밖에 달리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참여'를 배제하게 된 원인이다. 그야말로 민주화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정치적 해방"을 관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이병천 2005, 66).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가치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남한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박정희정권 이후 시작되었고, 정치적 불평등은 분단정권 수립과 함께 이승만 정권 시 반공규율사회 형성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불평등은 정부수립 이후 근대적 개인주의가 성숙되지 못하면서 우리사회에 구조화 된 것이다(윤도현 2004, 67; 71) 그러므로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기점으로 다수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평등실현'이다. 따라서 근대정권의 평등실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노동정책이다. 그렇다면 <표 2>¹⁰⁾을 통해 군사정부이후 현 참여정부까지의 노동정책을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영삼~노무현 정부까지 일관된 노동정책 기조는 기업 성장과 경쟁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노동에 대한 실질적 배제로 민중생존 문제를 시장권력

〈표 2〉 軍政 이후 한국정부의 노동정책 비교

	군사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목 적	치안유지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통합과 개혁→경제성장 지상주의로 회귀
방 법	강제적 해결	하향식 개혁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의 계승→ 노사 당사자주의 확대
수 단	검, 경, 공안기관	노사관계개혁위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정부직 속 위원회 기능 강화
대 노동관	실질적 배제 -통제대상	실질적 배제 -개혁대상	실질적 배제 -형식적 포섭대상	포섭의 방지 양상
평 가		노사관계의 최소 제도화 시도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합 추구	노사관계 제도화의 부분 확대와 유연화 기반의 급속한 확산	유연화와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

에 맡겼으며, 불안정고용 관계를 양산한 유연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민주개혁이 기초가 된 87년 체제가 왜 특히 노동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가?

정권입장에서 ‘분배를 통한 발전’과 ‘대중경제론’을 주창한 김대중정부가 그 주장과 긴장관계에 있는 ‘신자유주의’를 대중적 저항없이 체제내로 제도화 할 수 있었던 것은 IMF위기였다. 따라서 정치권력 측면에서 볼 때, IMF는 국민의 정부의 딜레마를 해소시켜준 것이다. 이때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에서 말한 민주주의를 불평등한 자본-노동관계 해소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게 시장을 ‘공평하게 개방’하여 시장기능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존재기반이었던 “민중지향성이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났다(이광일 2006, 68-69).

노동입장에서 87년 체제는 노동운동을 제약하고 있던 억압체제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노동운동이 정치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나, 노조 정치활동 금지·기업별 노조·제3자 개입금지 등 군사정권의 노동정책 속에서 진행된 체제였다. 민주개혁 자체의 내재적 한계로 보면,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현실·인식·계급적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87년 이후 정치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주의의 기혹한 축적구조가 규율되지 않은 채로 작동”하였고, 이는 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연결되면서,

16) (윤도현 2004, 94)

경제적 양극화와 시민사회 내 계급적 양극화를 촉진하였다. 더욱이 양극화는 자본운동 외에 부동산투기 등 투기자본에 의해 가속화되었다(조희연 2005, 70-79).

따라서 평등한 노동권리에 따른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대두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치열함에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매진하고 있는 김대중에 이은 노무현 정권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벌규제 능력도 적극적 공공부조 의지도 상실한 상태이다. 이처럼 시장권력의 강화와 사회계급적 양극화 급진전에 대한 대응이나 양극화를 상쇄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을 구사하지 못하므로, 소위 '참여민주정부' 시대 다수 민중의 참여와 민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다수 민중을 위한 사회정책과 민주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빈곤화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주화시대 민주주의의 위기(민주개혁의 위기)는 역으로 '보수세력의 능동화'를 촉진하였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실현되고 노동에 따른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균등 발전을 전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전망'을 밝히지 못하고 민중진영을 참여시키지 못해 결국 '참여민주'를 실행할 수 없게 된 이 정권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중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세력은 문제의 근원을 '무능력한 진보정치'·'민주주의의 과잉'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참여·민주·진보를 실현하지 못하고 북한문제 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이러한 논리가 상당수 일반 민중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무능력한 진보세력'보다 '능력있는 개발독재세력'이 낫다는 신발전주의적 담론이 팽배해졌다.

여기에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려는 노무현식 리더십이 문제제기를 주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문제해결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무능력 체감지수가 훨씬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재신임, 탄핵, 대연정 제안 등 정치질서 재편, 국제관계에 대한 친미/반미적 발언의 교차 등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쟁점을 만들어 내었으나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았다. 그는 갈등 국면을 주도적으로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돌발적 발언 및 제스츄어 등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다. 위기를 해결하는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위기를 동원 및 생산하여 정치담론의 주도권을 지속한 것이다.

이는 민중사적 측면에서 양면적 효과를 가지는 데 첫째는 행위주체들의 판단 및 행동이 중요해진 것이다. 둘째는 보수 세력의 결집과 보수적 시민사회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첫째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진보세력'이라는 보수적 담론에 포

팔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라는 '양극화 심화' 및 사회균열 위기론을 제기했으나 이를 해결할 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청년실업 문제, 괴물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주택문제 및 강남지역 아파트 값 인상 외에도 사회적 소외의식 등은 크게 확대되었다.

공공연한 '신자유주의 대세론'으로 노동문제 관련해서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복지정책 전반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한정적인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구사했다. 청년실업으로 불려지는 애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자들과 비정규직 중 통계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광범위한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 미약한 공공부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서 보듯 단기적일 뿐 아니라 이 사회의 수혜집단인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층 지불에 크게 기대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소위 민주정부로 대표되는 '노동배제적 정치민주화세력'에 대한 '지지 철회와 회의'의 결과이다. 이것이 대안없는 보수세력과 보수이데올로기에 대중의식이 포획되게 된 주원인이다. 이로 인해 개발독재가 재조명되고 이명박, 박근혜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박정희의 정통성' 계승이라는 일련의 보수담론의 주체가 유능함으로 선호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2005년 실시한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72.3%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원인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식하고, 21.3%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2005년 초 정부가 양극화 심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국정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이 국정과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는 22.6%가 신뢰한다, 73.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¹⁷⁾

이렇듯 민주정부들이 경제와 노동 등 민중생존 관련 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등 불평등을 확장함에 따라 민주화의 결과는 매우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따른 평등분배와 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하는 '실질민주주의의 未실시', 즉 불완전한 민주주의 실험이 아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패'인 것처럼 담론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5월 민중항쟁의 '민주' 정신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17)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동향과 분석』 54호, 2005. 9. 15일자.

3. '민주'의 정신사적 지평 : '민중' 발현과 평등연대

5월 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억압의 대상이었던 군부통치 시기,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 '민주'를 공론화하고 실현하게 한 민중운동의 역사적 기점이었다. 반공안보 이념에 간혀 지속적으로 통제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은 70년대 내내 불평등한 분배구조에 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서서히 분출하였으나, 생존을 담보 잡혀야 하는 폭력적 국가억압 상황에서 각 노동현장 별로 각개로 진행되었다. 그 시대 민주주의의 민중적 현실화를 추구하며 집합적 의지로 생존을 유지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였던 정신이 바로 5월의 '민주' 정신이다.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해서 90년대 국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사망 154명·행방 70명·상이 3,028명·기타 1,628명으로 중복 인정된 698명을 제외할 경우, 총 4,362명이다(5·18기념재단 2006). 항쟁 참여자의 직업 분포로 보면 하층노동자인 영세사업장 취업자 31.4%, 운전기사 6%, 회사원 7.3%, 상업 5.8%, 농업 7.4%, 교수와 성직자 등 재야인사 4.8%이다. 당시 시민군으로 무장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건설일용노동자·용접공·자개공·인쇄공·다방주방장·식당요리사·실업자 등 대부분이 하층 노동계급이었다(전남 사회문제연구소 1988, 388;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1549-53). 즉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소외된 민중들이었다.

박정희 유신통치 기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공업화 및 경제발전에 희생된 농업을 근간으로 한 전라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소외'가 바탕에 깔려있던 상황에서(최정운 1998), 5월 18일 광주에서 벌어진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도살하는 국가권력의 '상상할 수 없는 국민 살상'과 그 공포 및 생존위협에 얼어붙어 동료 시민의 죽음 및 참혹함에 순간 눈을 돌렸던 인간애에 대한 부채의식이 10여 일 동안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하게 한 '민중공동체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¹⁸⁾ 그러므로 5월 민중항쟁은 우리 사회에서 허버마스가 21세기 더 나은 인간공동체 구성을 위해 제기한 '자기결정'과 '연대'¹⁹⁾의 정신을 보여준 민중사이다.

5월의 정신 중 '더 나은 사회' 건설의 주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자기

18) 그 구체적인 역사적 전개과정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가 발행한 『광주민중항쟁일지』 참조.

19) 허버마스는 그의 저술에서 자기결정이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정되어 행위를 강제하는 이미 주어진 명령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연대는 프랑스혁명의 전통적 가치였는데 근대 민족국가가 배타적 권력과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가치라고 한다(Jurgen Habermas 2003, 87; Jurgen Habermas 2000, 522-523).

결정과 연대의 정신이다. 5월 민중항쟁에서 보여준 공동체 정신은 초기에는 '생존을 위한 방어적 공동체'였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과 저항의지가 모여지면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5월 20일 오후가 되면서 이 공동체는 '자기확신에 기초한 연대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자율적인 물자 공급 및 의식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평등과 공유 정신, 서로가 역할을 맡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정신,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정신 등이다. 이에 대해 최정운은 "절대공동체"라고 명명하였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절대공동체"라는 것이다(최정운 1998, 303).

이것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항을 위해 약 2천 5백명이 넘는 총기가 어떤 통제 없이 민중들의 손에 있었고, 매일 수십만 명이 집단토론과 집회를 했음에도 계엄군도 놀랄 정도로 치안상태가 안정적이었고 자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민중들은 서로 간의 절대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 이 경험은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지적 일체성과 강한 연대의식, 그리고 생활 및 물질의 자연스런 공유 현상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민중주의적 평등과 연대 의식, 그리고 집합적 열망을 공유하는 문화를 이 사회에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항쟁참여자의 직업분포와 항쟁과정에서 보여준 기층 민중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항쟁과정에서 권력층과 타협하려고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려한 지식인 계층, 그리고 부유층의 도망과 불참을 목격하면서 '계급성'을 확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항쟁에 참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동질감을 확인했던, 다수 '배우지도 가지지도 못했지만 노동을 통해 하루를 살아하는 사람들'의 강한 신뢰 및 연대의식을 확인하게 했다(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김두식 1998).

특히 5월 21일 낮 공수부대가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한 후 시민들도 총을 들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중들은 총을 들었고 지식인 계층은 주저하고 도피했던 것이다. 최정운은 당시 상황을 "사람들은 돌연 그 곳에서 계급을 보았다"고 표현하였다(최정운 1998, 313). 더욱이 군부권력은 국가폭력과 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쟁참여자들을 깡패와 불량자 등 현실 불만세력이라고 선전하였다.

끝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다수 민중들은 몇일 동안의 '평등한 시민공동체'가 결정적인 국면에선 계급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좌절하였다. 그럼에도 이 좌절의 경험은 이후 새로운 투쟁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에 알렸던 역동적인 '민중' 이념을 세우게 하였다. 김용철에 의하면, "광주에서 계급으로서의 민중의 가능성을 보았던 반면 그 한계까지 동시에 경험한 것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민중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반성적 계기"가 되었다(김용철 2003, 192).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의 민중운동을 주목했던 이유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사회 내부로부터 폭력적 국가권력에 대항하면서 성장하였고, 소수의 엘리트층이 아니라 다수의 민중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민주화 열망이 집합적 요구로 발현되면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 인민의 참여와 자기실현 및 자기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이란 개념은 '계급'을 내포하고 있으나 계급을 넘어서, 소수의 지배층과 대립적 이해와 요구를 가진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상당한 포괄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역동적인 적응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단히 적합한 개념인 것이다. 5월 항쟁은 바로 이 '민중' 개념을 형성한 역사이다. 항쟁과정에서 기층민중들이 보여준 결사항쟁의 모습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하층계층들 간 강한 연대의식과 함께 민중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였다(김용철 2003, 197).

그리하여 5월 항쟁의 '민중' 정신이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각 계급 및 계층이 공통의 힘을 만들어 내기 위한 대중조직이 건설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적 요구와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힘입어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광범위한 민주적 대중조직이 결성된다. 구체적으로 노조 민주화실천위원회 결성,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결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 인천민주노동자연맹 발족,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 발족 등이다. 그리고 6·10 항쟁 이후 민중의 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계급 투쟁이 본격화되게 하였다.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그 동안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및 폭력적 노동통제 속에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이 '자기결정'과 '자기실현'을 주장한 민중의 역사였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중사는 세분화되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 계급·계층별 대중조직 건설로 구체화되었다. 89년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출범하였다. 또한 1990년 1월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창립된다.²⁰⁾ 그리고 이들 다양한 대중조직들은 민주·민중·평등·연대의 가치를 들었다. 이 가치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5월 민중항쟁의 정신을 조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위험이 구조화되어 생존의 위험, 전망부재의 위험, 수많은 가치와 배타적 대응 간 갈등의 위험 등이 팽배하다. 가장 절박한 위험은 '생존의 위협'이다.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하여 내 생활과 지위가 박탈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우리의 일상을 어둡게 하고 서로 간 의사소통을 차단하게 한다. 근대성과 전근대성이 혼재되어 창의성과 조직순응력, 진취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거기에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인구의 이동과 다양한 가치 및 문화의 순환으로 제2차 근대성이라고 논의되는 정체성과 다문화성이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Risk Community)”를 사회구성원 다수가 극복할 수 있는 생존전략과 발전전략은 평등한 ‘연대(solidarity)’와 ‘경제민주화’ 일 수밖에 없다. 그 대응경로는 집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참여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횡적인 동료의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연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위험사회를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는 방안이다(Ulrich Beck 2000, 95). 연대란 특정한 가치규범(a specific canon of values)을 가지는 공동체의 집단적 자기확신(self-ascertainment)에 기초한다(Jürgen Habermas 2000, 522-523). 먼저 위험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모아내야 한다. 나와 내 주변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용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불평등 분배,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경쟁구조 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중적 평등연대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인가? 첫째, 사회 다수의 이해를 모아내는 민중적 공공담론을 시민들 간 수평적 관계(horizontal relations)로부터 조직하고 확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공공의 장소에서 논의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사회 개방성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민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사고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장에서 표현되는 문제를 최소과제부터 최대까지 유형화하여 연대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자기결정(self-directing)’을 통한 연대이다(Jürgen Habermas 2000, 523-524).

둘째, 자유와 평등 이념을 평화와 안보에 연계시키며 이것들이 다수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가치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보호하는 좁은 의미의 안보(security)가 아니라 인민주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보인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주장해야 한다. 그 기초는 노동권과 사회적 보증, 이를 위한 권리주장의 보호일 것이다. 셋째, “관용은 비용”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연대에 기초한 공동

20) 전노협 출범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탄압에 맞서 정당하게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천만노동자의 전국적 구심이 형성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전노협 건설은 그 자체가 민주노조운동 사수투쟁 과정이었다. 따라서 전노협은 소속된 14개 지노협 2개 업종 600여 노조 20만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전노협은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민주노동조합운동을 복원시킨 역사적 일이었다.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시협조주의와 어용 비민주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민주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가 탄생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연표 2006). 전노협은 이후 정부의 탄압에 의한 집행부 무력화, 중소노조 휴폐업 등으로 조직세가 축소되기도 하고, 자본과 정권의 확신한 탄압에 맞서 온갖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기 위한 조직사수 투쟁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어떤 민주적 대중운동조직보다 비타협적 투쟁성과 변혁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민주노총으로 이어졌다.

체와 민중의 이해라는 “추상적 존중”(abstract respect)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바로 관용인데, 그 비용은 나에게 다시 환류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배타적 이익이 아님을 공유해야 한다(Jurgen Habermas 2000, 523-525).

그러므로 2006년 현재 5월 민중항쟁의 정신사적 지평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을 다시 드러내고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연대와 평등 이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IV. 결 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치사회’를 위하여

2006년 10월 말 현재 ‘북핵 실험’으로 전개된 세계적 갈등 국면에서 1994년 이후 김일성 사망과 연이은 자연재해, 그리고 북핵문제로 인한 북미갈등 고조로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북한체제 붕괴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북한의 제2차 미사일 발사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미국과 일본 정부의 ‘대북강경책 강화’와 북한정권의 ‘준전시체제 선포 및 사생결단(死生決斷)’ 대응은 동북아 지역 정치역학의 변화와 안보불안을 극대화시킨 ‘북핵실험’을 초래하였다.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혼란에 빠졌고, 전쟁 가능성과 함께 연일 국내의 각종 비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은 실시간 집중 보도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체감도 이상의 안보위기를 보도하며, 정치/안보/북한 학계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화두로 다양한 주장과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신임총리 아베가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응할 만한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더욱 크게 하였다.

2006년 10월 말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초점은 미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의도와 행동, 아시아·유럽·중동 지역 내 행보, 북한정권의 의도 및 대응, 각국의 합종연행 과정, 그리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예측 및 분석 등이다. 이와 같은 북핵문제로 동북아를 둘러싼 제 국가들의 행보에 따른 한반도 위협론은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보고 국가와 국가 간 관계 틀을 단순화하여 분석하는 제 연구들이 그러하듯,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국민의 문제를 결과로 치부하거나 쉽게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국가라는 인간공동체의 ‘인간문제’를 쉽게 간과하는 것이다.

국제 및 국내 정세의 급격한 추이와 논쟁 주제 및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우려는 '인간 실종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대북유화조치와 대북지원이 도마 위에 올라, 참여정부의 태도와 안보능력에 대한 '이념논쟁을 덧붙인' (반미/친북) 평가가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전개되고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으로, 차기 정권의 주제 및 성격을 결정하는 '정치-언론-지식'의 권력라인 결집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북지원과 현 정권의 안보 무능력'이 집중적으로 공격되고 있으며, 대대적인 대국민 선거전에 열을 올리는 대선후보 진영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야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현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였고, 소위 '386세대 간첩 사건'이 보도되었다. 문제의 심각성과 별도로 그야말로 스펙터클한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근대국가와 이념 간 갈등이 인간문제를 외면하여 '제노사이드'라는 야만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성찰과 재발방지의 논의들이 무수히 진행되었음에도, 국가와 이념 중심의 사고틀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북핵 및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세계적 게임장'과 국내 권력층의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의 경제적 생존 수준이 빈사(瀕死)상태이며, 북한정권이 '수령정치'를 넘어 감시 및 군사적 통제와 함께 반미항전(反美抗戰)이란 결사(決死)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북한의 현실과 국내외적 혼돈 및 위기를 1994년 제1차 북핵사태 발발시 경험하였다.

물론 2006년 10월 북핵실험은 북핵사태와 그 질이 다른 사안임은 분명하다. 또한 21세기 세계화 시대 국가와 정치의 중요성이 새삼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접근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목적과 국가 관계' 중심 사고는 국가가 영토를 매개로 한 '사회구성원의 주권체'라는 평범한 진리를 쉽게 간과하게 한다.

북한경제가 자체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현실을 생각할 때, 주민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북한권력의 지배가 장기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시기적 예측의 적실성을 떠나 만약 회자되는 '대북제제 강화와 북한체제 붕괴'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소수 권력층이나 미국·중국·일본 등 국가권력이 아니다. 바로 노동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모색하는 일상인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체제 붕괴 이후 혼란과 흡수통일을 감당하고 주도할 사회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2003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총 2,000억 5,000억 달러(약 240조 600조원)에 이를 것이라 발표하였고, 올해 10월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 통일시기 등에 따

라 통일후 10년간 최소 7천700억달러(약 855조원)에서 최고 3조5천500억달러(약 3천94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는 이 대규모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핵심화되어 가야 한다. 통일비용이란 '한국이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 비용, 제도통합 비용, 경제재건 비용 등'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를 압박하여 북한정권 붕괴 및 교체를 유도하는 것은 한반도 내정에 대한 미국·중국·일본 국가권력의 직접개입 가능성을 크게 한다. 또한 혼란 국면과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 한국 내 정치경제적 이해를 달리는 하는 세력 간 대립 등 현재 한반도 민주주의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안이 폭발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붕괴시 마련되어야 할 대규모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 내 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 고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 주민 및 노동자·농민 등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막대한 통일비용과 혼란의 감당주체는 다수 한반도 일상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 개발에 투자해 남북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노동에 따른 부의 사회적 분배'가 진행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또한 한국 내 민주주의와 사회합의 구조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갑작스런 통일국면에 들어서면, 그 사회혼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직접적 책임주체이며 그 전개과정에 따라 피해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무엇을 위한 어떤 통일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그 이념은 5월의 정신에서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자유·평등·평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근본이념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를 인정하는 자유, 민중생활 연대로서 평등, 일상의 불안을 없애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그 사회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수용' 하는 것, 현실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모색' 하는 것, 노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권리를 실현하려는 민중들의 '불평등을 해소' 하는 것, 이를 위해 '경제적 민주화'를 본격화하는 것,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자유·평등·평화에 기초한 민족·민주·민중 이념이 실현되는 '자치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치사회는 남북한 사회 공히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형성되는 민중의 역동성 실현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게오르게 A. 쿠르베타리스·박형신 역, 『정치사회학』, 일신사, 2003.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2000.
- 김동택, “근대 국민과 국가 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근대 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청어람미디어, 2004.
- 김두식,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1998.
- 김연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 복합구조와 평화경제론,”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자료집, 2006.
-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전남대 5·18 연구소, 2003.
- 박명규,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넘어서,” 『창작과 비평』 122호, 2003.
-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한국민족주의,” 『광복60주년 심포지엄자료집』, 참여연대, 2005.
- 박명림,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병행 발전의 조건과 과제,” 『아세아연구』 제100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 박상수,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2005.
- 박태균, “5.18과 미국에 대한 성찰,” 『민주주의와 인권』 4권1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4.
- 신광영, “누구를 위한 민주화였나?”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복60년 제9차 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005년 10월.
-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출판부, 1987.
- 요한 갈통, 김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우에노 치즈코·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2000.
- 윤도현 외,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이광일, “민주화 이후’ 이데올로기 및 지식의 독점구조의 변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 2006년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2006. 11.
- 이병천, “반공 개발 독재와 돌진적 산업화: ‘한강의 기적’ 과 그 딜레마.” 『광복60주년 심포지움자료집』, 참여연대, 2005.
- 정상호, “유신체제의 사회적 동원의 유형과 특성”, 『박정희체제의 국가동원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성공회신학대 연구팀 학술발표논문집, 2004.
- 정영태, “한국민주주의의 현단계와 과제,” 『한국민주주의의 심화와 대안모색』, 한국정치연구회 제3회 비판정치학대회 자료집, 2005.
- 정용욱, 『광복60주년 심포지움자료집』, 참여연대, 2005.
-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 5·18 연구소, 2004.
- 정해구 외, 『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정해구, “87년 헌정체제의 특징, 문제점, 개혁방안.”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대안모색』 제3회 비판정치학대회 자료집, 한국정치연구회, 2005.
- 조지 카치아피카스· 나간채 역, “역사 속의 광주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2권 2호, 전남대 5.18연구소, 2003.
- 조희연, “87년 체제’의 전환적 위기와 민주개혁,” 『광복60주년 심포지움자료집』, 참여연대, 2005.
- 조희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비교연구,”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 2006년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2006. 11.
- 조희연,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2003.
- 최장집, “해방 60년에 대한 하나의 해석: 민주주의자의 퍼스펙티브에서,” 『광복60주년 심포지움자료집』, 참여연대, 2005.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마니타스, 2005b.
-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나남, 1998.
-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1』, 나남, 2006.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홍기빈, 『광복60주년 심포지엄자료집』, 참여연대, 2005.

John Elster and Rune Slagstad eds.,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8.

Jurgen Habermas, Constitutional Democracy: A Paradoxical Union of
Contradictory Principles?, *POLITICAL THEORY*, Vol. 29 No. 6, December
2001, 2001 Sage Publications, 766-781.

Jurgen Habermas,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ume1, n.1(January 01, 2003a), Oxford University
Press an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pp. 2-12.

Jurgen Habermas, Remarks on Erhard Denninger's Triad of Diversity, *Security,
and Solidarity*, *Constellations*, Volume 7, No 4, 2000, Blackwell
Publishers Ltd., 108 Cowley, Oxford OX4 1JF, UK and 350 Main Street,
Malden, MA 02148, USA.

Jurgen Habermas, Toward a Cosmopolitan Europe, *Journal of Democracy*,
Volume14, n.4(October 23, 2003b), pp. 86-100.

Schneider, G., K. Barbieri and N. Gleditsch, *Globalization and Armed Conflict*,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Stuart A. Bremer, "Dangerous Dyads: Likelihood of Interstate War, 1816-1965",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Jun. 1992), p. 318

Ulrich Beck, Patrick Camiller, The Truth of Others: A Cosmopolitan Approach,
Common Knowledge(Project Muse), Volume 10, Number 3(July 30, 2004),
430-449.

Ulrich Beck, The cosmopolitan perspective: sociology of the second age of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no. 51 Issue No.
1(January/March 2000), pp. 79-105. ISSN 0007 1315.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0.

Ulrich Beck, Toward a New Critical Theory with a Cosmopolitan Intent,
Constell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and democratic theory,
v.10 no.4. Blackwell Publishers, 2003, pp. 453-468.

박정희대통령전자도서관, <http://parkchunghee.or.kr> 검색일 : 2006년 8월-1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연표, <http://www.kdemocracy.or.kr/minju/history/chronology.asp/> 검색일 : 2006년 3월~11월.

표상(表象)과 권력: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임종명(진남대 사학과)

1. 서론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이후 남한 역사의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1980년대 사회운동과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이고 1980년대 문화 역시 광주항쟁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¹⁾ 하지만, 5월항쟁은 대한민국 국가, 예컨대, 신군부가 1980년에 수립한 5공화국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광주항쟁은 5공화국의 '민주적·민족적 정통성' 위기의 근원으로 작동하면서 제5공화국의 붕괴를 촉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군부의 5공화국 축성 '명분'으로 전용(轉用)되면서 축성의 건설재로 활용되었다.²⁾

본 연구는 권력의 5월항쟁 전용에 초점을 맞추어,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표상된 5월항쟁의 모습과 그것의 정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중매체의 표상작업에 주목하는 것은 권력의 표상작업이 대중을 최종적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주권재민이 헌법적으로 선언된 근대에 있어 권력의 자기정당화에 대한 최종적 승인은 대중에게서 구해진다. 바로 이 때문에 자기정당화를 위한 권력의 표상작업은 종국적으로는 대중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본 연구는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지'에 실린 5월항쟁관련 기사, 만화, 사진 등을 하나의 텍스트(text)로 다루고자 한다.³⁾ 먼저 본 연구가 『동아일보』 등 '전국지'를 텍스트로 한 것은 광주 '바깥 세계' 한국인들의 심상(心象)에 구축된 5월항쟁상(像)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여러 종류의 '전국지'를, 또 성격이 다른 자료를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고자 한다. 이는

1) 5월항쟁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포괄적 검토는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5·18민중항쟁』,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참고

2) 강만길 2001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앞 책』, 53쪽; 김영태 2004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314쪽

3) 텍스트와 신문텍스트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임종명 2005 『어순사건의 재현과 복역』 『한국근현대사연구』, 32집 107~109쪽 참고.

자료의 상이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전체는 5월항쟁의 무효화와 지배질서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면서 5월항쟁에 관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

본 논문은 당시 신문매체가 생산한 5월항쟁에 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5월항쟁 보도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는 보도내용의 사실성여부나 “보도태도”나 “보도논조”를 자신의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⁵⁾ 또 몇몇 연구들은 기사구성의 틀(frame)을 연구의 주된 초점으로 하여 보도매체의 현실구성을 논구하였다.⁶⁾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의식·인식의 형성에서 차지하는 이미지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5월항쟁 관련기사가 표상하는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⁷⁾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은 이미지생산의 동기(motif), 주제 및 그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⁸⁾

5월항쟁의 이미지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대중설득과 규율화에 초점을 두고 생산된 이미지의 정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왕의 연구들은 신문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5월항쟁의 모습을 검토하면서 그것의 정치성을 ‘1980년 5월 민주화운동과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과 동시에 ‘신군부 집권 정당화’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⁹⁾ 본 연구는 집권정당화의 기제였던 대중매체 보도물의 대중설득구조와 대중설득의 잠재력을, 나아가 대중규율화 노력을 추적하고, 이 속에서 5월항쟁상의 정치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신군부의 집권과 공화국 개창 및 통치기반 강화’에 관한 종합적 이해에 이바지하길 끝으로 희망한다.

4) 기존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당시 신문들은 적어도 5월항쟁 초기 ‘기사 제목이나, 앞, 또는 배치’를 통해서 자신의 ‘논조’나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김기태 2002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신문 논조의 변화-조선일보·동아일보 사실을 중심으로』, 광주대 석사논문 38~39쪽) 하지만 이러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문매체들은 “지배이데올로기 내지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조응하려는 제도언론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조재구 1992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66쪽) 실제로 당시 신문들은 “거의 비슷”한 “진입내용에 관한 기사의 구성”을 가지고, “광주항쟁을 폭도와 불순분자들의 난동”으로 규정하면서, “항쟁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송정민 1994 『뉴스의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뉴스매체의 5·18 광주항쟁 보도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61, 248, 258쪽)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계엄하 언론통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당시 신문들의 보수성이 개별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79년 10·26과 80년 봄’에 의해 위협받던 대한민국의 지배체제에 ‘충심으로 복무’하도록 한 결과였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신문들의 5월항쟁 보도를 틀지웠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본 논문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상이한 성향을 지닌 신문들을 하나로 텍스트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5) 김성 2001 『5·18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알해』; 조재구 『알 논문』; 김기태 『알 논문』

6) 송정민 『알 논문』; 송정민·한선 2005 『5·18 신문사건의 의미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5:1

7) Victor Burgin 1983 『Seeing Sense』 Howard David & Paul Walton ed, Language, Image, Media (Oxford, Basil Blackwell Publisher Limited) p. 235

8) 따라서 본 연구는 기사의 사실성추적과는 상관없다. 텍스트의 사실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임종명 『알 논문』 107쪽 참고.

9) 예컨대 최영태 2004 『1980년도의 기사를 통해서 본 조선일보의 정체성』 『민주주의와 인권』 4:2

2. 폭력과 파괴, 그리고 그 재현전략

5월항쟁은 여타의 대중항쟁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에서 ‘폭력과 파괴의 소요·폭동’으로 재현된다.¹⁰⁾ 예컨대 5월항쟁에 대한 최초 보도인 5월 21일자 신문은 「광주에 소요」라는 표제 하에 “군경5·민간인1명 사망”이라는 부제로 ‘계엄사발표’를 보도한다.¹¹⁾ 이 기사는 “사망”과 함께 본문에서 “공공건물 13동이 파괴 또는 소실됐고 민간차량 3대, 소방차량 4대가 파괴”를 전한다. 이것은 5월항쟁의 성격을 사망과 파괴의 “소요”로 규정하면서 향후 관련 재현작업의 기본틀과 표상된 5월항쟁의 핵심주제를 형성한다.¹²⁾

하지만 당시는 앞과 같은 5월항쟁상이 대중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당시는 언론이 계엄 하에서 검열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계엄당국이 당시 ‘민주화’ 정국(政局)의 한 당사자였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면서, 제도언론매체 또한 대중적불신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것은 광주현지에서 MBC와 KBS가 대중에 의해 소각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광주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비(非)광주지역에서도 계엄 하에서의 제도언론은 적지 않게 불신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다음의 「시국성명서」(1980.5.24.)에 잘 나타나 있다.

언론인에게 고한다.

더 이상 왜곡보도를 하지 말라.……지난 유신독재 7년간 그만큼 역사와 민족에 대죄를 범했거늘, 어찌 조국의 파멸을 눈앞에 두고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가는 참혹한 내 형제의 시신을 옆에 하고서도, 어찌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곡필을 놀릴 수가 있단 말인가. 역사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형제, 내 가족, 내 나라를 위해 언론인이여, 이 제라도 감연히 일어나 싸우라. 언론의 참된 사명을 다하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성명서는 당시의, 아니 지난 “유신독재 7년간……역사와 민족에 대죄를 범”한 제도언

10) 대중매체에서 ‘폭력과 파괴의 사태’로 재현되는 대중항쟁의 모습은 다음 참고: 임종영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임종명 2005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한국사학보』19호.

11) 『서울신문』, 1980. 5. 21. 21일자, 내지는 22일자로 5월항쟁의 첫 기사를 실은 여타 신문들도 『서울신문』과 기사내용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2) 김성에 따르면, ‘최초보도’ 또는 ‘발생보’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특정’하면서 ‘독자들에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기억 속에 체계화’하기 때문에, ‘발생보’의 방향성은 사건의 전체를 사실이 보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성 『암 논문』 355쪽)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월항쟁은 대중매체에서 ‘소요·폭동사태’로 형상화되고, 오랜 동안 독자들의 기억 속에 그러한 이미지로 ‘존치’되어 왔다.

론에 대한 강한 불신과 비판의식을 보여 준다. 이것은 비(非)광주지역에서의 대(對)언론 시각을 보여주는 일단(一端)이라 할 수 있다.¹³⁾

제도언론 불신은 '대안·대항언론'의 성격을 가진 유언비어의 광범한 확산을 가져왔다. 당시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지도급 인사까지도……유언비어를 무책임하게 전파·유포시키거나 무분별한 일반인사가 고의적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킬 정도로, 유언비어는 민간에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계엄사기] 동사태의 전모와 진상을 소상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가 유포되어 민심을 현혹"(강조, 필자)할 정도로, 언론·국가가 구축한 5월항쟁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면서, 그것의 대중적 수용을 위협하였다.¹⁴⁾ 이러한 위협에 직면해, 정부 및 계엄당국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는……유언비어의 근절과 이의 전파·유포의 방지"라고 하면서 5월항쟁상 구축사업에서의 경쟁자인 유언비어의 단속을 강화하였다.¹⁵⁾ 즉, 정부당국은, 예컨대 치안본부는 5월 27일 "지역감정 등을 유발해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사회혼란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전국경찰에 지시"하고 실제로 "流言蜚語" 날조 유포혐의"로 "言論人 8명 연행 調査"했다.¹⁶⁾ 이것은 당시 정부당국과 제도언론에 의해 생산, 대중에게 전달되어진 '정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그것에 대해 당국과 제도언론이 어떻게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신문매체들은 먼저 '유언비어'의 대중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신문들은 유언비어를 외생적(外生的)인 것으로 만들어 그것의 사실성을 부인하였다. 예컨대, 계엄사의 발표를 '보도'한 『조선일보』 5월 22일자는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 및 깡패 등 현실불만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인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트"(강조, 필자)렸다고 하면서, '외부의 현실불만세력'을 유언비어의 생산자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생산자의 외부인화는 '남파간첩'의 동원으로 발전된다. 예컨대 『조선일보』 5월 25일자 「社說: 道德性を 회복하자-진정 우리에게 너무나 經驗 앞에」은 "이들이[* 남파간첩들이] 地域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갖은 流言蜚語"를 퍼뜨렸다고 하면서 '북으로부터 온 간첩'을 유언비어의 확산자로 지목하여 생산·유포자의 외부인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한편 유언비어 확산이 그들 노력의 결과로 해설하였다. 이것은 반공주의에 호소하여 유언비어 자

13)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공동의장 1980 「시국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80년대 민주화운동』, 6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71쪽

14) 「계엄사 발표 전문」, 『조선일보』, 1980. 6. 6.

15) 「계엄사 발표 전문」, 『서울신문』, 1980. 6. 5.

16) 「유언비어」 단속 강화, 『중앙일보』, 1980. 5. 27; 「言論人 8명 연행 調査」, 『중앙일보』, 1980. 6. 9.

체를 억압하는 한편 유언비어 유포의 작위성을 강조, 유언비어의 사실성을 부인(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사도 인정하듯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지도급 인사까지도……유언비어를 무책임하게 전파·유포시키거나 무분별한 일반인사가 고의적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강조, 필자)하는 상황에서, 즉 ‘남과간첩일 수 없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상황에서, 유언비어 생산·확산자의 타자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타자화가 갖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매체는 유언비어를 관련자의 주관적인 문제로 전화시켜 다시 한번 그것의 사실성을 부인한다. 즉 “동사태의 전모와 진상을 소상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무책임하게 전파·유포……무분별한 일반인사가 고의적 악성 유언비어…민심을 현혹”(강조, 필자)과 같은 기업사 발표문을 전제하면서, 대중매체는 유언비어를 ‘무책임과 무분별, 악의, 미혹(迷惑)’의 결과물로 돌렸다. 이것은 유언비어를 그것의 생산·소비자의 지각·심리·정신 상태와 같은 주관적인 태도의 결과물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언비어가 “진상”과는 상관없는, 즉 주관적인, 그것도 “무책임·무분별한” 심리상태의 산물로 만들어 그것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성부인노력은 유언비어의 내용소개에서 절정에 달한다. 예컨대 기업사 발표를 ‘보도’한 『조선일보』 5월 22일자 보도는 “광주지역에 유포된 유언비어의 유형”으로 유언비어를 하나하나 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마 국민의 군대가 그릴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보편적인 감정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이었다.¹⁷⁾ 이와 같이 대중매체는 유언비어의 내용을 들어 유언비어의 사실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주관적인 소산물로 전화시켰다. 이러한 위에서 매체들은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사실무근”의 것으로 제시하여, 그것의 사실성을 부인한다. 이러한 사실성 부인노력은 제도언론과 경쟁하는 ‘유비(流飛)통신’의 대중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정보생산’에서의 제도언론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여 대중의 5월항쟁상 형성의 통로를 전유(專有)하려는 것이었다.

앞의 노력이 유언비어라는 자신의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면, 이제 대중매체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5월항쟁상에 대한 대중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했고, 이를 위해 먼저 보도내용의 사실성을 ‘입증’하고자 시도한다. 사실성 입증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5월항쟁의 재현작업에서, 러만(Claire Lerman)의 표현을 빌리면, “발언자가 기구”(institutional voice)라는 점이다.¹⁸⁾ 즉 항쟁상의 기본틀을 형성한 최초 보도가 ‘기업사발표’를 전하는 내용이었

17) 김성 「5·18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361쪽

18) Claire Lindgren Lerman 1983 "Dominant Discourse: the Institutional Voice and Control of Topic" Howard David & Paul Walton ed op. cit

을 뿐 아니라 이후 후속보도 역시 많은 경우 '국가기관의 발언'을 지면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대통령 최규하(崔奎夏)의 대(對)광주시민 「방송담화」 전재(全載)기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¹⁹⁾ 즉 "친애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최규하올시다"로 시작되는 그 기사는 "나라의 대통령," 즉 헌법기관이 발언자임을 명확히 한 위에서 5월항쟁을 재현한다. 이것은 대중매체가 헌법기관의 권위를 빌려 보도내용에 대한 대중적 의심을 약화 또는 차단하고, 이를 통해 대중으로 하여금 보도내용을 '사실'로서 수용케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⁴⁾

²⁰⁾ 요컨대 헌법기관의 동원을 통해 보도매체는 보도내용의 권위를 강화하고, 또 그 사실성을 방증(傍證)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5월항쟁 재현작업에서 국가기관 발언 지면화는 재현내용의 사실성을 증빙하고자 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당시 국가 스스로가 '개헌과 민주화일정' 등 여러 면에서 의혹의 초점이었고, 따라서 그것의 사실성 방증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대중에 대해 '국가를 믿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시도한다.²¹⁾ 국가의 이러한 시도와 함께, 언론매체들은 자신에 의해 구축된 5월항쟁상의 사실성을 입증하고자 다양한 재현전략을 동원한다.

사실성 입증을 위한 재현전략 중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수량적 재현전략이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발생1보'는 "군경5·민간인1명 사망"과 "공공건물 13동이 파괴 또는 소실됐고 민간차량 3대, 소방차량 4대가 파괴"에서처럼 수치를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5월항쟁을 '0명(名) 사망'과 '0동(棟)·대(臺) 파괴·소실'의 '소요'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량적 재현전략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채용되면서 5월항쟁을 형상화하였다. 예컨대 5월 31일자 「동아일보」는 계엄사발표를 보도하면서 "광주사태로 1백70명 사망"이라는 블록(block) 처리한 표제를 1면에서 제공하고, 다시 그것의 상세 기사를 3면에서 제공한다.²²⁾ 5월항쟁을 "소요" 대신 "사태"로 명명·규정한 앞의 기사는 '000명 사망'이라는 수자(數字)의 사용에서처럼 수량적 재현전략이 계속해서 채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³⁾

19) 「최대통령 방송담화」, 『서울신문』, 1980. 5. 26.

20) 헌법기관의 동원은 헌법적 권위를 통해 5월항쟁을 낳았던 역사·사회적 맥락과 항쟁참여자의 문제의식 등의 논의를 억압하는 동시에 관련논의를 당시 국가기관의 디스크로 내로 한정·변형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덧붙이면, 리만은 헌법기관 동원이 진술내용에 '헌법적 권위'를 부가(附加)하고 이를 통해 '논의의 사실적 기초를 억압'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논의주제를 통제·제한·변형'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Claire Lindegren Lerman op. cit. pp. 79, 93~94

21) 「社說: 信賴風土를 造成해 가야겠다」, 『서울신문』, 1980. 5. 28; 「社論: 社會안정·秩序유지되면 年内改憲·내년選舉 불변」, 『동아일보』, 1980. 6. 3; 「내년 6월까지 政權轉移」, 『동아일보』, 1980. 6. 12.

22) 「光州사태 사망 170명」, 『동아일보』, 1980. 5. 31.

23) 덧붙이면 통계는 수량적 재현의 '최고기법'이라 할 수 있다.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112~113쪽.

이러한 수량적 재현은 국가와 언론매체에 의해 생산·제공된 '정보'에 대한 '일반의 불신' 앞에서 재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장치였다. 즉, 그것은 수(數)의 도구성, 즉 '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도구'라는 대중적 관념에 편승하여 재현작업물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나아가 재현작업의 진실성을 증빙하는 장치였다. 그런데, 수량적 재현전략이 수자와 통계라는 추상적인 도구에 의존하는 한, 재현물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중의 심상(心象)에서 5월항쟁에 관한 상(象)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것이 구상적(具象的) 재현이라는 재현전략의 채용과 동원을 낳는다.

수량적 재현이 주되게 재현된 사실성 증빙과 관련된 것이라면, 구상적 재현은 재현의 구상화와 관련된 것이다. 구상적 재현전략은, 먼저, 언어면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컨대, 「광주 비극의 현장을 보고」라는 제하의 5월 26일자 『서울신문』 기사는 “군당국의 설명”을 인용하여 “군인을 잡아 낚으로 찢어 죽이고 꺾질을 벗기는 (폭도의) 만행”을 보도하면서 “만행”으로 가득 찬, 즉 폭력의 광주상(象)을 축조(築造)한다.²⁴⁾ 이것은 읽기에도 섬뜩한, 하지만 구체적인 일상어휘를 사용하여 묘사하면서 독자의 상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언어문자를 사용한 구상적 재현은 결정적 문제, 즉 ‘사실성 여부에 대한 증거능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 제한점 앞에서, “현장성”(presence)의 암시를 통해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목격담류(流)의 사건 설명(eye-witness account)”이 동원된다.²⁵⁾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5월 23일자 기사를 읽어보자.

본사는 이날 밤 9시 30분 경비전화를 통해 전남 도청의 한 간부(부이사관)댁에 전화, 이날의 광주 상황을 알아 본 결과 연탄이 떨어져 광주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앞의 기사는 “본사는……전남도청의 한 간부(부이사관)댁에 전화……알았다”고 하여, 자신 정보의 ‘직접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도내용을 신빙성을 제고하여 독자의 수용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직접성 강조와 신빙성 제고, 수용성 강화의 절박성은 “한 간부”라고 언명한 후에 재차 괄호 처리하여 “부이사관”이라는 직책을 부기한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간취된다.) 하지만, 이 기사가 ‘전화를 통한 정보’인 한, 그것 역시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실성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

24) 「광주 비극의 현장을 보고, 『서울신문』 1980, 5, 26.

25) Paul Jalbert 1983 "Some Constructs for Analysing News" Howard David & Paul Walton ed op. cit. pp.44~46

류기사가 동원된다. 예컨대 「〈무정부 상태 광주〉」 1주(週)라는 『조선일보』 5월 25일자 기사는 “【光州 화정동에서=金大中 기자】”로 시작하면서 필자의 현장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모두(冒頭) 문장으로 현장성을 증빙·강조한다.

광주시를 서쪽에서 들어가는 폭 40m의 도로에 화정동이라는 고개가 있다. 그 고개의 내리막길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그 동쪽 너머에 「무정부 상태의 광주」가 있다. 쓰러진 전주 각목 벽돌 등으로 쳐진 바리케이드 뒤에는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그 뒤편의 거리는 차가 없어 더욱 넓어 보였다.

“너머에”와 “뒤에는,” 또 “멀리서”와 같은 어구는 앞의 기사가 원근법을 채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근법의 채용은 필자가 현장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암시에 이어, 본 기사는 “보였다”라는 어구를 이용하여 기자의 현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것들은, 요컨대, 현장성을 증빙하여 “무정부 상태 광주”의 사실성을 강조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현장성 강조와 이를 통한 사실성 증빙 노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사표제에서부터 시도된다. 즉, 앞의 『조선일보』 기사가 기사 본문의 모두에서 현장성 강조와 사실성 증빙을 시도했다면, 『서울신문』 5월 26일자 「광주 비극의 현장을 보고」(강조, 필자)는 기사제목에서부터 기자의 현장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일인칭시점(視點)의 현장목격담은 “목격했다,” “눈에 띄었다,” “총성이 간간히 들리고”(강조, 필자) 등의 감각중심의 어휘나 피동형의 동사를 채용하여 기술내용의 직접성 또는 비조작성(非操作性)을 암시한다. 이러한 것 모두는 재현자들이 전체적으로 기자의 현장성과 비조작성을 강조하여 보도내용의 사실성을 증빙하고, 이를 통해 ‘사실성 증거능력부족’이라는 문자언어적 재현전략의 내재적 취약점에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격담의 이러한 잠재력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목격담이 문자언어 재현전략 중에서 사실성 증빙에의 유력한 기술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글은 “바리케이드” 건너편 “화정동”에서 “멀리서 보”이는 “무정부 상태의 광주”를 쓴 글이었다. 다시 말해 그 사실성의 전제인 현장성이 취약하다. 보다 중요하게는 목격담(談)류의 기사 그 자체가 사실성 증빙에 결정적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목격담이 아무리 현장성을 강조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필자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에 의존하는 한, 목격담류의 재현은, 아니 문자를 통한 재현은 사실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자언어 재현이 지닌 앞의 문제점 앞에서, 시각자료, 또는 시각언어를 통한 재현이 시도된다. 시각자료는, 코너(John Corner)가 주장하듯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로서 하여금 제공되어진 이미지를 실제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 커다란 “증거력”(證據力)을 가지고 있

다.²⁶⁾ 이러한 시각자료는 사실성 증빙능력 부족이라는 내재적 문제점을 지닌 문자재현물을 보강하면서 재현 전체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이와 관련해서, 예컨대, 5월 24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아래의 사진을 검토해 보자.



위의 사진은 노상(路上)의 전소(全燒)된 자동차를 화면에 담아, 이를 통해 '폭력·파괴의 5월항쟁'이라는 이미지를 구상화하는 한편 파괴·폭력의 실재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각자료는 구상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실성을 증빙하는 데 동원된다. 하지만 사진자료는, 바르뜨(Roland Barthes)가 설명하듯이,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의적(多義的)이고 또한 "확정되어 있지 않다."²⁷⁾ 뿐만 아니라, 사진자료들이 "사고과정의 일(-)자료인 감각에 의존하는 한, 그것들은 소비자의 사고전반을 지배할 수 없고 극단적인 경우 사진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른 상상을 낳을 수 있다."²⁸⁾ 더군다나, 시각자료가 "에피소드와 순간성 강조"에 의존하는 한, 그것은 독자의 심상(心象)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다.²⁹⁾ 이러한 사진자료의 특성은 그것의 해독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하위문화(subculture) 등에 따라 사진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생산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전용(轉用)하는 사태를 결과할 수 있다.³⁰⁾ 아니면, 설사 독자가 사진자료의 메시지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메시지를 곧 소산(疏散)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앞의 사진자료에서도 발견된다. 즉 앞의 사진 자체는 단지 '노상에 전소되어 버려진 자동차들만'을 보여주면서, 5월항쟁의 파괴·폭력성의 구상

26) John Corner 1983 "Textuality, Communication and Media Power" *ibid.*, pp.271, 281

27) Roland Barthes 1977 *Image- Music-Text* selected and translated by S. Heath (London, Fontana), Howard David & Paul Walton 1983 "Death of a Premier: Consensus and Closure in International News" Howard David & Paul Walton ed *ibid.*, p. 44 재인용

28) 임종영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160쪽 각주 25

29) 김성재 2004 「독일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5·18광주민중항쟁 보도」 『민주주의와 인권』 41, 151쪽

30) David Morley 1983 "Cultural Transformations: the Politics of Resistance" Howard David & Paul Walton ed *ibid.* pp. 107~111

화와 그것의 입증이라는 재현작업의 핵심적 아젠다(agenda)를 실현할 수 없다.³¹⁾ 더군다나 사진자료의 '순간성'으로 말미암아 파괴·폭력성의 이미지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밤사이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길을 막고 불살라버린 각종차량들의 치참한 모습들(21일 아침 충장로)”이라는 사진설명기사는 앞의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한다. 즉, 그것은 언어를 통해, 사진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즉 전소의 주체와 방식, 나아가 맥락을 적시하여 자료 해독과정(decoding)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또한 ‘이미지의 소산’을 방지하면서 재현작업의 핵심적 아젠다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와 같이 표제와 사진은, 또는 문자언어자료와 시각언어자료는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파괴·폭력사(事)로서의 5월항쟁 재현이라는 재현작업의 목표를 실천한다.³²⁾

우리는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파괴와 폭력사로서의 5월항쟁상(像)을 구축하고자 한 보도매체의 노력과 그 재현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폭력과 파괴사로서 항쟁상을 구축하게 했는가? 그것은 폭력·파괴사(事)로서의 5월항쟁규정이 제공하는 정치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위해행위”를 지칭하는 폭력의 부각과 폭력상(像) 구축은, 폭력의 행사자를, 또 그것을 낳은 ‘사태’를 반(反)·비(非)인간적, 반(反)근대적, 반(反)민족적 존재·사건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수 있게 해 준다.³³⁾ 또한 건설과 발전·진보가 지배적인 담론으로 힘을 행사하는 근대시기에, 또 민족주의가 근대적 문물·문명의 건설을 열망함에 비추어 볼 때, 파괴상의 구축은 그것을 낳은 세력과 사건을 진보의 반대자, 반동(反動)적 사건으로, 또 반민족적 존재·사건으로 규정·규탄할 수 있게 해 준다.³⁴⁾ 역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자를 폭력·파괴(자)로 규정하고 호명(呼名)할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를 타자화된 존재의 반(反)명제로서의 인간·근대·민족적 존재, 또 건설과 문명·진보의 옹호자로 재현할 수 있게 된다.³⁵⁾ 폭력·파괴의 호명과 그것들의 부조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유용성이 폭력과 파괴사(事)로서 5월항쟁을 재현·표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폭력과 파괴라는 프레임(frame)은 ‘대중 포섭’이라는 점에 볼 때 그 정치적 효용

31) 사진 증인에 인물이 배치된 것은 ‘사진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자 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엄성빈에 따르면, “사진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은 “생동감 있는 표정이나 동작,” 즉 “동적인 표현”을 구비해야 한다. 엄성빈 2001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포토저널 리즘 연구-조선·동아·한국·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설명대 석사논문 5쪽.

32) 김성에 따르면 “영상의 세계는 그림의 강조, 에피소드와 순간성 강조, 동시성, 친밀성, 직접적인 민족, 그리고 신속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지만, 인쇄된 언어의 세계는 논리의 강조, 질서정연, 역사, 잘 분류된 묘사, 감정의 질제, 원칙을 강조”한다. (김성 『독일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5·18 광주민주항쟁 보도』 150쪽) 이것은 신문 사진과 그 설명문이, 사진과 문자라는 매체의 특질 상으로도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임종영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105~106쪽

34) 임종영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152~153쪽

35) 다음의 글은 여순 ‘반란’ 사례에서 ‘호명의 정치학’이 주체의 형상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임종영 2006 「여순 ‘반란’의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86~292쪽. 타자화에 대해서는 ‘5월항쟁상의 진영’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폭력·파괴가 인류, 민족, 문명, 근대, 진보라는 추상적인 인류공동체나 관념·개념에 의거하는 한,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 매여 사는 일반대중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가진 정치적 호소력이나 설득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현 작업은 폭력·파괴가 갖는 대중적 의미를 제시해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3. 삶의 파괴, 표상의 대중적 의미화

보도매체들은 5월항쟁의 '파괴·폭력성'을 '일상적인 대중 삶의 파괴'와 연결시키면서 자신들에 의해 구축된 5월항쟁상의 대중적 의미를 석명(釋明)한다. 즉, 5월항쟁의 보도물들은 '파괴와 폭력'을, 추상적인 가치와 공동체와 대한 위협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 삶의 위협과 파괴로 재현한다. 예컨대 국무총리 박충훈(朴忠勳)의 TV·라디오 「특별담화」는 “광주사태는 현지주민과 영세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광주사태”와 “주민과 영세민”의 삶을 연결시킨다.³⁶⁾ 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개한 대통령 최규하(崔奎夏)의 대(對)광주시민 「방송담화」 전제(全載)기사는 광주시민이 “치안부재 상황 속에서 나날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계시고 또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것은 계엄당국의 발표를 전제하는 각종 기사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예컨대, 5월 24일자 『서울신문』은 KBS방송망을 통해 발표된 전남북계엄분소장 특별담화를 “광주……생활품 끊겨 시민들 큰 불편”이란 부제(副題) 기사로 보도하면서, 항쟁 진행 중의 광주를 다음과 같이 재현한다.³⁷⁾

시내에는 무기를 사용하는 강도·강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23일밤 성사맨션·동운동아파트단지 등 주택가에는 자체방범대를 편성, 주민들이 시간별로 보초를 서기도 했고 …… 광주에는 이번 사태 이후 외부와 통하는 모든 교통이 완전 두절되어 농산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끊겨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육류와 생선류의 공급은 전혀 안되는 실정이다.

36) 「박충훈리 광주사태와 관련한 특별담화」, 『서울신문』 1980. 5. 23.

37) 「무기·탄약 반납 촉구, 광주……생활품 끊겨 시민들 큰 불편」, 『서울신문』 1980. 5. 24.

이것은 현지 주민들의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체방범대”를 편성해야 할 정도로 ‘치안부재’의 상황을 초래한 ‘사태’로서 5월항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계엄사 25일 하오 발표”를 「광주에 공포 불안 계속……」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5월 26일자 <<중앙일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층 더 구체화된다.³⁸⁾

▲이들[강경파 폭도들]은 약탈행위를 자행, 가가호호 방문하여 술·음료수·담배·침구 등은 물론 금전까지도 강제 각출했으며 ▲약국·금은방 등에 침입, 강도질은 물론 「슈퍼마켓」에 침입, 현금을 강탈했는데 ▲…… 무기를 제대로 조작못함으로써 무차별사격을 가함으로써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 ▲일반시민들은 완전 치안공백상태에서 주·부식구입이 곤란하여 라면·빵·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있으며 ▲많은 상가의 철사로 인해 생활필수품을 구입조차 어렵게 되었고 ▲품팔이·행상 등 하루 벌어 그날그날 생활을 영위하는 극빈자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한 실정……▲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외로 피신코자 하나 폭도들이 지키고 있고 외곽도로를 차단코 있어 전전공공하며 …… ▲치안공백 상태에서 강도들이 밤마다 약탈행위를 자행, 양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으며……따라서 시민들은 ▲야음을 이용한 폭도들의 각종 횡포 및 약탈 등으로 공포와 불안에 사로 잡혀 있으며 정부와 계엄군의 신속한 질서회복을 바라고 있다.

이 기사는 5월항쟁 진행 중의 광주의 모습을 “완전치안공백상태에서 강경파폭도들의 강제 각출과 강도질, 강탈” 등으로 말미암아 “일반시민들”의 생활이 “생활필수품 구입조차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빈자들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음을, 나아가 “양민들이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 속에서 신속한 질서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이것들은 5월항쟁으로 생계문제가 시급을 요할 정도로 일반시민과 나아가 극빈자들의 일상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요컨대 5월항쟁의 일상생활 파괴를 형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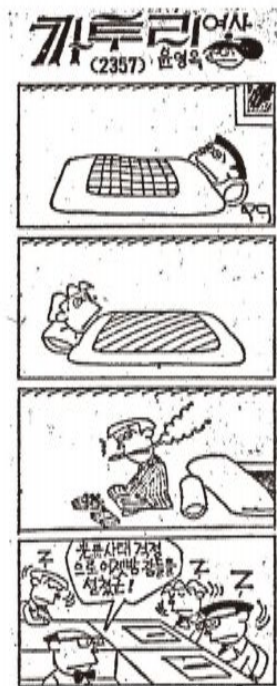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일상 삶의 큰 지장’이 “현지주민”의 것만은 아니었다. 즉 “큰 지장”과 “어려움”은 한국인 일반의 것으로, 나아가 나라 전체의 것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확대는 먼저 비(非)호남지역 거주 의 ‘광주연고자’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5월 31일자 <<중앙일보>>는 광주출신 서울 “주부”의 “여류수상(女流隨想)”을 통해 “고향서 들려 온 비보”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소문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전개” 앞에서 “시시각

38) 「광주에 공포불안 계속 한때 호전……무기 재발취」 『중앙일보』 1980. 5. 26.

각 불안과 초조에 못 이겨[이긴] 공포감"으로 "일손 놓"(강조, 필자)은 모습을 제시한다.³⁹⁾ 이제 광주출신자의 매개를 통해 5월항쟁은 광주 이외 지역주민들의 '일손을 놓도록 한' 다시 말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중단되도록 한 '사태'로 재현된다. '일상 삶 중단의 전국화'는 비연고자의 '동원'을 통해 보다 적극화된다. 예컨대 『동아일보』 5월 29일자는 신달자(愼達子)라는 시인의 입을 통해 "5월"이 "우리 생활의 急所(急所)적인 경제사정에도 명들어 가정의 작은 식탁에도 그 여파가 밀려 들고 있다"고 하면서 "5월"을 전국화한다.⁴⁰⁾ 하지만, 전국화의 보다 극적(劇的)인 시도는 『서울신문』 5월 22일자 다음의 만화에서 확인된다.⁴¹⁾

위의 「까투리여사」는 "光州사태 격정으로 어젯밤을 설"친 직장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직장인들의 출신지역이나 그들의 직장소재지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의 등장인물은 전국의 일반인으로 전제된다. 따라서 이 만화는 5월항쟁을 "현지주민"이나 광주주연고자만이 아니라 비(非)광주지역의, 아니 전국의 '보통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즉 '가정에서의 휴식·수면과 원활한 직장근무'라는 일상패턴을 붕괴시킨 것으로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까투리여사」에서 등장인물이 남성인 한, 앞의 재현상은 일상의 와해가 '남성'의 것으로 한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상의 붕괴가 여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했고, 다음의 만화에서 보듯 실제로 "아지매"의 것으로 확대된다.⁴²⁾

이 만화는 신문을 보다 한 모금 남편 담배를 피우는 왈순 아지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4단의 남편 발언 즉 "그러다 담배 배우겠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그것은 왈순아



39) 김지인 「女流隨想: 잃어버린 5월」 『중앙일보』 1980. 5. 31.

40) 신달자 「5월을 보내며……」 『동아일보』 1980. 5. 29. 재현작업에 문학인 참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임종영 「어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114~116쪽 참고.

41) 윤영옥 「까투리여사」 (2357) 『서울신문』 1980. 5. 22.

지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의 만화는 신문으로 상징된 당시의 상황이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관련해서도 평소와는 다른, 즉 비일상적인 사태를 낳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화의 시점이 5월항쟁의 진행시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니 만화가 5월항쟁에 관한 보도기사 옆에 배치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앞의 「까투리여사」와 마찬가지로 5월항쟁과 관련된 만화일 것이다. 하지만, 「왈순아지매」는 「까투리여사」와는 달리 5월항쟁이 여성에게도 담배를 피워 볼게 한 '근심사'로, 또한 여성이 담배피는 '일탈적인,' 즉 '비일상적인 파격'을 낳는 '사태'로 재현한다. 이것은 5월항쟁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따라서 전체 보통사람들의 일상 삶을 무너뜨린 것으로 형상화한다.⁴³

그런데, 앞의 두 만화가 '전체국민 일상 삶을 파괴한 것'만으로 5월항쟁을 재현한 것은 아니었다. 즉 앞의 만화들은 5월항쟁이 '사회'와 '나라'라는 공간의 일상적 질서, 나아가 그것들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성(性, gender)적 공·사관(公·私觀) 및 공간관(空間觀)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성적인 공·사관과 공간관에서 남성은 직장, 나아가 사회와 같은 공적인 공간의 주재자(主宰者)로, 반면에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주재자로 이해된다.⁴⁴ 이것을 상기한다면, 남녀 양성(兩性)이 등장하는 앞의 두 만화는 5월항쟁을 남녀로 구성된 국민 전체의 삶과 그들 삶의 질서뿐만 아니라 공·사적 공간 즉 가정과 사회를 모두를 포괄하는 공간인 나라와, 나아가 이것의 동의어인 국가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실제로, 각종 문자 재현물은 5월항쟁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서 또는 "정상질서" 파괴로서, 나아가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안보적 중대사태"로서 규정한다.⁴⁶ 요컨대 각종 재현물에서 5월항쟁은 사회, 나아가 나라와 국가의 질서와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로 재현된다.

실제로 대중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5월항쟁이 국가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조선일보』 5월 25일자 「사설」은 "남파간첩들이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갖은

42) 정운경 「왈순아지매」(1645) 『중앙일보』 1980. 5. 26.

43) 심지어 「까투리여사」(2361)는 5월항쟁을 '10일 동안 근심과 걱정으로 체중이 10kg이나 줄게 한' 것으로, 즉 개인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형상화한다. 『서울신문』 1980. 5. 28.

44) 성적 공·사관 및 공간관의 일례(一例)는 Parther Chatterjee 1993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pt. 6, 7 참고.

45) 어의와 용례 상, '나라'는 한국인의 상상·인식 속에서 인위적 정치체라는 의미와 함께 자연적 공간이라는 의미 모두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여러 면에서 '국가'와 다른 함의를 내포한다. 그리함에도 '국가의 자연화'를 위해 양자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임종명 2005 「일민주의(一民主義)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44호 282~283쪽. 덧붙이면, 안드레 슈미드(Andre Schmid)에 따르면, '국' (國)은 조선시대 후기 이래 공간성을 내포한 언어로 이해·사용되어 왔다. Andre Schmid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202.

46) 예컨대 「사설: 안보적 중대사태이다-모든 국민들의 애국적 각성과 자제와 이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서울신문』 1980. 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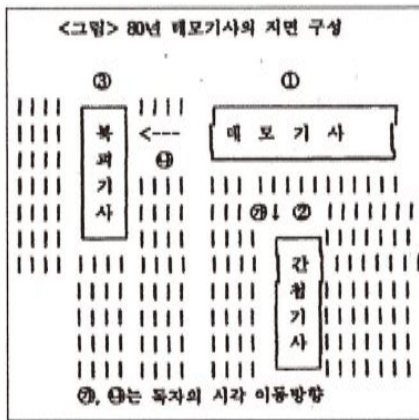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민심을 흥흥케 함으로써 사태를 격화시켰으리라는 것도 심분 짐작이 가기도 한다”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남파간첩 또는 고정간첩의 소산으로 규정하여 유언비어를 억압하는 한편 5월항쟁을 남파간첩들의 유언비어로, 아니 남파간첩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대중매체는 5월항쟁의 발발과 확산, 요컨대 항쟁 자체를 “불순분자들이 북괴의 조종을 받아 시민을 선동하여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타자화했다.⁴⁷⁾ 이와 같이 5월항쟁을 ‘오염의 책동’ 결과로 재현하는 한편, 보도매체들은 “이번 사태는 그 원인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국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기마저 위태롭게 한 위험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태”라고 하는 대통령 최규하의 “유시”를 보도하면서 5월항쟁을 “국기마저 위태롭게 한……사태”로, 즉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사태로 재현한다.⁴⁸⁾ 이와 같이 국가안보위기는 5월항쟁의 정의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형태로 전달된다. 이러한 것들은 “기관의 목소리”(institutional voice)를 빌어 위기원인으로서의 5월항쟁상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앞의 노력들이 5월항쟁을 위기와 연결시키고자 한 직접적 노력이라 한다면, 간접적 내지 암시적 방식을 통해 5월항쟁과 위기를 연결시킨다. 즉, 신문은 북한의 간첩 및 대남 위협관련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간접적으로 5월항쟁을 안보위기와 연결한다.⁴⁹⁾ 이것

은 신문의 지면구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송정민이 잘 밝히고 있듯이, 당시 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지면을 구성하여, 즉 “광주에서의 데모 기사 주변에 간첩들 및 불순분자들의 사건 기사를 배치하여, 5월항쟁을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암시한다.”⁵⁰⁾

이와 같이 당시 신문들은 직·간접인 재현전략을 통해 5월항쟁을 국가안보위기를 초래한 중대사태로 형상화한다. 하지만, 정부·신문이 대중이 아닌 한, 다시 말해 양자가 분리되어 있

는 한, 더욱이 정부가 분쟁의 일 당사자이거나 신문의 ‘중립성’ 내지는 ‘객관성’이 의심받는



47) 본문의 인용문은 임철성·노시훈이 “정부 집단의 유인물과 설명서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군의 “인식태도”를 결론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임철성·노시훈 2004 ‘5·18 항쟁 관련 유인물과 설명서 어휘의 계량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41 200쪽) 이러한 것은 당시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문에서 인용해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1980년 5월 22일자 『조선일보』 및 같은 신문 5월 25일자 『사실』과 1980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참고.

48) 『軍官民일체로 難局 극복: 政治發展은 社會安定 위에서』 『서울신문』, 1980. 5. 31.

49) 예컨대 “光州참입기도”라는 무제 하의 『示威선동阻礙 根거』 『동아일보』, 1980. 5. 24, 참고.

50) 송정민 『뉴스의 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뉴스매체의 ‘5·18 광주항쟁’ 보도를 중심으로』, 58~59쪽. 실제 구성에 관한 송정민의 분석에는 55쪽 참고.

경우, 정부·신문 등과 같은 '기관'의 동원이 가지는 대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매체는 '대중의 입'을 빌어 위기론을 대중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 5월 29일자 「독자의 편지」란의 “경기도 용인군 용인여자고등학교 양승본”이 보낸 「국민 대다수는 사회안정 바라」라는 표제하의 다음 “편지”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 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교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졸업한 그들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 국가안보는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범위 안에서 치료도 필요하고 수술도 해야 한다. 우리는 늘 휴전선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제2의 6·25도 절대로 와서는 안될 것이다.

본 글은 쉽게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의 서두 부분, 즉 “난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자기소개(self identification) 부분이다. 이것은 필자를 '정치적 분류'의 비(非)당사자로, 달리 말해 '일반대중'으로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필자의 발언, 즉 안보의 중요성에 대중성과 '수량적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우리의 논의에서 보다 주의할 것은 대중성 확인이다. 이것은 필자와 대다수가 일반 대중인 독자와의 일치성을 환기시켜, 독자의 감정이입을 촉구하면서 “편지”내용의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5월항쟁과 국가위기초래의 등식화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독자투고란' 동원의, 또 신문지상에의 대중동원이 갖는 정치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5월항쟁을 국가위기의 초래자로 재현하고, 이러한 재현작업에 대한 대중동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중매체들이 국가위기를 단순히 안보위기로만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신문지상에서 5월항쟁은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상의 위기를 낳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5월 30일자 『조선일보』는 5월항쟁이 “光州경제”를 “명” 들게 해 “심한 資金難”으로 “工場 正常가동”을 어렵게 하면서 “대기업[조차] 종업원 월급 못” 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輸出도 못”하게 하였다고 5월항쟁의 경제적 영향을 설명한다.⁵¹⁾

51) '명'은 「光州경제」, ……再起 동부림, 『조선일보』 1980년 5월 30. 경제적 악영향은 '일반대중'의 입을 빌려 『서울신문』의 지면에서도 “한 분의 동진과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도 10일 동안 2백60억원을 벌어도 시련치 않은데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시킨 것으로 공명(共鳴)된다. 변창섭(충주 이류우체국근무) 「독자의 편지」 한데 묻쳐 난국 극복할 때: '국가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서울신문』 1980. 6. 5. 물론 이것은 '대중'의 입을 통해 표상적업 주제에 관한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5월항쟁이 광주지역경제에 끼친 피해를 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다음의 『조선일보』 5월 25일자 기사는 그 피해와 영향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확대한다. 즉, 「광주사태…전주기업에도 영향」이라는 제하의 그 기사는 “생산량의 60%를 전남에서 소비하는 호남식품” 등이 “시장[을] 잃고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품만 싸” 인다고 하면서, 5월항쟁의 경제적 영향의 범위를 광주에서 그 인근 전주로 확대한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확대된 5월항쟁의 경제적 악영향은 다음과 같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1979년 10·26 이후, 특히 1980년 봄 학원소요사태, 노사분규, 광주폭동사태]로 인한 사회불안은 외국「바이어」의 입국 및 거래기피,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시중경기의 침체, 실업자급증 등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10·26 이후 겨우 안정세를 회복하려던 우리 경제는 이제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였다.⁵²⁾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일련의 사태”와 “외국(바이어)의 입국 및 거래기피” 등을 나열하여, 5월항쟁을 전국적인 “경제 파국의 위기”를 낳은 원인으로 재현한다.⁵³⁾ 전국화 내지는 국가적 문제로의 형상화에 이어, 5월항쟁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기관의 소리”를 빌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다. 즉 5월 30일자 『중앙일보』는 5월항쟁이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무역진흥확대회의’(1980.5.30.)에서의 대통령 최규하 발언을 보도하면서 5월항쟁을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론은 앞에서와 같이 “안정세를 회복하려던 우리 경제는[에] 이제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한 것으로, 나아가 “우리가 바라던 대망의 8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며 기다리던 대망의 80년대”에 “정치·사회적인 안정으로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지난 70년대 말까지와는 달리” ‘고도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⁵⁴⁾ 다시 말하면, 5월항쟁은 경제의 회복이라는 단기적 과제와 지속적인 고도성장이라는 발전의 요구 모두를 가로막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렇듯이, 5월항쟁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가위기를 초래하

52) 총력안보중앙협의회의 「성명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에 부쳐-」, 『서울신문』 1980. 6. 4. 앞의 협의회는 광복회 등 64개의 제반 사회단체를 명의로 구성된 단체였다.

53) 당시 「바이어」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강조, 형상화된다. 예컨대 한 신문은 “최근 국내시정으로 아귀되고 있는 〈바이어〉이탈현상”을 “수출전선에 비상을 걸 수 밖에 없는 처지”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사설: 수출타개의 방황』, 『중앙일보』 1980. 5. 29.) 이것은 여러 신문에서 공명되어진다. 예컨대 〈사설: 통화신용정책에 과중의존하는 한 돌파구는 없다〉 『서울신문』 1980. 5. 30.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예컨대, 『동아일보』 5월 27일자 「東亞經濟」(백인수)은 ‘바이어’가 남한에서 “활주로를 찾”는 모습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덧붙이면 5월항쟁이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도 『조선일보』는 「難約 취소사태……〈外國관광객〉: 大學生시위 등 國內情勢 불안으로」를 보도하면서 “일련의 사태”와 경제를 연결시키고 있었다.

54) 「독자편지: 혼란 계속되면 파국 가져와」 주장 내세우기 전에 조국 생각 먼저, 『서울신문』 1980. 5. 30.; 「사설: 통화신용정책에 과중 의존하는 한 돌파구는 없다」, 『서울신문』 1980. 5. 30.

는 중대사로 형상화되었다.⁵⁵⁾ 그렇다면 왜 대중매체는 대중들에게 정치·경제적 국가위기를 유포하는가? 이것의 답은 대중설득과 동의추출에 있어 위기론이 가진 잠재력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현대사 또는 남한현대사를 일瞥(一瞥)하면, 우리는 위기론이 가진 대중설득과 동의추출의 잠재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립직후부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자원을 국방적 수요에 우선적으로 동원·배분하는 국방국가로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고도의 “국방국가” 체제를 유지하였다.⁵⁶⁾ 이러한 속에서, 한국은 국가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영역 역시 국방중심 사회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현대사의 진행은 안보를 국가·사회 최고의 관심사로 위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을 국가주의적 인간, 이의 연장선상에서 ‘안보형 인간’으로 양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전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고도의 “발전국가체제”를 유지했다.⁵⁷⁾ 이 속에서 경제발전론은 국가·사회 전체에서 일종의 ‘주술적 신화’로서 기능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안보형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적 인간,’ 또는 ‘경제적 인간’으로의 전변을 요구받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양성되었다.⁵⁸⁾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진행은, 요컨대, 안보·경제주의적 국가·사회문화를 생산하고 또 강화하였다. 이러한 안보·경제주의적 국가·문화는 위기론이 가지는 대중적 설득력을 지탱한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각종 매체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끊임없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강조하는 한편 5월항쟁을 그것에의 위협요소로 대중에게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위기사태로서의 5월항쟁상 구축은 대중적 차원에서의 5월항쟁 무효화, 내지는 그것의 정당성 박탈을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5월항쟁상(像)의 전용(專用)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당시 신문들은 광주항쟁을 ‘국가 위기와 대중 삶의 파괴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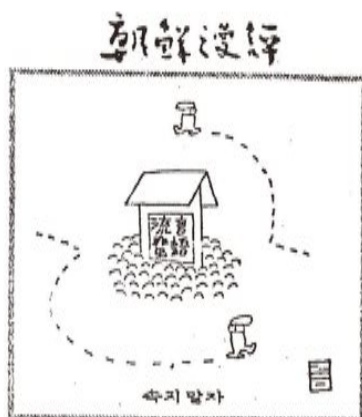
55) 덧붙이면 5월항쟁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사설) 安保的 重大事態이다.」(『서울신문』 1980. 5. 22.)은 ‘公 共建 物을 파괴하고 秩序維持를 위한 대열에 대항하는 일은 바로 그점에서 民主化-政治發展의 途程을 逆流시켰다’고 주장한다.

56) 덧붙이면 한국현대사에서 국방국가가 단순히 국가적 관심사와 자원분배에 한정되어 파악되고 설명된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근대 서구국가의 대안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제시되었다. 임종명 2006 「여순 ‘반민’의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278쪽 각주.

57) 대한민국의 발전주의적 국가성은 다음 참고: Martin Hart-landsberg 1993 *The Rush 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Chpt. 1; Meredith Woo-Cumings 1991 ‘Introduction: Chalmers Johnson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Development’ Woo-Cumings ed,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58) 황병주 2005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15

하는 폭력과 파괴의 소요·폭동'으로 표상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5월항쟁의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노력이었다. 또한 그것은, 기존 연구가 충분히 밝히고 있듯이, 군의 5월항쟁진압과 신군부 집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된다.⁵⁹⁾ 실제로 그것은 민족·민주적 정통성을 결여한 신군부와 이에 의해 지배된 국가에 의해 전용되었다. 즉, 그것은 신군부와 국가를 “광주폭동사태”로부터 사회와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주체로 형상화하면서, 신군부의 존재와 그 집권을 관념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5월항쟁상의 전용이 단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즉 그것은 이하에서 보듯 대중을 규율하여 1970년대 말 이완된 대중지배(체제)를 수습·강화하고 위기에 빠진 지배권력(체제)을 안정화하고 또 강화하는 데로 전용된다. 이에 유념하면서 이하에서는 5월항쟁의 전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매체가 구축한 5월항쟁상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중을 규율화하는데 전용·동원된다. 대중의 규율화를 위해 먼저 5월항쟁상은 5월항쟁의 대중적 영향을 차단하고, 나아가 5월항쟁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데 전용된다. 영향차단이라는 주제는 다음의 『조선일보』 5월 23일자 「朝鮮漫評」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앞의 만평은 독자들에게 사람이 둘러싼 ‘유비통신사’(流飛通信社) 게시판을 피해갈 것을, 그리고 “유언비어”에 “속지 말” 것을 ‘독려’ 한다. 이것은 5월항쟁 표상작업이 5월항쟁의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데 있음을, 다시 말하면 5월항쟁의 대중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리와 차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신문매체들은 5월항쟁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는 대중매체가 유언비어의 사실성, 나아가 5월항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위해 유언비어의 생산·전달을, 또 항쟁의 전개를 간첩과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타자화는 기본적으로 5월항쟁의 ‘외래성’(外來性)과 ‘외생성’(外生性)을 주조하여, 5월항쟁의 좁게는 광주지역, 넓게는 남한의 ‘내재적’ 원인과 이러한 원인을 낳은 역사적 과정, 또 이로부터 규정된 항쟁의 역사성을, 나아가 항쟁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반공주의에 호소하여 또는 의지하여 5월항쟁에 대한 대중의 반감 또는 적대감

59) 최영태 2004 「1980년도의 기사를 통해서 본 조선일보의 정체성」 『민주주의와 인권』 4:2

을 강제 또는 유발시키고자 한 노력이었다.⁶⁰⁾

하지만, 5월항쟁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 고취가 단순히 항쟁발발과 진행의 타자성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즉 5월항쟁에 대한 대중적 반감·적대감의 부식은 일반대중을 5월항쟁의 현재적·잠재적 희생자·피해자로 제시하는 것에 의해서도 시도된다. 앞에서 우리는 대중매체들이 5월항쟁을 국가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낳은, 또 일반 대중의 일상적 삶을 파괴하는 사태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일반대중, 달리 말하면 국가구성원, 즉 국민을 5월항쟁의 현재적·잠재적 희생자·피해자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반감·적대감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⁶¹⁾ 이와 같이, 5월항쟁의 표상작업은 5월항쟁으로부터 대중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항쟁에 대한 대중의 반감·적대감 생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의 규율화가 자기의식적(self-conscious) 주체생산과 긴밀히 연결되어진 것이라 하면, 그것은 단순히 타자성 생산과 피해의식 환기와 반감·적대감 고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대중의 규율화를 위해서는 자기의식의 생산과 이의 고취가, 또 자기의식적인 인간형의 창출이 요구된다.⁶²⁾

5월항쟁 표상작업이 자기의식적인 존재, 또는 그러한 주체의 생산에 전용되어지면서, 표상작업은 대중 규율화에 복무한다. 주체가 관계적 존재라 한다면, 주체의 생산은 타자의 생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⁶³⁾ 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먼저 항쟁과 그 참여자가 어떻게 표상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매체에서 5월항쟁은 기본적으로 유언비어에 의해 시작되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 확산되어진 것으로 재현된다.⁶⁴⁾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신문지상에서 유언비어는 "사실무근"의 것으로, 또 생산·소비자의 지각·심리·정신과 같은 주관적인 태도의 산물로 제시된다. 이것은 물론 유언비어의 사실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심리 등의 결과물로 5월항쟁을 탈(脫)역사화시키는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항쟁참여자를 비이성적 존재로, 다시 말해 감정 등에 의해 지배된 존재로, 나아가 비인간적 존재로 재현하는 것이었다.⁶⁵⁾ 실제로 신문매체들은 5월항쟁과

60) 최영태에 따르면, 반공주의 동원은 5월항쟁에 대한 진압군의 적대감을 강화시키면서 항쟁참여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영태 2006 「극우반공주의와 5·19광주항쟁」, 『역사학연구』26 참고) 이러한 것은 당시 반공주의가 가진 '정치적 잠재력'으로, 이것은 일반대중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휘될 것이다.

61) 현재적·잠재적 희생자·피해자 생산이 갖는 정치성과 관련하여 여순사건의 재현물에서 나타난 "잠재적 희생자 생산"의 정치학은 참고할 만하다. 이에 관해서는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122~129쪽 참고.

62) 대중규율화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여순 반란」의 재현과 대한민국의 형상화, 298~305쪽 참고.

63) 주체생산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155~157, 176~182쪽 참고.

64) 예컨대 「社論: 道徳性を 회복하자-진정 우리에게 너무나 難驗 임에」, 『조선일보』, 1980. 5. 25.

65) '근대 인간학'에서 도의심과 함께 이성은 인간과 동물의 준별점(畧別點)으로 기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상상·재현되어져 왔다. (임종명 2005 「일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대민족국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44호 285~286쪽;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178~180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도덕적·비이성적 존재가 비인간적 존재로 상상되고 재현되는 것은 자극히 당연하다.

그 참여자를 비이성적 사태·존재로 제시한다.⁶⁶⁾ 즉 그것들은 5월항쟁을 “지역감정”(강조, 필자)과 이로 말미암은 “민심 흉흉”(강조, 필자)의 결과로, 또 참여자를 “지역감정”에 의해 “현혹”되고 “자극”된, 대상화된 ‘1차원적 존재’로 형상화한다.⁶⁷⁾ 이와 같이 신문매체들은 5월항쟁(참여자)을 주관적인 감정과 심리의 문제로, 또 감정에 사로잡힌 존재로 전환시켜 탈역사화시킨다.⁶⁸⁾ 이와 함께 신문지상에서 5월항쟁은 ‘사(私)적인 이익’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또 항쟁참여자를 ‘사적인 목적’에 동원되거나 그에 의해 자극된 대상적 존재로 재현한다.

5월항쟁(참여자)의 사화(私化, privatization)에는 크게 두 가지 자료, 즉 지역감정과 김대중이 동원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5월항쟁은 끊임없이 지역감정과 김대중과 연결되어 표상화되었다. 김대중 연결의 정치성 하나가 간첩 동원과 마찬가지로 5월항쟁에 외생성을 부가하여 5월항쟁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면 그 나머지 하나는 5월항쟁을 정치적인 동기, 즉 사적인 동기·이익에 의한 것으로 재현하여 5월항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사화는 ‘지역감정의 동원’을 통해서도 시도된다. 지역감정의 동원은, 쉽게 알 수 있듯이, 5월항쟁을 지역적으로 고립화시켜 광주 이외 지역으로의 항쟁 확산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감정 동원의 정치성이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그것은 5월항쟁과 참여자의 사적인 사태·존재로 전변시키는 장치이기도 했다.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공(公)·사(私)의 이항대립식(二項對立式)’에 따르면 사적인 감정으로 비정(比定)될 것이다.⁷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적인 감정으로서의 지역감정의 ‘전략’과 5월항쟁과 참여자의 사화 또한 우리는 쉽게 간취(看取)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감정의 동원은 5월항쟁을 사적인 감정의 소산으로, 또 그 참여자를 사적인 감정에 지배된 존재로 전변(轉變)시킨다.⁷¹⁾ 이와 같이 신문매체의 항쟁재현작업에서 5월항쟁과 그 참여자는 비이성적인 감정과 사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여진 사태·존재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형상화작업은, 물론, 5월항쟁의 무효화와 그것의 진압 정당화, 및 항쟁참여자의 배제를 목적인 것이다.

66) 예컨대 「理性회복 질서유지를: 李戒嚴사령관 光州시대에 談話」, 『동아일보』, 1950. 5. 22.

67) 「사실」, 『조선일보』, 1980. 5. 25.; 「사태 후진대는 대로 목구작업 착수」, 『서울신문』, 1980. 5. 23.; 「北傀계일라 친두 對備策 점검」, 『서울신문』, 1980. 5. 24. 덧붙이면 신문지상에서 “목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또한 항쟁 참여자를 비이성적 내지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로, 나아가 항쟁을 그들에 의해 주도되는 비이성적·감정적 사태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68) 감정 동원의 정치성 때문에, 항쟁 진압 후에도 신문지상에는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와 “시민의 감정”에 관한 디스크스가 등장한다. 예컨대 「(사실) 마음의 상처를 씻어 주자」, 『중앙일보』, 1980. 5. 29.; 「中央濶評: 마음을 더」, 『중앙일보』, 1980. 5. 29. 참고.

69) 당시 매체들은 5월항쟁을 ‘외부에 있는’ 김대중의 ‘배후조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재현해, 항쟁에 외생성을 부여하여 종교적으로 항쟁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였다. 「光州事態 戒嚴司 발표(全文)」, 『중앙일보』, 1980. 5. 31.

70) ‘공·사 이항대립식’은 ‘공(公)을 공동체·가족, 사회,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로, 반면에 사(私)를 그 구성부분-가족성원, 지역(민), 계층·계급(성원), 개별적 단위로서의 국민-으로 파악하는 인식론’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이 갖는 정치성은 임종명 「일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대 민족국가화」, 298~299쪽 참고.

71) 바로 이러한 지역감정 동원의 정치성이 당시 지역감정관련 어휘나 디스크스를 빈번하게 등장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임철성 노시훈 「5·18 항쟁 관련 유인물과 성명서 어휘의 계량연구」, 198쪽 참고.

하지만 5월항쟁(참여자)의 형상화작업은 대중규율화를 위한 자기의식적 존재의 생산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즉 항쟁참여자의 형상화를 통해 대중매체들은 일반사람들을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존재로 규율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5월 22일자 『서울신문』의 〈安保의 重大事態이다〉라는 제하의 다음 사실을 읽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자제의 理性을 잃고 感情과 暴力으로만 치달아야 하는가.……社會의 安寧과 秩序를 파괴하면서까지 自己主張만 옳다고 行動化할 만큼 大局을 못 보는 격앙된 사태를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內訌으로써 스스로 患部를 만드는 自己消耗를 계속해야만 옳은 것인지 自問自答해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어떤 生産의인 發展指向性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며, 原色的인 感情의 噴出이 結果하는 것은 破滅을 향한 惡循環의 연속 밖에 없다는 너무나 自명한 사실에…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할 때다.……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北의 저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 때문에 좋은 싫든 우리의 행동에는 自制와 理性이 남다르게 요청되는 것이다.……古今の 모든 國家滅亡史는 어떤 형태로든 自己消耗에 따른 虛弱體質化의 自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加熱된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理性을 회복한 가운데 이 以上 사태를 확대시킴으로써 더 큰 비극을 自招하는 愚를 범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지금 한걸음씩 물러날 때다. 물러나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볼 때다.

다소 긴 이 인용문은 타자생산과 자기의식적 대중규율화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사설」은 5월항쟁과 그 참여자를 “자기주장만을 위해 원색적인 감정의 분출과 자기소모적인, 파멸적인 폭력”의 사태로, 그 행사자로 규정하면서 사설의 부제(副題)처럼 “모든 국민들의 愛國的 覺醒과 自制와 理性있는 行動을 促求한다.” 또한 「사설」은 글 전체에서 “우리” 또는 “국민”에게 ‘국가전체라는 대국과 생산적인 발전지향성에 비추어 한걸음씩 물러나 차분히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자문자답하고 각성할 것’을, 즉 “우리”의, “국민”의 자각을 촉구하고, 또 그것에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신문매체들이 일반사람들에게 국가발전에 대한 의식 속에서 “자제”할 수 있는, 즉 스스로를 규제할 줄 아는 “국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신문매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을 규율화하고 노력한다. 예컨대 『서울신문』은 자신의 「서울광장」에서 작가 박기원(朴基媛)을 통해 “우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박기원은 “서민들의 생활”이란 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지금 이 시기는 「나」만

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땅, 이 지역에 같이 숨을 쉬고 같이 받을 딛고 있는 共存의 意識이 가장 필요한 時期라고 생각한다. 「우리」라는 그 단조롭고도 포근한 들레 속에 모두들 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배에 탄 사람들”로서의 “우리” 의식을 강조한다.⁷²⁾ 이러한 자기의식의 부여 위에서, 같은 신문은 계속해서 “독자”의 입을 빌려 독자들에게 “혼란 계속되면 파국 가져와: 주장 내세우기 전에 조국 생각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⁷³⁾ 이것은 일반대중에게 조국의 위기 앞에서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보다도 조국을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매체는 국가주의에 입각, 대중에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나아가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위기극복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중들에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풍조” 대신에 ‘정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 하고 “國內外의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현실을 깊이 인식……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⁷⁴⁾

이러한 대중규율화 노력은 5월항쟁 표상작업의 또 다른 의미, ‘대중규율화를 통한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보여준다. 1970년대 말, 특히 10·26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1980년 봄 학원과 공장 등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지배질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노력에 5월항쟁 표상작업이 동원된 것이다. 즉 표상작업은 대중들을 규율하여 1970년대 말, 특히 10·26 이후 이완된 대중지배질서를 복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질서를 안정화하고자,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재가동하고자 한 지배엘리트들의 노력에 동원된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대중매체의 5월항쟁의 표상(화)노력과 그 전략이 갖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5월항쟁 표상작업의 의미라면, 국가 내지 지배엘리트와 관련해서도 표상작업은 그 역할이 있었다. 즉, 그것은 국가와 지배엘리트를 대중의 보호자로 표상하는 것이었다.

보호자로서의 국가(엘리트) 표상작업은 5월항쟁 진압 이후 광주의 재현작업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 먼저 ‘5월항쟁 진압이 대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검토하도록 하자. 앞에서 보았듯이, 5월항쟁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재현되었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의 진압 또한 국가적 의의가 설명되었다. 현재 논의에서

72) 박기원 「우리는 한배에 탄 사람들」 『서울신문』, 1980. 5. 26.

73) 「독자편지」, 『서울신문』, 1980. 5. 30.

74) 「독자의 편지: 국민 대다수는 사회인정 바라」 『서울신문』, 1980. 5. 29; 「環太平洋경제共同體」 적극 참여, 『서울신문』, 1980. 5. 30; 「事態 호전되는 대로 復舊작업 착수」 『서울신문』, 1980. 5. 23. 앞의 인용은 최규하대통령의 발언이고, 뒤의 인용은 박종훈 총리의 특별담화 내용이다. ‘정치 운운’은 「독자의 편지」에서 제시한 요건이다.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월항쟁이 대중의 일상생활을 파괴한 것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유의하면 5월항쟁의 진압이 파괴된 일상생활의 회복으로 재현되는 것 또한 예상 가능하고 또 다음에서 보듯이 실제로 그렇게 재현된다. 즉, 각종 매체들은 5월항쟁 진압 이후의 광주를 “악몽에서 깨어나” 공장이나, 금융기관, 또 유통기관이 문을 열고 “생업의 질서를 되찾”는 모습으로 형상화한다.⁷⁵⁾ 이러한 형상화와 관련하여 ‘생업 질서 회복’이 갖는 의미를 석명(釋明)하는 다음의 사진을 읽어 보자.

이 사진은 “광주시내 각 시장에는 그동안 반입이 끊겼던 딸기 등 싱싱한 채소류가 들어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해설문으로 자신의 주제를 밝히면서, 상자마다 가득한 “싱싱한 채소류”와 “시민들의 눈길”을 보여준다. 이것은 5월항쟁 진압이 ‘생업질서를 회복케 하였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또 그것이 ‘생업(生業), 문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을 다시 가능케 했다고 시사(示唆)한다. 이것이 항쟁진압의 대중적 의미를 해설한 것이라면, 이 제는 일상회복의 강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설명할 차례이다.

신문지상에서 ‘5월항쟁 진압과 일상생활 복구’라는 주제는 국가, 특히 군을 일상생활 복구의 주체로서 형상화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5월 29일자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鄭宗澤농수산장관에게 光州市내의 식량 연탄 등 기본생필품의 비축 및 공급상황을 물어보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대해 鄭장관은 농정차관보를 현지에 보내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하는 모습을 전한다. 또 『중앙일보』 5월 30일자 〈光州 生必需品需給 매일 체크하기로 政府 지도반 파견〉은 정부가 “29일 농수산부 농정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光州市구 생활지도반을 편성, 현지에 보내 생필품[양곡, 보리, 혼합곡, 대구, 가자미, 황우렁기]의 수급상황을 매일 「체크」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신문은 “영세근로자 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광주 일원 生計보호 勤勞基準法따라” “일 못한 10일 賃金 60%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⁷⁶⁾ 또한 대중매체는 “光州소요사태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단기구호대책”의 일환으로 “光州市내 및 인근지역 이재민 11만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취로사업을 벌여 노임”을

75) 「광주……생업질서 서서히 되찾아」, 『동아일보』 1980.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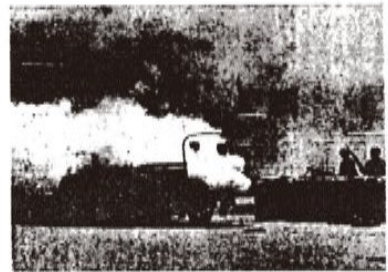
76) 「일 못한 10일 賃金 60% 지급」, 『동아일보』 1980. 5. 30.

주기로 한 보사부의 결정을 전한다.⁷⁷⁾ 보다 극적으로 5월 29일자 『서울신문』은 “光州시민들이 시당국에서 주는 구호양곡을 배급받고 있”는 다음의 사진을 자신의 1면에 게재한다. 이 사진은 기본생필품을 공급하는 국가의 모습을 사실화하는 한편 말 그대로 먹고 살 양식을 배급하는 국가를 형상화한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광주시민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세워주는 국가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라면, 당시 신문매체들은 국가를 광주시민의 ‘위생’을 보살피는 존재로 또한 재현했다. 먼저 신문매체는 “오랜 행정마비로 곳곳에 연탄재 등 쓰레기가 산적, 도청앞, 月山洞돌고개 등에서는 군용트럭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여준다.⁷⁸⁾ 동시에 그것은 국가가 “30일 광주지역특별방역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보사부] 보건국장을 반장으로 한 중앙방역기동반 1개반과 전북도에서 편성 대기중이던 5개방역기동반을 광주에 파견, 31일까지 이틀간 시가지 및 외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⁷⁹⁾ 또 실제로 다음의 사진, 즉 『동아일보』 5월 28자 「방역작업」으로 ‘방역자로서의 국가’를 실증한다.

이 사진은 무력과 시선(視線, vision)의 소유자로서의 경계병 모습과 함께 “광주시내일원에 방역작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대로 방역작업의 주체로서 국가의 모습을 동시에 전달하면서 방역자로서의 국가를 재현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군은 호구지책과 위생, 한마디로 인간의 생명 자체를 보살피는 존재로 재현된다.



하지만, 각종재현물에서 국가와 군이 단순히 ‘온전한 인간’만을 보호하는 존재로 형상화된 것은 아니었다. 즉, 5월항쟁재판물은 생사(生死)를 막론한 모든 인간적 존재의 보호자로 국가와 군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먼저 『중앙일보』 5월 28일자 「12개 의료지원반 파견」은 “28일 의약품이 부족한 광주지역에 12개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기로 하고 항생제·지혈제·수액제 등 각종 의약품”을 보낼 것을 결정한 보사부의 모습을 전한다. 또 같은 신문 29일자는

77) 「罹災民에는 生計費 保社部는 就勞사업」, 『중앙일보』, 1980. 5. 28.

78) 「惡臭穢고 재기 몸부림: 10일간의 혼란 스쳐간 오늘의 광주」, 『동아일보』, 1980. 5. 28.

79) 『동아일보』, 1980. 5. 30.

“光州사태에 따른 학생 및 교육시설의 피해대책, 중·고교수업정상화문제들을 협의”하고자 광주를 방문한 이규호문교장관이 “또 全南大 의대부속병원을 방문, 입원중인 부상학생·군경을 위문”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국가가 단순히 ‘온전한 인간’ 뿐만 아니라 “부상학생·군경을 위문”(강조, 필자)하는, 다시 말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보살피는 존재로 형상화한다. 심지어, 신문매체는 5월항쟁관련 연행자 및 수배자에게도 “관대하게 처리”하는 국가와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컨대, 대중매체는 “연행된 학생 시민 가운데 극렬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관대하게 처리, 귀가” 시키겠다는 언명과 “4일 하오 2시 光州사태와 관련, 연행된 시민·학생 7백30명 가운데 혐의내용이 경미한 2백6명을 석방”하는 전남북계엄분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⁸⁰⁾ 또한 매체들은 “수배자들이 하루빨리 자수하여 관대한 처벌과 개과천선의 기회를 갖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강조, 필자)하는 계엄사령부의 모습을 보여준다.⁸¹⁾ 나아가, 국가와 군은 산(生)자와 죽은 자 모두를 보살피는 존재로 대중에게 나타난다. 즉, 대중매체들은 “光州에 군·관·민·경으로 구성된 수습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복구를 비롯, 사망자확인·부상자치료·민심수습 등 정상질서회복을 위한 활동”(강조, 필자)에 나서 “검시(檢屍)하고, 확인된 ‘百48명 名單 발표’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나아가 “신원미상22명의 인상착의를 밝”히고 “무연고사망자는 공원묘지에 가매장”하는 국가의 모습을 신문지상을 통해 형상화한다.⁸²⁾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살피는 존재로 국가와 군은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국가와 군이 보살피는 것이 단지 산자와 죽은 자의 신체, 또는 물질적 생명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즉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존재로 국가와 군은 신문지상 위에서 재현된다. 6월 4일자 『중앙일보』는 동일(同日)의 지방장관·지검검사장·시도교육감회의를 주재한 박충훈총리서리의 “光州일원의 시설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아울러 시민들의 마음도 따사롭게 위로하여 재기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각별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발언내용을 전하면서, “마음도 따사롭게 위로”하는 존재로서의 국가를 재현한다.⁸³⁾ 이러한 재현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습을 통해서도, 즉 “앞으로의 도정은 민심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강조, 필자)고 하는 신임 김종호지사의 취임사를 인용하는 것에 의해서도 시도된다.⁸⁴⁾ 하지만 보다 극적인 시도는 다음에서 나타난다.⁸⁵⁾

80) 「극렬극소수 제외 관대 처리」 『동아일보』 1980. 5. 29; 「光州사태 연행 2백6명 석방」 『중앙일보』 1980. 6. 4.

81) 「광주사태 사망자 百48명 名單 발표 계엄사」 『중앙일보』 1980. 6. 5.

82) 「광주사태 사망자 百48명 名單 발표 계엄사」 『중앙일보』 1980. 6. 5; 「희생자 檢屍마차 유족 嗚咽 속 公園묘지 假埋葬」 『동아일보』 1980. 5. 29.

83) 「국민 불만 응어리지지 않게」 『중앙일보』 1980. 6. 4.

84) 「全南道 民心수습에 力點 두기로」 『중앙일보』 1980. 5. 29.

【광주=특별취재반】금남로에서 시민을 검색한 군인들은 「너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으며 「동행을 제지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친절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강조, 필자)

이 기사는 항쟁 진압과 “검색”의 주체인 군 역시 “마음도 따사롭게 위로”하는 주체로 제시한다. 이로써 군과 국가는 산자나 죽은 자 - “시민”이건 “개별적인 개인”이건-, 그들의 몸과 마음 모두를 보호하는 호민관으로 형상화되고, 그들의 권력은 “목자(牧者)로서의 권력”(pastoral power)으로 재현된다.⁸⁵⁾ 바로 이러한 정치성이 5월항쟁 진압 후 신문지상에 ‘파괴된 광주의 복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아가 5월항쟁과 그 진압을 배경으로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지상(紙上)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왼쪽에는 『光州사태 死亡 170명』(1면), 뒤로는 『戒嚴司 발표(光州事態)』(3면)를 거느리고 등장한다.⁸⁷⁾ 이러한 것은 “광주사태”와 “공공질서의 유지와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보위 설치를 설명한 “崔大統領, 國保委 첫회의서 諭示”의 보도를 통해 언어적으로 다시 확인된다.⁸⁸⁾ 바로 이것, 즉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을 매개로 ‘광주사태’와 ‘국보위’가 만나는 것이 5월항쟁 표상과 정치권력의 관계이자, 5월항쟁 표상의 정치성이다.



85) 「惡夢甦고 재기 물부림: 10일간의 혼란 스쳐간 오늘의 광주」 『동아일보』, 1980. 5. 28.

86) 푸코는 “근대국가의 새로운 권력기법으로서 시목권력(pastoral power)에 주목하는 데, 그것은 개별적인 개인들의 건강과 복리, 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에 주의”하는 권력이다. 조형근 1998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75쪽. 본문의 ‘목자로서의 권력’은 앞의 ‘시목권력’과 pastoral power의 역어로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87) 『동아일보』, 1980. 5. 31. 이러한 1면 구성과 기사배치는 『동아일보』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신문들도, 예컨대, 같은 날짜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동일하게 기사를 배치하고 지면을 구성했다. 즉 『중앙일보』는 좌측기사와 우측기사의 배치가 『동아일보』와는 반대이긴 하지만, 두 기사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3면에 『光州事態戒嚴司發表 全文』을 배치하였다.

88) 「軍官民일제로 難局 극복: 政治發展은 社會安定 위에서」 『서울신문』, 1980. 5. 31.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대중매체의 5월항쟁 표상작업과 그것의 전략 및 표상 전용의 정치성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대중매체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폭력과 파괴의 소요·폭동'으로 표상하였다. 이러한 5월항쟁상의 대중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매체는 자기가 생산한 5월항쟁상의 사실성을 입증해야 했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는 대통령의 발언 등 헌법기관의 발언을 전제, 그 기관의 권위를 차용한다. 하지만 국가가 당시 정치적 경쟁의 일 당사자인 당시 상황에서 국가 기관의 공공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사실성 증빙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매체로 하여금 수량적 재현과 구상적 재현 등 다양한 재현 전략을 개발·동원하도록 하였다. 먼저, 수량적 재현은 수(數)가 가진 탈(脫)·비(非)정치적 외양을 활용하여 5월항쟁상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추상성이라는 수량적 재현전략의 제한점 앞에서 대중매체는 언어묘사를 통한 구상화작업에 착수한다. 구상적 언어의 동원이 대중의 상상을 촉진할 수 있지만, 문자언어를 통한 구상화작업은 사실성여부에 대한 증거능력부족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러한 문제가 목격류의 기사를 지면에 등장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도 언어에 의존하는 한 증거능력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도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가 동원된다. 보도사진은 표제와 설명에 의해 도움받으면서 5월항쟁상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한편 그것의 구상성을 강화한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는 다양한 전략의 동원을 통해 폭력과 파괴상을 부조하면서 5월항쟁상을 구축한다.

폭력과 파괴상의 부조는 여러 정치적 유용성을 지배엘리트에게 제공한다. 우선 그것은 반(反)·비(非)인간적, 반근대적, 반민족적 사건·존재로 5월항쟁과 그 참여자를 규탄하고 그것의 역사성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것은 5월항쟁의 진압과 진압주체들을 인간과 근대,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나아가 그것들의 옹호(자)로 재현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폭력과 파괴상의 부조가 갖는 앞의 정치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정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이 인간과 민족, 근대라는 추상적인 호명에 의존하는 한, 그것은 대중의 감정이입을 도모하고 대중의 동의를 추출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중의 감정이입과 동의추출을 위해서 대중매체들은 표상된 5월항쟁의 대중적 의미를 설명한다. 먼저 대중매체들은 5월항쟁을 '일상적인 대중 삶의 파괴'로 형상화한다. 대중 삶의 파괴는 보도기사와 현지르뵐, 또 신문지상의 "수상(隨想)과 독자투고, 만화, 나아가 신문지

면(紙面)의 구성 등을 통해 광주현지인의 삶의 파괴로, 다시 비광주인 또는 한국인 일반의 것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것은 곧바로 나라 전체의 것으로 확대되면서, 5월항쟁이 국가안보·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서 재현된다. 국가안보·경제위기는 대중적 차원에서의 5월항쟁(참여자) 무효화, 내지는 그것의 정당성박탈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5월항쟁 표상작업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중을 규율하여 지배 질서 안정화에 전용·동원된다. 이를 위해 그것은 5월항쟁의 대중적 영향을 차단하고, 나아가 항쟁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데로 전용된다. 동시에 그것은 자기의식적인 존재 또는 주체의 생산에, 나아가 스스로를 규제하면서 국가적 목표에 헌신하는 생산적 주체 생산에 전용되면서 대중규율화에 복무한다. 이것은 1970년대말, 특히 '79년 10·26'과 '80년 봄' 위기에 빠진 지배질서 안정화에 동원된다. 이러한 대중규율화와 지배 질서 안정화 노력이 5월항쟁 표상작업의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준다.

이것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본 5월항쟁 표상작업의 의미라 한다면, 표상작업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와 지배엘리트를 대중의 보호자로 표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월항쟁재현물들은 국가, 특히 군을 일상생활 복구의 주체로서 형상화하는 데 동원된다. 이 속에서 국가와 군은 산자와 죽은 자, 심지어 항쟁참여자까지를 포함해 모든 이를 살피는 사목과 같은 존재로서 재현된다. 나아가 그것은 진압의 주체인 국가와 군을 사회·민족 이익 수호의 주체로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신군부를 정당화하고, 그것의 집권에 이바지하도록 전용된다. 바로 이러한 것이 5월항쟁 표상의 정치성이자, 표상과 권력의 관계라 할 수 있다.

〈English abstract〉

Representation and the Power: the Appropriation of the May Kwangju Uprising

Chong-myong Im

The Kwangju Uprising in May 1980 has greatly affected the evolutions of South Korean history. This was true to the party of the contemporary Republic of Korea and its ruling elite. The ruling elite appropriated the Uprising to legitimize their rule in and to stabilize the state tottering around 1980 while disciplining South Korean populace. With this dynamics in mind, this study, focusing the appropriation, examines the images of the Uprising the mass media such as

newspaper currently manufactured, and the politics of imagin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as one text, news reports, cartoons, pictures and other essays contained in contemporary newspapers.

The Uprising was represented as the riot of violences and of destructions by contemporary newspapers. This representation, however, had to authenticate itself to the eyes of its audience. This led to the variegated but articulated representation strategies of: the exploitation of “institutional voice” to take the benefit of constitutional authorities; quantitative representation of using the apparent value-free, apolitical numbers and statistics to factualize the constructed Uprising; and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resorting to the literary or imaginative, and visual languages such as photograph to evidence the factuality of the produced images of violent and destructive Uprising and at the same time to reify the official agendas into popular imaginations and embed the images into the audiences’ hearts while promoting their empathies to the ruling elite’s agendas.

The fabricated Uprising images offered not a few political advantages to the R.O.K. elite. The images substantiated the official agendas of denouncing the Uprising and its participants for what and who inflicted a violence upon human entities and the Korean nation as well as individuals, and a destruction upon their modern facilities and national properties as well as living materials. This meant to de-legitimize the Uprising and its cause and ultimately nullify its historicity itself while justify its official suppression and in the ultimate legitimize ROK’ elite’ s ruling, under the name of modernism, nationalism, and humanism. Despite these political potentials, the representation works carried with themselves some limitations in gaining popular empathy with and consent to the official agendas insofar as the works depended upon the abstract appellations of the national, human, and modern.

To extract popular empathy and consent, the mass media explained the meanings of the fashioned Uprising to the popular masses. News papers reified the Uprising into what destroyed ordinary lives of the masses. This reification work had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variety of means of news accounts, field reportages, cartoons, photos, readers’ contributions, notables’ essays and others.

The work began with the damage upon the day-to-day lives of the people in Kwangju, extending to upon those of the people who lived outside the city and accordingly those of general masses and of national ones. Soon after, a series of these works was transformed into the definition of the Uprising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a economic crisis of the nation. This definition was geared to gain the empathy with and the consent to afore-mentioned official agendas, of popular masses who had been constructed as kukmin ideologically charged with economic developmentalism and the state-ideology of national security and disciplined into such a kukmin.

The politics of the representation work was not confined within the de-legitimization of the Uprising and its participants. The constructed Uprising was exploited as materials to discipline popular masses and to stabilize the order of power. For these purposes, the constructed Uprising was appropriated to prevent it from wielding its influence upon the masses across the country and furthermore to produce popular antagonism against the Uprising. At the same time, it was appropriated to nurture self-conscious productive subjects who, controlling themselves, would sacrifice themselves to national agendas. This disciplinary work helped to stabilize the order of power which met the crisis in the late 1970s and especially after October 26th of President Park's Assassination and the Democratic Surge of Spring 1980. This constituted the another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 politics.

Final the representation politics was to represent the ROK state, especially ROK Army as the subject to recover the daily lives to ordinary masses. In this representation, the state and the army appeared as what Foucault says 'a postal power' to care all the human existences, living or dead, including the Uprising participants, and to defend societal and national interest and good. This was to appropriate the Uprising to the legitimization of new military power group and the justification of its grasp of state power. This appropriation constituted the politics of the Uprising representation, showing the relation of the representation and the power.

박영자, 「민족과 민주의 민중적 역동성 복원을 통한 ‘자치사회」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1. 이 글은 하나의 논문으로 보기에는 글이 지나치게 길고 산만하다. 그 결과 주제의식이 그다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이 글은 한국 최근 정치사를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일리가 없다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기준이 피상적이고 자의적이다.
3. 이 글은 5.18의 의미에 대한 아무런 새로운 성찰도 담고 있지 않다. 5월의 정신사적 지평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제목에 걸맞은 5월 정신의 해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도리어 오히려 베크나 하버마스의 이론과 개념들에 기대어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의가 5.18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요, 현재 한국 사회의 분석을 위해서도 얼마나 절실한 논의인지 의문이다.
5. 한국 현대사의 내적 운동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 현대사는 한편에서는 매판 권력의 역사요 다른 한 편에서는 민중의 항쟁과 자기형성의 역사였던바,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사건이 바로 5.18이었다. 그러나 이 글의 필자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그 고유의 내적 운동원리에 따라 분석하지 못하고 몇 가지 현상을 들어 비판할 뿐이다.

임종명 「표상(表象) 권력: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이 논문은 광주항쟁 기간 및 그 직후 정부와 언론이 광주항쟁의 실상을 어떻게 조작하여 발표하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으며, 그 결과 전두환과 신군부의 집권전략에 어떻게 활용되었고, 또 광주시민들은 이런 이미지 조작에 의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완결된 논문형태가 아니라서 이번 논문은 위의 시도 중 어느 선에서 마무리 지어질지 모르겠다. 이 논문은 임종명 교수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논문들, 즉 국가 및 권력의 형성, 공고화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들이 어떻게 이미지화되고 활용되는 가를 밝힌 논문들과 유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주항쟁에 대한 연구논문들과는 성격이 다른 글로써 광주항쟁과 1980년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광주항쟁을 파괴, 폭동의 용어로 묘사한 것은 1차적으로는 정부와 계엄당국이었지만 이것을 확인시키고 확산시킨 것은 언론이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물리적으로 테러했다면 언론은 정신적으로 테러한 것이다. 언론의 정신적 테러 정도를 진단하려면 정부와 계엄당국의 거짓 발표와 홍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일부 언론은 정부와 계엄당국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부정적 보도를 하여 과잉 충성 내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이런 내용들까지를 심층 분석해야 언론의 이미지 구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만 당시 언론들의 차별성을 식별할 수 있다.

2. 이미지 조작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광주항쟁을 북한과 연결시키려 한 대목이다. 직접적으로는 광주항쟁이 고정간첩과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홍보하고 간접적으로는 광주항쟁이 북한 침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신군부의 색깔공세와 그것이 노린 점을 좀더 상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3. 광주항쟁을 진압한 후 전두환과 신군부는 광주항쟁을 자기들의 집권전략에 활용하였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작과 호남의 고립화,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압력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항쟁 진압 후 노렸던 음모와 항쟁 기간에 시도했던 이미지 조작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이미지 조작의 실상을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4. 신군부와 언론의 이미지 조작이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미지 조작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독자투고란 등에 투고된 독자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넓게 보아 이미지 조작을 노리는 신문 기사의 범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당시 국민들이 신군부와 언론의 이미지 조작에 의해 형성된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
0
0
6

II. 자유고제

1. 5·18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

김정숙 | 청주대학교

2. 5·18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분석

김창욱 | 부산음악학연구소

3.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광철 | 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5·18 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

김정숙(청주대학교)

1. 5·18 민중항쟁과 기억의 서사화

이 글의 주제인 '기억'은 광주에서 온 것이다. 고통의 몇 겹을 벗겨내고서야 만날 수 있는 1980년의 5월 광주는 그 자체로 망각되지도, 망각할 수도 없는, 기억되어야 할 시공이다. '5·18'은 한국근현대사는 물론 근현대문학사에서도 사유 방식의 전환을 가져온 분수령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권력을 폭력화한 국가독재에 대한 항거의 표출인 동시에 독재의 청산과 민주화를 위한 준비의 표징이었으며, 변화의 한 복판에 있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또한 5·18이라는 사건은 독재와 민주의 쟁투장으로 역사의 주체가 새롭게 형성되는 주체 생성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 곧 광주가 지니고 있는 중층적 의미이다.

이 사건은 그간의 정치적 폭력과 군부 독재의 모순과 억압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직간접적인 '죄의식'을 갖게 되었고, 끔찍한 참상을 애써 외면하려는 어떤 '망각'에의 욕망이 있다. 적어도 광주의 참상을 아는 사람 중에 각인된 죄의식과 망각의 욕망 사이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을 것이다.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기록화 작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펴낸 사료, 인물, 문학 등에 걸쳐 총망라된 집적물인 『5·18의 기억과 역사 1, 2』와 『5·18 민중항쟁과 법학』,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5·18의 참상이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인 1985년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죽음을 넘어』부터이다. 86년도 이후와 90년대 초반까지 중단편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편소설로 형상화된 것은 95년을 넘어서면서부터이다. 시대의 아픔에 대한 재현은 먼저 증언(다큐) 형식으로 나왔고, 소설로 형상화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소설이 후

에 나온 이유는 장르의 속성상 사건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조망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늦게 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5·18이라는 사건 자체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설 언어는 사회를 담는 도구이며 이데올로기적 실체다. 소설은 객관적인 증언을 넘어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5·18이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추출할 수 있다.¹⁾ 의미의 '복합성'은 역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닌 그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는 개별자들에 의해서 추동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와 기억은 구별되어야 한다.

기억과 역사. 이 둘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어떤 점에서는 대립어이다……기억은 항상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이며, 영원한 현재에서 체험한 구속력이나 그에 반해 역사는 과거의 재현에 불과하다……기억은 회상을 성스럽게 하나 역사는 그것을 추방한다. 말하자면 역사가 하는 일이란 탈마법화이다. 기억은 집단에서 성장하여 맥락을 창출한다……그에 비해 역사는 모두에게 속하지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역사는 보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²⁾

보편자로서 행하는 역사의 폭력과 탈마법화에 대항하는 것은 과거의 재현을 넘어 현재를 활성화하고 맥락을 창출하는 (대항)기억이다.³⁾ 소설에서 5·18의 광주를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는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초점이 가해자에게 맞추어졌는가, 피해자에게 맞추어졌는가에 따라 그 재현 방식은 달라지며, 그에

1) 5·18 민중항쟁을 담은 중단편소설에는 80년대 소설의 경우 김남일의 『망명의 끝』, 김중태의 『모당』, 김신우의 『날선 歸鄉』, 김영옥의 『남으로 가는 헬리콥터』,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백성우의 『불나방』, 정도상의 『심오방 이야기』와 『저기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윤정모의 『등나무』와 『밤길』, 이영수의 『저저수』, 임철우의 『봄날』, 『직선과 독가스』, 『동행』, 『사산하는 여름』, 『불일기』, 한승원의 『당신들의 분노가네』, 홍인표의 『부활의 도시』, 홍희담의 『깃발』,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등이 있다. 90년대 소설로는 공선옥의 『씨앗 불』, 『목숨』, 『목마른 계절』, 정찬의 『완전한 영혼』, 『새』, 『아늑한 길』, 『슬픔의 노래』, 주인석의 『광주가는 길』, 이순원의 『얼굴』, 한승원의 『어둠꽃』 등이 있다.

2) Pierre Nora, *Zwischen Geschichte und Gedachtnis*, Berlin, 1990, 12. 일리이다 아스만 저, 『기억의 공간』, 경복대학교 출판부, 2004, 167면에서 재인용. 본장에서 살펴볼 문화적 기억 혹은 재구성된 기억 외에 역사, 철학, 인류학, 심리학, 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정의되는 기억을 부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철학의 경우 소크라테스 이후의 기억은 이념들이 간직되는 공간이자 단순한 현상의 오류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유태인의 경우 기억은 사자(死者)가 살아 있으며 타자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공간, 즉 불멸(不滅)이 체험되는 공간을 말한다. 심리학자에게서 기억은 체험이 소화되거나 소화되지 않는 공간, 즉 체험된 것의 집에서 해방되고자 할 경우 침입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인공 두뇌학에서 기억은 정보가 사용될 수 있게끔 축적되는 공간이며, 따라서 인공 기억으로 인간의 기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기억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Vliem Flusser, 『메체문화』,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362면에서 재인용)

3) 푸코는 니체를 자신의 주장의 전거로 삼아 우리에게 기억된 역사란 대부분 지배 권력의 담론이 구성된 승리자의 역사임을 주장한 바 있다. 동시에 푸코는 이러한 역사의 공식적이고 지배적인 기억이 망각시킨 잃어버린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항 기억(counter-memory)'이란 개념을 만들어냈다. 푸코에 따르면, '대항 기억'은 기행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회적 연속성의 기억에 맞서 오히려 우연적 요인들로 간주된 미세한 일탈들이 만들어내는 불연속적·단층적 출발점들에 대한 기억이다.(미셸 푸코, 『니체, 계보학, 역사, 지식의 전복에 대하여』, 최문규 외, 위의 책, 각주 75면, 198면.)

따라 기억이 드러내는 진실의 '실체'도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재현해내는 개별적인 서사물이다. 작가가 5·18을 어떻게 호명해 내느냐는 문제는 작가의 의식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시대적 의미를 구명하는 일과 관련된다. 따라서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소설들을 검토하는 일은 그 사건이 지닌 지속적 혹은 단절적 의미를 추적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5·18과 같은 고통과 살육과 죄의식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끔직한 장면을 기억해내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치유도 가능해질 것이다.

당시의 고통을 불러내 치유할 수 있는 도구는 단연 언어를 통한 기록(서사화)일 것이다. 언어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안정 기제이다. 서사텍스트야말로 사진으로 남은 기억의 이미지를 살아 있는 기억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⁴⁾ 다시 말하면 이런 점에서 기억은 하나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회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서사는 다른 매체보다도 사건을 현재화하는 유효한 매체이다. 예술적 회상은 저장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과 망각을 부각시키면서 저장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런 이유로 예술가들에겐 기술적인 저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술적 토대가 되는 '상흔'이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흔적'으로서 과거의 것은 결코 완전한 물질적 존재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간직하기·지우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특정 텍스트의 흔적은 또 다른 텍스트의 매개를 필요로 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의 관계가 형성된다.⁵⁾

그런데 기억하는 행위는 기술하는 자의 선택과 배제의 속성을 띠는 바, 진정한 원상의 치유와 새로운 역사에의 생성을 담지하는 기억의 드러냄이야말로 가장 '윤리적'인 행위일 것이다. 이런 기억의 예술화(서사화) 과정은 곧 집단적의식에 있어서 망각과 추방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 하는 상태에 대한 거울이요, 그에 대한 척도⁶⁾이다. 따라서 소설에 형상화된 '5·18 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중단편소설에 호명된 5·18 민중항쟁의 실체와 '기억'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에 '5·18'이라 불리는 사건, 곧 광주 기억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기억의 재현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윤리적 태도는 무엇인가. 고통의 재현과 치유의 윤리학에 대한 올바른 정립은 5·18이라는 사건이 한국

4) 알라이다 아스민, 앞의 책, 285면. 아스민의 『기억의 공간』은 문학작품과 각종 텍스트, 신화와 종교적 제의, 기념물 및 기념 장소, 문서보관서 등을 통해 기억의 개념, 기억의 매체, 기억 연구의 의의 등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기억의 문화적 재현을 모색하고 있는 의미있는 저작이다. 우리의 경우 현대뿐만 아니라 '상흔'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사건(식민지, 6·25 전쟁, 4·3사건 등)을 연구하는데 참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저작은 기억 연구를 시작하는 본 연구자에게 많은 흥미와 큰 도움을 주었다.

5) 최문규 외, 앞의 책, 37면.

6) 알라이다 아스민, 위의 책, 60면.

의 역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과 인간 주체의 문제가 대두될 경우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통에의 증언과 기억의 활성화

그간 5·18소설에 대한 분석은 주로 당시의 현장에 대한 형상화와 역사, 민중, 국가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거시적 관점의 분석은 사건을 고발하고 계급적 정치적 모순을 폭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틀은 가해자와 피해자, 억압과 핍박, 국가폭력과 민중의 이항대립적인 구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 담론의 억압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80년대를 부각시키는 계급문학적 당파성의 관점에서 광주소설을 민중적 주제로 읽어내는 독법 또한 광주가 함의하는 진실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특정 시각을 통한 과거의 현재화, 곧 재구성 작업은 재구성 대상의 진실을 얼마나 충분히 포착하고 있는가 하는⁷⁾ 근본적인 물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실'은 지배적 담론으로 언표화할 수 없는 틈새의 발견과 그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전 면모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틈새에의 개입은 타자의 위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다. 왜냐하면 집단화된 기표에는 무수한 타자의 목소리가 억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폭도의 반란에서 민중항쟁으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서도 여전히 억압된 타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당시의 고통의 기억을 증언하는 서사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기억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여러 작품 중에서 기억의 문제를 서사화한 작품에는 『꽃잎처럼』(풀빛, 1995)에 수록된 정찬의 「완전한 영혼」, 이순원의 「얼굴」,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임철우의 「봄날」, 그리고 「부활의 도시」(인동, 1990)에 수록된 한승원의 「어둠꽃」, 임철우의 「어떤 냇두리」, 박호재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2」, 김신운의 「낮선 歸鄉」, 이삼교의 「그대 고운 時間」, 백성우의 「불나방」이 대표적이다. 기억 서사를 다룬 작품 중에는 형상화의 실재성이나 정치적 독법으로 읽어내는 연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면도 많다. 그 이유는 미학성의 결여를 포함하여 어떤 광포한 현상이 아닌 개별 기억주체의 눈으로 후일담 형식으로 서사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7) 이성욱,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은 '광주'의 꿈」,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330면.

의미에서 고통의 심연을 증언하고 윤리적 책임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기억 주체들은 문학의 지배적 담론에서 또 다시 '억압'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기억을 통해 현현되는 5·18 민중항쟁의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을 들여다보자.

이들 작품의 지배적인 정서는 비극적이다. 작중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병증을 지니고 있다. 외형적인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잠재된 형태로 삶 자체를 뒤흔드는 공포에 갇혀 살기도 한다. 이들 작품에서 빈번하게 재현되는 고통의 순간은 서사를 지탱하는 중심축을 이룬다. 서사 공간의 인물들이 겪는 고통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감염되어 정상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아들의 시체의 눈에 구더기가 생겨 꿈들거리면서 안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그날 밤부터 달중 씨는 숨 넘어가는 천식의 발작으로 괴로와하기 시작했다.

영문모를 그 천식의 발작은 달중 씨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병수의 일가를 괴롭혔다. 손바닥만한 연탄가게를 달아놓고, 그날부터 병원 순례가 시작되었다. 대학병원으로 기독교병원으로 개인병원으로 여기저기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찾아다녔다. 소문을 듣고 족집게같이 영험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박수를 불러 굿을 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달중 씨의 저주받은 기침은 멎지 않았다. (『낯선 歸鄉』, 175면)

어둠 속에 우울한 유령들과도 같은 저주받은 기침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족(집단)에게도 전이된 고통을 지속시킨다. 주체에게 있어 기억하는 행위란 곧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이때 고통은 “기억술의 가장 강력한 보조 수단”이 된다. 기억을 주서사회화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된 고통은 광주의 참상을 불러내는 가장 아프고도 강한 충격을 준다.

정찬의 [완전한 영혼]은 87년 겨울 12월의 대통령 선거 결과의 참담한 패배로 인해 잔인한 시간을 보낸 내가 장인하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인식하게 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허망의 늪에서 간신이 나와 생계를 위한 일상인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나는, 일상의 모습을 혐오하는 나의 무의식과 충돌하면서 고문을 받던 그 굴욕의 시간을 반복해서 회상한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왜 그 동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가. 대통령 선거의 참혹한 결과가 몰고 왔던 절망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기억이 어이하하여 이 봄날의 강물 위로 홀연 떠오르는가. 나는 얼굴을 무릎에 묻고, 두손을 그려쥐었다. 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보이

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이 세계에 진실이란 애초부터 없었다는 허망함인가. 결국 그것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던가.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때, 그 열망에 의해 가려졌으나 열망이 사라지자 다시 돌아오르는 상처. (『완전한 영혼』, 55면)

열패감으로 돌아나는 기억은 유효기간이 없는 상처와도 같다. 상처 혹은 진실의 부재를 다시 떠오르게 한 것은 '봄날'이다. '봄날'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광주를 되살리는 반-시간이며, 찬란한 오월 광주의 비극을 환기하는 기억의 메타포이다.

봄날의 정점에 출판사에서 만난 장인하가 있다. 그는 인쇄공으로 오월 현장에서 무고하게 공수부대에게 폭행을 당해 청력을 잃은 인물이다. 내가 만난 그를 통해 '우리'는 5월이 오면 괴로운 소리들이 극성을 부리는 80년 5월의 광주를 다시 만나게 된다.

장인하는 나직한 목소리로,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80년 5월의 기억을 나에게 드러내었다. 그것은 이상스러운 비극이었다. 짐승의 논리로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나타나는 피와 눈물과 죽음과 저항의 땅에서 한 인간이 그려낸 이상스러운 비극. (『완전한 영혼』, 70면)

5월만 되면 드러나는 광주의 비극적 고통은 짐승의 논리로밖에 말할 수 없는 폭력 그 자체이다. 그 이상스러운 비극은 광주의 참상이 폭력적 현장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인하라는 인물은 "이 도회지 안에 그렇게 헛가닥해버린 여자들 무지하게 많아. 남자들도 도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시내 정신병원이 대만원이란다. 그 일이 일어난 뒤로, 이 도회지 사람들 걸은 멀쩡한 것같지않? 그렇지만 속은 다 흐물흐물 흔들려 있어. 연장으로 무얼 만들다가 다친 손가락끝에 생긴 피멍 같은 것이 수천 개씩 들어 있는" (『어둠꽃』, 33면) 이름도 없이 숨겨진 역사적 피해자들의 표상이다.

이순원의 「얼굴」은 광주에 참여한 공수특전단 부대원으로 87년 이후 광주가 고향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테이프 속의 자기 얼굴을 찾는 '그'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여자의 오빠가 광주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가족사적 비극을 들은 후에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고통의 기억을 떠올린다. 가해자의 시선으로 광주의 참상이 그려진 점에서, 결국 살육의 가해자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는 공감을 얻어낸 의미 있는 작품이다. 광주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광주 학살 진상 사진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찾으며 불면의 날을 보낸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저는 그 당시 저희를 때렸던 공수부대의 얼굴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억…… 혹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얼굴이 아닐까. (『얼굴』, 120면)

'나'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무수한 '나'의 망각 욕망에 다름 아니다. 장인하와 그가 감당하고 있는 악몽 같은 그 기억들은 현대사의 집단적 무의식의 '흔적'이다.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후 정신을 잃고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찾아 떠도는 저주의 화신인 소녀의 고통을 그린 최운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성경의 인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자신에 빗대어, 친구 명부를 죽게 했다는 죄의식에 시달리는 상주의 고통을 그린 임철우의 「봄날」은 특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짙은 죄의식을 동반하고 있다.

오월, 그 마지막 날 새벽, 명부는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정말 상주의 집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명부가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뻗히 들으면서도 자신은 꿈쩍않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노라는 상주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봄날』, 351면)

과거 '사실'에의 물음은 강박적인 심리적인 기억 행위와 맞닿아 있다. 이때 사실의 여부는 상주에게 더 이상 중요한 사안이 아니게 된다. 쫓기는 친구를 외면했다는 죄의식은 '거짓'임이 판명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지속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는 적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규정(정체성)의 문제⁹⁾이기 때문이다. 상주의 죄의식이 성경에서 근친살육을 자행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과 등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 주체의 기억으로 환기되는 자기규정과 비유의 서사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잉여의 의미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서사 주체의 기억이란 기록물보관소로 대표되는 텍스트화된 저장 기억이 아닌 그 이면의 잉여적 틈새를 표상하는 활성 기억¹⁰⁾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사의 의미가 유효한 것은 저장기억¹⁰⁾으로 포섭될 수 없는 개인들의 활성기억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점이다.

각주 10번에 기술된 저장기억(특히 굵은 글씨 부분은 기억 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기억 서사에서는 기록의 부분들이 다른 소설들보다 적게 삽입되는 것도 한 특징이다. 또한 소설에 나타나는 시체안치소의 사망자 수와 기록상의 사망자 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

8)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334면.

9) 알라이다 아스만은 그의 저작 『기억의 공간』에서 기억을 크게 활성화 기억(기능기억)과 비활성적 기억(저장기억)으로 나누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기억은 주제들의 활성화 기억의 서사화이다.

활성적 기억	비활성적 기억
- 기억은 집단, 제도, 개인일 수 있는 보유자와 결부되어 있다.	- 특수한 보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다.	- 현재와 미래로부터 과거를 철저하게 분리한다.
- 이것은 기억하고 지우는 것만 있어버리면서 시간을 선별적으로 처리한다.	-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 가치를 증명 존재하는데, 그 가치에서 정체성의 특성과 행동규범이 생기게 된다.	- 진리를 찾아내고 동시에 가치와 규범을 멀리한다.

10) 5·18 민중항쟁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5·18 관련 자료 참조)

5월 17일 (토요일, 맑음)

- 21시 40분 : 비상국무회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의결
- 23시 00분 : 민주인사, 북학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검속
- 24시 00분 :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시에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및 학생 연행

5월 18일(일요일, 맑음)

- 9시 40분 :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 10시 00분 : 학생들이 "계엄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
- 10시 15분 :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 10시 20분 : "금남로로 가지"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하기 시작
- 15시 40분 : 유동 3거리에 공수부대가 등장하면서 진압작전 감행
- 19시 02분 : 계엄사령부, 광주지방 통행금지시간이 저녁 9시로 앞당겨졌다고 발표

5월 19일(월요일, 오후부터 비)

- 3시 00분 : **중파원 11여단 병력, 광주역 도착**
- 9시 30분 :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 10시 00분 : **시민들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 14시 40분 : 조선대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어 무리한 진압작전 전개
- 15시 00분 :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 회의를 갖고 시위 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
- 16시 30분 :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생 김영찬이 계엄군의 총에 의해 부상
- 20시 00분 : 수만 명의 시민들 "전두환 타도" 외침

5월 20일(화요일, 오전에 약간의 비)

- 8시 00분 : 고등학교 휴교조치
- 10시 20분 : 카톨릭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힌 채 심하게 구타당함. 공수부대와 시민간의 공방전 계속
- 18시 40분 : 금남로에서 200여 대의 택시가 진주들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차량시위를 벌이자 시위대 분위기 고조
- 20시 10분 : **시민들이 도청을 향해 금남로, 충장로, 노동청 방면에서 공수부대, 경찰과 대치**
- 21시 05분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 21시 50분 : 광주MBC건물 방화
- 23시 00분 :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 2명 사망

5월 21일(수요일, 맑음)

- 0시 35분 :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 2시 18분 : 시위전화 두절
- 4시 00분 :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시체 2구를 리어카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 4시 30분 : 광주KBS건물 방화
- 8시 00분 :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20사단 병력과 충돌
- 10시 15분 : 실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 맨 앞으로 교체
- 10시 19분 : 광주세무서건물 전소
- 11시 10분 : 대형헬기, 도청광장에 도착
- 12시 59분 :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물고 온 장갑차 1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 13시 00분 :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 사격 시작
- 13시 20분 :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진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 14시 15분 : 도지사, 경찰헬기에서 시위해산 총용하는 설득 방송
- 14시 35분 :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트럭, 장갑차 수십 대 획득
- 14시 40분 :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 15시 48분 : **공수부대원들이 주요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
- 16시 00분 : **화순, 나주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 16시 43분 :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기관총(LMG) 2대 설치
- 17시 30분 : 공수부대, 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다큐)'와 '허구(소설)' 부분의 간극이며, 이 양자가 '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은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삽입되면서 활성화된 기능기억에 대한 교정책으로서뿐 아니라 기능기억을 입증하고 지지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와 관련된 개인 주체들의 기억은 고정된 기록들을 선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

5월 22일(목요일, 맑음)

- 9시 00분 :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 10시 30분 : 군용헬기 공중전화하며 "꼭도들에게 말한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 11시 25분 : 직십지방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 12시 00분 :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개양
- 13시 30분 : 시민수습위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문소 방문, 7개항의 수습안 전달
- 15시 08분 :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 15시 58분 : 시제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 17시 18분 :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결과 보고
- 17시 40분 : 도청광장에 시제 23구 도착
- 21시 30분 : 박충훈 신임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금요일, 맑고 한때 흐림)

- 8시 00분 :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 10시 00분 : 시민 5만여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
- 10시 15분 : 학생수습위 자체 특공대 조직하여 총기 회수작업 시작
- 11시 45분 : 도청과 광장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척의 벽보 게시
- 13시 00분 : 지원동 주남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 15시 00분 : 제1차 범시민 월기대회 개최, 개업사의 '경고문'전단이 시내전역에 살포
- 19시 40분 :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토요일, 오후에 비)

- 13시 20분 : 공수부대, 원재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 14시 20분 : 송암동에서 공수부대와 전교사부대간의 오인 총격전 발생
- 14시 50분 :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월기대회 개최

5월 25일(일요일, 비)

- 11시 00분 :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와 광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 15시 00분 :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월기대회 개최
- 17시 00분 :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웅 신부의 4개항 수습 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 21시 10분 : 학생수습대책위원회, 범죄발생 예방과 식량공급 청소문제 등 논의

5월 26일(월요일, 아침 한때 비)

- 5시 20분 :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 8시 00분 : 시민수습대책위원회,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를 위해 죽음의 행진 감행
- 10시 00분 :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월기대회 개최
- 14시 00분 :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 15시 00분 :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월기대회 개최
- 17시 00분 :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상황 브리핑
- 19시 10분 :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조치 시킴
- 24시00분 :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

5월 27일(화요일, 맑음)

- 3시 00분 : 행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 4시 00분 : 도청 주변 원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 4시 10분 :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들에게 사격
- 5시 10분 :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전역 장악하고 진압작전 종료
- 6시 00분 :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선무 방송
- 7시 00분 :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 8시 50분 : 시내전화 통화 재개

건들과의 연결고리를 생성한다. 사료적으로 저장된 기억에 진실의 울림을 부여하는 것은 개별자들이 겪은 현재진행중인 고통의 기억이다. 한 마디로 광주소설에 나오는 개인적 집단적 기억의 고통과 신체와 정신에 가해진 고통이야말로 진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고통의 심연은 무엇보다도 전이를 통해 가장 잘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3. 기억의 매체 : 문자·감각·몸

기억의 서사를 담당하는 인물들은 손상된 자아들이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끝없는 죄의식에 갇혀 피폐된 자아이다. 윤택되고 손상된 자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며 그의 언어가 능동적 힘을 가진 함축성을 모조리 잃어버린¹¹⁾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겐 능동적 힘을 대체하는 기억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다. 개별 기억들이 통합되고 갈등하면서 집단기억을 형성, 전수,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매체'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광주 서사의 매체는 주로 기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문자언어와 특정 계기가 조건화 되면 일으키는 각인된 감각과 몸이다.

먼저 기억의 문자적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박원식의 [방패 뒤에서]이다. 작품의 서두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오치일의 노트에 대한 연구원의 소견

처음에 오치일의 노트는 해독이 어려울 만큼 난잡한 상태였다. 깨알같은 글씨로 피발개발 휘갈겨져, 세찬 바람결에 쓰러진 잡초 무성한 콩밭 따위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원은 이내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기록자의 생생한 육성이 울려 왔던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무엇보다 생생했다. 누운 자획들을 일으켜 세우는 등 형식상의 몇 가지 정비를 완료했을 때 그 누추한 외모가 벗겨지고 마침내 거센 숨결에 휩싸여 생동하는 동체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거기에 또 하나의 '5월'이 있었다.

오치일의 노트는 소포쿠라미로써 우리 '역사자료연구소'에 배달되었다. 소포의 발

11) 알라이다 이스만, 앞의 책, 335면.

송자는 양현군이라는 가명의 남자였다. 양씨는 노트를 발송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편지를 동봉하였다. 양씨의 덕분에 우리는 뜻밖의 귀중한 자료 하나를 추가한 셈이다. 그것은 기초 자료의 하나로서 연구되고 규명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여타의 사료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훌륭한 기억창고에 입력되는 한편 미구에 인쇄소로 넘겨질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수백여 건의 5월 관계 목격·체험담을 채록하였다. 천장까지 빼곡 차오른 채록들의 분량과 무수한 육성 테이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부와 함께 비애를 느낀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동한의 증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처에서 당한 자들의 고통과, 치유의 길을 모르는 채 여전히 계속되는 비극의 얼굴들을 확인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해자측의 시각이었다. 기껏 단편적인 관변의 증언에 접할 수 있었으나 왜곡과 자기방어의 변에 급급했다. 사태의 중심에 직접 투입되었던 사람일수록 당연한 듯 입을 옥다물었다.

오치일의 노트는 그런 점에 있어서 단연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당시 경찰기동대의 내부반장으로서 분명한 가해자측의 일원이었다. (‘방패 뒤에서’, 231-2면)

길게 인용한 이유는 총기 난사로 사형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오치일 사건이 “컴퓨터의 훌륭한 기억 창고에 입력되고” “인쇄되는” 과정과 그 후에 이어지는 사건의 스토리화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역사자료연구소’로 대변되는 작업과 통한의 증언으로 가득찬 오치일 개인의 비극적 사건은 사건을 기억하는 두 가지 경로를 보여준다. 단편적인 관변의 증언을 극복하는 기능기억은 ‘누운 자취들을 세우고 해독하는 형식상의 정비’를 통해 ‘기록자의 생생한 육성’을 최대한 저장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이유로 오치일이 그런 잔인한 일을 행했으며, 그 근처에 악령처럼 잠복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참상이 인과적으로 서사화됨으로써 한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대면하게 해준다.

이와 함께 오치일의 노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양씨의 두 건의 편지, xx초소의 총기살상사건은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문의한 바 사실로서 확인되었다는 소견, 소견서에 이어 나오는 오치일의 자전적 소설, 10여 년간 간수해 온 또 하나의 오치일이 남긴 편지 등은 주체가 소멸된 후에도 주체를 대항해 기억을 현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봄날」에서 상주의 고통이 단순히 발작 상태에 빠진 한 청년의 병증으로 단정지워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광주와 관련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건 그간의 상황들을 “생생하고 치열한 실감”으로 ‘기록해’ 놓은 상주의 “일기”가 있기 때문이다. 「얼굴」의 맨 처음 문장인 “타자기에 꽃힌 흰 종이에 ‘오월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가 찍히는 것을 끝으로 테이프는 끝이 났다……마지

막 화면의 타자기가 총알 같은 글자쇠를 날려 그의 가슴에 그런 글씨를”(107면) '새기는' 장면 등은 모두 문자로 촉발된 기억이다. 「불나방」에서도 동생 역시 스타카토식으로 끊어진 전보지의 그 여섯 음절(“형 위독 급 귀가 전보”)이 머릿속을 가시처럼 들쭉서대었고, “그동안 헤어지지 못해 발버둥치던 그 해 오월의 악몽이 그새 또 바람을 타고 해일처럼 한꺼번에 덮쳐 오는 것”(「불나방」, 299면)을 느끼게 된다.

문자는 시간의 파괴력에 영향받지 않는 유일한 불멸의 매체인 동시에 기억의 보완장치이다. 문자는 살아 있는 정신을 방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사를 이루는 일기, 편지, 소설, 문건, 사진, 증언 등에 쓰인 기록된 문자는 사실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밀한 소통의 장으로 작용한다. 즉 깊고 복잡한 사유를 추상적인 기호로 압축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나가는 독자는 문자에 압축된 작가의 의미를 다시 풀어내야 한다. 소통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유체계는 물론 독자의 경험과 상상이 투여되기 때문에 상상된 무한한 이미지와 함께 작가가 투영한 개별 주체들의 사적인 기억은 여러 갈래의 의미망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말(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과 사건은 어떻게 표상될 수 있는 것인가.¹²⁾ 기억은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타협을 하고, 매개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과 문화는 언어적, 조형적, 제의적 반복이라는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교호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개인과 문화, 이 양자는 신체 밖의 저장매체와 문화적 행위의 도움으로 그들의 기억을 유기적으로 엮어간다. 이것 없이는 세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 통하는 어떠한 기억도 형성될 수가 없다. 동시에 이 말은 이러한 매체들의 변화된 발전 상황과 더불어 기억의 저장 방법 또한 필연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¹³⁾하기도 한다. 서사 내의 매체들은 기록체계를 포괄하는 언어와 함께 신체, 그림, 목소리와 음색과 같은 감각까지도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소리를 통한 기억의 소환은 「낮선 歸郷」에서 지배적이다. 병수는 피곤한 망막 위에 몇 개의 얼굴이 포개지고, 먼데서처럼 아버지의 ‘꼴록꼴록하는’ 저주의 천식 소리와 함께 5월의 기억을 떠올린다. 부지불식간에 공포의 순간으로 치닫게 하는 「봄날」의 사이렌 소리, 「불나방」에서 나방의 타는 소리는 형의 죽음을 기억하게 한다.

나방들은 끊임없이 날아와 뜨거운 반사경에 몸을 부딪쳤다.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소리

12) 오카 마리, 『기억·서사』, 소명, 2004, 136면.

13)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23면.

가 요란했다.……그것은 뼈와 살이 타는 소리, 형의 시체가 타는 소리,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는 소리였다. (『불나방』, 312면)

이러한 소리 감각과 함께 표현된 “오월의 햇살 아래 허영게 드러나던 어느 젊은 여자의 젖무덤, 서슬 퍼렇게 뒤를 쫓던 군화발 소리, 숨이 끊어질 듯 답답하던 다락방 속의 좁은 공간, 공포의 얼룩무늬, 날이 선 대검, 진압봉, 그리고 피냄새……(『불나방』, 301면)” 등은 다양하면서도 미시적인 감각 기억의 매체임을 잘 보여준다. 「완전한 영혼」이 소리 감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구멍난 엄마의 손을 뿌리친 소녀의 촉각이 지배적 인상으로 채워져 있다.

기억을 다룬 작품들에서 기억술의 핵심은 각인 혹은 “이미지”와 “장소”이다. 이미지란 기억의 내용을 명확한 형상으로 코드화한 것이고, 장소란 이 형상을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공간 속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응하는 것을 뜻¹⁴⁾하는데, 기억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뭍’ ‘오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얼룩무늬’ 등이다. 또한 죽음과 통곡과 환호와 박수와 구호, 그리고 군중들의 열창이 뒤엎힌, 시원스레 물줄기를 뿜어대던 분수대, 제왕처럼 위엄을 부리고 서있던 도청, 강폭처럼 넓게 뻗은 금남로, 부신 눈으로 올라다 보아야 했던 빌딩들, 신체안치소, 병원, 그리고 ‘극렬분자’와 ‘폭도’와 ‘빨갱이’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 반역의 도시, 해방구 등으로 호명된 ‘광주’는 기억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장소이다. 주체들은 자극으로 촉발된 이런 영상들을 접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으로 이동한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런 모든 사물들이 이제는 어느덧 또다른 의미와 냄새와 촉감과 빛깔과 소리를 지닌 채 그 어둡고 두려운 기억들을 문득문득 망각의 저편으로부터 불러내곤 하는 것이었다. 모르는 세에 그렇듯 우리는 조금씩 병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찌면 우리는 그 음침한 기억들과 함께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굴』, 375면)

이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인’ ‘낙인’과 관련된 ‘몸’이다. 특히 각인된 ‘몸’은 여러 감각들과 뒤섞이면서 언어와 이미지 이상의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몸 혹은 감각, 특히 얼굴에 대한 묘사는 작품에서 빈번하게 나오는데 몇몇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레고리안 성가의 진혼곡이 배음으로 깔리는 가운데,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시

14)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200면.

신,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시신, 얼굴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난 시신, 허영게 골이 드러나 보이는 시신, 입과 턱이 흩어져 가슴께로까지 문드러져 내려온 시신, 곤봉과 개머리판으로 짓이긴 듯 얼굴이 완전히 깨어진 시신, 아예 머리 반쪽이 없다시피 한 시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시신, 벌겍게 피묻은 배를 드러낸 허리가 꺾여져버린 시신, 그런 참혹한 시신의 모습이 하나하나 스친다. 계속하여 들것이 실린 채 트럭으로 올려지는 사망자의 모습. 다시 클로즈업되는 짓이겨져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의 모습. (『얼굴』, 131면)

이 고통 속에서 어느 순간 얼굴들이 뚱뚱 떠오르고 사건이 거센 물살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흐른다. 그 고통의 박동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잊어버린 얼굴과 사건을 다시 만난다. 소리 지르는 얼굴, 쓰러지는 얼굴, 위협하고 구타하는 얼굴, 피 흘리고 쓰러지는 수많은 얼굴, 발가벗겨진 채 승어처럼 팔짝거리며 경련하는 얼굴, 헉 하고 소리 지를 시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얼굴, 쫓기는 얼굴, 부릅뜬 얼굴, 팔을 내휘두르며 무언가를 외치는 얼굴, 굳어진 얼굴, 영원히 굳어진 보통 얼굴들, 깔린 얼굴, 얼굴 없는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옆얼굴, 빛나는 아름다운 이마의 얼굴, 꿈과 힘이 합쳐진 얼굴, 그리고 다시 모로 쓰러지는 얼굴, 뒤로 나자빠지는 얼굴, 다시 깔리는 얼굴,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말고 꺼지는 눈빛의 얼굴……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164면)

사람의 신체는 일어났던 '사건'의 메타포이다. 특히 '얼굴'은 고통받는 순간을 가장 뚜렷한 인상으로 떠오르게 하는 매체이다. 공포와 광기와 비극과 상처로 얼룩진 얼굴들은 일상 어디에선가 잠복해 있다가 계기화되면 떠오르는 영상이다. 수만 가지 표정의 얼굴이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그 고통은 감염되는 것이다. 기억에 매개된 폭력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자기 자신이 그 당시 마음과 신체로 느꼈던 모든 감정, 감각과 함께 내팽개친 채로 그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¹⁵⁾인 것이다.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주체들의 자해행위는 가장 비극적인 현재를 보여준다.

상주의 손에 깨어진 거울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유리 파편의 날카로운 끝을 벌거벗은 가슴팍에 가져가더니 이윽고 녀석은 천천히 살가죽 위에 붉은 줄을 그어갔다. (아벨은 내 머

15) 오카 마리, 앞의 책, 53면.

리 위에 향유를 붓주듯 저주를 남기고 갔습니다. 보소서, 이제 저주는 여기 이렇게 낙인으로 새겨지나이다. 내 손으로 걸어 잠근 대문의 기억을 위하여.)……거울 조각은 네 번째 줄을 팔뚝에 그어 놓았다.……

불현듯 나는 진저리를 치며 그 끔찍한 환상을 털어내려고 애썼다. 햇빛도 들지 않는 산속 기도원의 음침한 골방에 틀어박혀 벌거벗은 채 제 손으로 살가죽을 저며내고 있는 상주의 모습이 그의 일기장 속에 격앙된 언어들과 한데 엉키어 자꾸만 시야를 어지럽혔다.〔봄날, 357면〕

추한 동물처럼 푸르르거리면서 여자애는 바닥에서 깨진 시멘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남자가 말릴 틈도 없이, 설령 남자의 손아귀에 잡혔다 해도 어디서 솟는지 모를 힘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오면서, 빠른 동작으로 경련적인 리듬에 사로잡힌 것처럼 집어든 돌 조각으로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돌조각의 날카로운 이빨이 허벅지에 뱃가죽에 등허리에 종아리에 마구잡이로 가로 세로 붉은 선들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돌의 이빨이 만들어낸 출혈의 자국이 풀리기도 전에 다시 거친 여자애의 손길이, 더 어찌해볼 수도 없는 빈곤한 몸뚱어리 위에서 마구 춤추었다. 붉은 빗발이 후려쳐지고 또 후려쳐져 붉은 면이 되고 그녀의 손이 닿지 않은 부위에 흥칙한 흰 얼룩을 드문드문 남긴 채 한참을 경련은 계속되었고, 어느 한 순간 자지러지는 듯한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는 것과 동시에 그녀는 피에 절은 장작처럼 모로 쓰러졌다.〔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153면〕

저주에 걸린 마법을 풀기라도 하듯 그들은 미친 듯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다. 몸에 찍힌 ‘낙인’ ‘자국’ ‘얼룩’은 흔적으로 남아 생생한 충격을 되살려오는 주문과도 같다. 타자들의 육체는 “의식이 때때로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곤두박질해 들어가고 혼돈과 광기의 지하 지대를 치달을 때도 그가 맡은 최소한의 기능을 철저히 완수했을 것”이며, “과거의 증거를 지우려는 범죄자의 불안정한 손길처럼 몸에 치명적인 상처로 남은 자국들, 현재를 혼동하고 잊어버렸을 때에도 육체만은 어느 구석엔가 사건의 냄새를 녹음해두고 있어서 어떤 이성적 추리보다도 정확한 방향 감각으로 여정을 채우고 있”(〔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192면〕는 것이다.

4. 기억의 윤리학 : 분유(分有) 혹은 타자의 환대

누적된 사회적 모순이 거대한 용암이 되어 폭발한 5월 광주항쟁은 80년대를 지시하는 하나의 역사적 전형이다. '광주'라는 말은 혼란한 80년대의 정치적 소용돌이의 환유처럼 맴도는 말이다. 광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살(殺)의 정치'의 가장 극명한 단면을 보여준다. 광주 체험은 개인을 넘어 집단적이고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참극이라는 점에서 80년대의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에 해당한다. 또한 빠른 시일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잠재적인 원상(冤傷)이라고 할 수 있다. "저마다 가슴속의 크고 작은 기억들을 지워내고 아물리고 껴매는 방식을 나름대로 터득하며 살아가고 있는"('봄날', 359면) 이들에겐 끈질긴 죄책감, 어떤 거대한 덧, 상처기, 가슴에 박힌 커다란 나무뿔, 아물지 않는 진물이 잠재되어 있다.

살아남는다는 게 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폭력적인 그 '사건'의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¹⁶⁾ 비극적인 참상이 망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의 항쟁이 필요하다. 항쟁이라 함은 "화해 조정(調停)을 받지 않은 망각"(하랄트 바인리히)의 '깨어남'을 의미한다. 화해 조정을 받지 않은 망각은 예기치 않게 다시 일어나 흡혈귀처럼 현재를 괴롭힌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한 비유, 아무 말 없이 금기시된 채 한 세대 한 세대 계속 영향을 끼치는, 해결되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과거¹⁷⁾는 치유되지 않은 이유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주체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라깡은 트라우마가 근본적으로 윤리의 문제임을 제기한다. 즉 트라우마 안에는 윤리적 정언명령과 윤리적 실천의 책임이 존재한다. 상흔(傷痕)에 대한 치유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흔적들은 적어도 텍스트와 텍스트의 이면에서 끈질기게 나타나며, 공식화된 역사, 즉 정사(正史)에서 배제된 희생자들에 대한 망각에 새롭게 의미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회 상황 등에 대한 성찰도 가능하게 한다.¹⁸⁾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나누어 갖기 위해서 '사건'은 우선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구술화된 증언을 포함하여 저장기억과 기능기억은 기억을 소통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중요한 전달자이다.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 기

16) 오카 마리, 앞의 책, 96면.

17)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222-3면. 오카 마리, 앞의 책, 96면.

18) 최문규 외, 앞의 책, 170면.

억, 역사의 언설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살아남은 자들, 곧 타자들이기 때문이다.¹⁹⁾

복수적이고 복합적인 주체를 발견하는 일은 곧 풍요로운 주체를 생산하는 일이며 억압되고 소외된 타자를 불러들이는 행위이다.²⁰⁾ 그럼 기억을 서사화한 작품들에서 타자들을 부르고 치유하는 방식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사건'의 기억을 나누어 갖는다는 행위란 타자가 호소하는 목소리(고백)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한승원의 「어둠꽃」은 광주로 인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 아내 순애와 남편 종남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 국회 청문회를 보던 아내 순애는 뱀에게 잡힌 개구리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 얼룩무늬옷은 고등학교 시절 당했던 윤간의 공포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남자들에 대한 공포감으로 연결된다. 남편 종남은 공수부대원으로 한 건물의 옥상에서 분수대와 금남로 일대를 향해 총을 갈겨대던 일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아내가 정신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 종남은 아내에 대한 죄의식의 깊음과 함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고백'임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다짐은 머리에서만 맴돌뿐 실천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으로 남겨진 채 종결된다.

병든 아내를 어떻게 버리고 간다는 말인가. 아내의 병은 내가 치유해주어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다. 도망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다른 도회나 다른 어느 시골 속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은 어떻게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고통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다.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고백을 하는 것뿐이다. 아내에게도 털어 놓고, 사촌매부, 사촌누님, 회사 동료들에게도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길거리를 미친듯이 휘돌아다니면서 '나는 그때 얼룩무늬옷을 입고 이 도회 한복판에 들어와서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한 놈이요, 나는 미친 개보다 못한 놈이요, 나를 처죽여주시오. 나는 죄인이요, 쓰라는대로 쓰고 찌르라는대로 찔렸소, 간첩들의 총동질을 받은 폭도들이라고 하길래 정말 그런 줄만 알고, 시키는대로 했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만 한다. (「어둠꽃」, 45면)

고백이 발화하는 주체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타자의 기억을 공유

19) 오카 마리, 위의 책, 147면.

20) 김정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역락, 2006, 60면.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자에게 향한 방식이다. 「낮선 歸郷」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까지 꼬치꼬치 따져 캐묻고야 마는 영감쟁이가 쓸데없는 질문을 늘어놓아 남의 불편한 기억을 들쭉시네” 장면,²¹⁾ 「다시 그 거리에 서면」에서 찬수를 자꾸 회상 속으로 몰아넣어 인숙이 술에 취해 미쳐가던 날 밤의 일과, 그리고 그해 5월, 거둬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기억을 하계 한 대답 없는 질문은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함으로써 치유에 더 가까이 근접해 가게 한다. 치료는 기억의 재구성과 구조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치료의 전형적인 방법인 스토리화를 통해 주체는 치유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들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이야기되는 언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침묵, 신음 그리고 몸부림이 이야기하는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순수한 방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역사를 결정하는 저 높은 곳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견뎌내고 있는 이 낮은 곳에 몸을 두는 것. 낮게 그것도 철저히 낮게. 수동성이라는 말이 이미 허튼소리가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낮은 곳에 몸을 두는 것.(낮게, 어디까지나 낮은 곳. 거기에 쥘네가 있다.(르네 쉐레르, 『환대의 유토피아』)²²⁾

낮은 곳에서 역사를 견뎌내는 모습이야말로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환대의 윤리이다. 「완전한 영혼」의 장인화가 총칼에 맨몸으로 맞서고 그 고통을 ‘견뎌’기로 살아내는 것은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낮은 곳에 몸을 두는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식물의 내음만 가득한 어린 아이와도 같은, 이 유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식물의 내음은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 곧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하염없는 사랑의 원천이며, 강인한 철의 영혼을 만든다.(『완전한 영혼』,

21) “침은이는……어디로 가실거?”

“버드실에 간다고?”

병수가 목직자를 밝히자 노인이 다시 따지듯 되묻는 것이었다.

“버드실에 사실거?”

“아뇨.” “그럼 버드실엔 뭘하러?”

불필요한 것까지 꼬치꼬치 따져 캐묻고서야 마는 시골사람 특유의 나쁜 버릇이었다. 이 영감쟁이는 왜 쓸데없는 질문을 늘어놓아 남의 불편한 기억을 들쭉시네가. 병수는 노인의 참견이 싫어 눈을 감고 더러운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러자 피곤한 망막 위에 몇 개의 얼룩이 포개지고, 먼데서처럼 그 소리가 들려왔다.

“……골룩골룩골룩……기다려라 기다. 기다려라 기다……골룩골룩골룩……”

……해질녘이면 더욱 괴로워하던 아버지의 영문모를 천식의 숨소리처럼.(『낮선 歸郷』, 171면)

22)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77면에서 재인용.

101면) 악을 모르는 정신, 고통에 대응하는 그의 식물적 정신은 고통에 직면한 이가 가져야 할 최고의 '염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인하의 증언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유일한 소리, 달힌 방의 창살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인간의 다정한 소리, 험하고 힘든 길을 허우적거리며 걸어와 헤진 가슴에 안기는 생명의 소리"("완전한 영혼", 80면)로 화하게 된다.

그 식물적 환대의 정신은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는 "부드럽게 떼어놓아 주십시오. 그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녀를 피해 뛰면서 위협의 말을 던지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녀의 얼굴을 잠시 관심있게 바라보아 주시기만 하면" 되는 부드러운 응시로, 「다시 그 거리에 서면·2」에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구체적 삶과 통한다. ("상대가 해주라고 대주면 해주는거야. 배고프다면 밥퍼주고, 아프다면 아까징키 발라주는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148면)) 또한 이 정신은 가해자로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공수부대원이었던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성으로 변이된다.

“그래, 마음 아프기사 자식 잃은 에미가 백배 천배 더하겠제. 하지만서도 그쪽은 이미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키는 자식이고 나한테 너는 이제나저제나 가슴 밖에 내놓고 지키는 자식 아니겠냐. 언제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해 그때 거기 간 느들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세상이구.”(「얼굴」, 141면)

가슴 밖에 내놓고 늘 노심초사할 모성은 「낮선 歸郷」에서 광주의 현장에서 죽어 처참한 시신이 된 둘째 아들을 유골로 지켜오다가 임종을 앞두고 큰 아들에게 고향에 가서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과 같다. 죽음을 통해서만 내쫓았던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비극적이나 화해의 도정임을 상징한다. 타자들과 사건을 나누어 갖으며 치유를 모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윤리적인 치유 행위이다. 그런데 5·18 소설들에서 고통의 재현에 비해 치유의 측면은 미약하다. 치유의 형상화보다는 여전히 고통의 현재화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억의 서사에서 고통의 증언과 함께 '치유'의 서사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

5. 기억 연구의 의미와 제언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는 봉합될 수 없는 타자의 속사정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며 현재적이다. 기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찬의 「완전한 영혼」은 서두에서 '회상'의 행위가 시간에 대한 인간이 지니는 유일한 특권임을 제시하면서 직접적으로 기억이 지닌 서사적 가치를 제시한다.

회상이란, 그것이 즐거움이든 혹은 괴로움이든 사유(思惟)의 일상적 영역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한 쇠사슬인 동시에 자유의 질푸른 공간이다. 그리하여 시간이란 절망이며 치욕이며 희망이며 혁명이다. 그리움이며, 눈물이며, 탄생과 죽음이다. 회상은 이 시간의 살 속으로 파고드는 인간의 사유 행위이며, 언제나 구체적인 영혼과 구체적인 육체에 닿는다. 인간은 순수히 사물만을 회상할 수 없다. 설혹 회상의 대상이 사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물의 핵심에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영혼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시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시간은 결코 이 특권을 빼앗지 못한다. (「완전한 영혼」, 43면)

기억이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인상들의 피난처”²³⁾이다. 또한 기억은 고통이 수반된 타자화된 주체들의 숨겨진 목소리들이다. 우리는 “그녀의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통해, 모든 의미가 비어버린 실성한 웃음을 통해, 흔적이 없이 지워져버린 인격의 모든 부재를 통해서……점점 더 자세히, 점점 더 강한 증폭과 깊이로 그녀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소문”(「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200면)을 불러내어 분유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개별 주체들(타자)의 '기억'은 사건의 미종결성을 의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현재화하는 통로이다. 기억이란 분명 오랜 보존이나 오래 전에 사라졌거나 상실되어버린 것의 인공적 대체일 뿐만 아니라 망각과 억압에 대해 자기를 관찰시키는 힘이기도 하다.²⁴⁾ 그래서 억압된 타자들의 목소리를 복원²⁵⁾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원은 구술과 문자와 감각, 그리고 기억하는 몸에 대한 담론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3)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95면.

24) 알라이다 아스만, 위의 책, 441면.

25) “기원이 허구이고 허구가 기원이 되는 인간의 서사가 바로 그에게 주어진 텍스트이고 증후, 꿈, 역사이다. 그 역사는 아름답지 않다. 그것은 환상과 망각, 좌절과 상처, 억압과 패배로 가득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읽어내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은 억압된 타자들(타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복원하는 것이며 그가 인정해야 할 것은 허구, 환상, 무지가 인간의 담론을 만들고 또 그런 담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도정일, 「자고 라깡이라는 좌절, 유혹의 기표」,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90, 여름호, 148면.

기억은 보상되지 않은 문제들을 밝혀주는 혁명적 힘이다. 혁명적 회상기억은 역사의 고통과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를 갖고 있다.²⁶⁾ 그와 함께 타자들의 활성화 기억이 범하기 쉬운 심층 조사의 한계, 정확성과 신뢰성의 확보의 난관을 타개하는 기록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의 유일성을 ‘사건’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유일무이성, 단독성과 동시에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지평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바로 역사수정주의의 언설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들 중의 하나²⁷⁾이기 때문이다.

기억은 단순히 개별 주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상이 집단적 기억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의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미’가 집단으로 증식되는 일은 곧 문화적 기억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화적 기억에 대한 매체의 초점은 ‘텍스트에서 흔적으로’ 나아간다. 흔적은 언제나 과거의 의미 가운데 일부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흔적은 기억과 망각을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해 주는 이중의 기호이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는 코드화된 정보와 그와 결부된 편파적인(자기) 기만을 포함한 한 시대의 의식적 표현물이다. 반면 ‘흔적’은 한 시대의 양식화되지 않은 기억을 증거해 주며, 어떤 검열이나 왜곡의 지배도 받지 않는 간접적 정보라는 점²⁸⁾에서 주목을 요하는 대상이다.

다음의 두 인용문은 ‘흔적’의 의미를 생존자의 구술된 기억과 ‘여행’을 통해 보여준다. 십년 동안 자신의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녀는 ‘기록 능력’이 없는 초로의 시골 아낙이다. 채록하는 학생들이 두 번 찾아갔을 때 처음에 거절했던 그녀는 남편과 자신들이 겪은 고초의 세월을 ‘넋두리’로 풀어놓는다.

우리 순옥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우, 힘없고 이름없고 죄없는 죄로, 아니 인정 많고 천성 착한 죄 하나 땀시 광주사태 때 물불 안 가리고 나섰다가 저 짐승같은 놈들한테 생병신이 되가고, 이날 이때 까장 산 송장으로 살아온 줄을 몰라서 그러시요? 빨갱이다 폭도다 불량배다 억지 누명 뒤집어 쓰고 시방까장 천대받고 살아온 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눈구녕에 신불이 나는데, 죽어서 마지막 가는 날까장도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다 눕혀 놓을란다고라우? 안되라우.(66면)……

어쨌거나 고맙소. 남의 아픈 속을 귀담아 들어 볼란다오 찾아와 주는 성의가 얼마나 가록

26) 알라이다 아스만, 위의 책, 442면
 27) 오카 마리, 앞의 책, 25면.
 28) 알라이다 아스만, 위의 책, 267-8면.

허난 말이지. 솔직히, 그동안 십년이 다되도록 이렇게 나한테까장 직접 찾아와가고 우리집 사정 얘기를 들어볼란다고 졸라보기도 했던 사람은 시방까장 아무도 없었응께.(「어떤 녀 두리」, 51면)

작품 전체가 그녀의 사투리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 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구술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타자들의 기억(이야기)을 우리는 공유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광주의 체험자이면서 권력과 무관한, 그녀와 같은 소외되고 희생된 타자들에 대한 구술 채록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그들의 생이 다하면 그들의 '기억'조차 소멸되기에.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간을 거슬러 흔적을 더듬어가는 여행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미체험의 광주에 대해 의미화하는 일의 환유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지금 혹은 계속해서 광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미 가버린 친구의 누이를 찾아 위안해주려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죽을 혼을 안심시키려고? 그날, 그 도시, 그 이후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한 고통을 설βολ리 치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모습에서 끔찍함의 구체적인 흔적을 찾고자 하는 자학 심리? 아니면 이미 피폐된 대로 피폐된 그녀를 보호해주겠다는 경박한 인도주의?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그녀처럼 잠을 두려워하면서 깨어 있기 위해서? 악몽을 암처럼 세포 속에 품고 그러고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225면)

이 끝없는 질문의 연쇄 반응이야말로 여행이 제공하는 흔적-그리기이다. 여행의 길에는 죽음과 상처와 영혼을 지닌 그와 그녀, 그리고 우리가 의미화할 '광주'가 존재한다. 광주에 대한 기억의 서사는 세 주체의 이야기로 전개될 것이다. “머리에 흙을 이고 망월동 묘지에 누워” 있거나,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신세”이거나, 그리고 “지금 그 살아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려는 길”(「봄날」, 360면)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이다. 세 주체의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은 죽음(과거)-상처(현재)-미체험(미래) 세대를 이으며 시간을 넘나들게 하는 집단적 주체의 연대를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연구가 나아갈 방향은 '비유'의 양상을 살펴보는 일이다.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비유 없이는 하지 못한다. “비유”는 단순히 돌려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연구 대상을 비로소 개척하고 구성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비유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기억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이나 그 역사적 맥락 혹은 문화적 욕구나 해

석 원형을 살펴보는 것과 다름없다.²⁹⁾

청문회,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 등을 통해 5·18 민중항쟁은 공동체의 트라우마, 사회가 억압한 죄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 기념비와 성역화 작업 등은 역사의 영역으로 고정화시켜 탈현재화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억된 과거는 우리가 역사라 명명하는 냉담한 전문지식의 과거와는 동일시될 수 없다. 그것은 정체성 확보의 문제이자 현실의 해석이며, 가치의 정당화로 연결된다.³⁰⁾ 따라서 5·18 민중항쟁에 대해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 진상규명 작업으로부터 벗어나, '오월'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고, 끝없는 증식을 계속하도록³¹⁾ 하는 데 있다.

'오월 광주'가 반성적 역사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보편자로서가 아닌 개별 주체들의 기억에 대한 의미화가 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 연구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차원의 내러티브들이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한 기억이 여타의 힘없는 기억들을 '억압'할 수 없도록 하는 반사적 효과가 있다.³²⁾ 그 '사건'과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기억 상처 치유 진실'의 또 다른 서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기억을 소홀히 한다 해도 그 기억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해결의 마술사일 수는 없다. 우리가 여태 누나를 만나게 될 것이란 소망과 희망을 버린 적이 없"(『그대 고운 時間』, 207면)었던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기억, 가족의 기억, 저장 기억과 기능기억의 접침과 괴리 양상, 기억에 대한 비유, 기억의 매체 등에 관한 세분화된 기억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9)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188면.

30) 알라이다 아스만, 위의 책, 204면.

31) 김형중, 『『불날』 이후』, 5·18기념재단 역음,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심미안, 2006, 255면.

32) 전진성, 『억압적 '역사'에 대한 재현의 정치학』, 『批評』, 2006.12, 2면.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5·18 민중항쟁을 담은 8·90년대 중단편소설

- 80년대 소설

김남일의 『망명의 끝』

김신운의 『낮선 歸鄉』

김영옥의 『남으로 가는 헬리콥터』

김중태의 『모당』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백성우의 『불나방』

윤정모의 『등나무』와 『밤길』

이명수의 『저격수』

임철우의 『봄날』·『직선과 독가스』·『동행』·『사산하는 여름』·『불입기』

정도상의 『십오방 이야기』, 『저기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한승원의 『당신들의 문도가네』

홍인표의 『부활의 도시』

홍희담의 『깃발』

- 90년대 소설

공선옥의 『씨앗불』·『목숨』·『목마른 계절』

이순원의 『얼굴』

정찬의 『완전한 영혼』·『새』·『아늑한 길』·『슬픔의 노래』

주인석의 『광주가는 길』

한승원의 『어둠꽃』

2. 참고 논저

김정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역락, 2006.

김형중, 『『봄날』 이후』, 5·18기념재단 엮음,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심미안, 2006.

도정일, 『차끄 라깡이라는 좌절, 유희의 기표』,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90. 여름호.

이성옥,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은 '광주'의 꿈』,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 전진성, 「억압적 '역사'에 대한 재현의 정치학」, 『批評』, 2006. 12.
-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 5·18 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 심미안, 2006.
- 5·18 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2』, 심미안, 2006.
- 5·18 기념재단, 『5·18 민중항쟁과 법학』, 심미안, 2006.
- 5·18 기념재단,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심미안, 2006.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4.
- 오카 마리(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 2004.

5·18 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

-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분석

김창욱(부산음악학연구소)

I. 첫 말

1980년 5·18 광주항쟁을 시작으로 한국의 운동가요 및 노동가요가 본격적으로 창작·연행되었다. 이들은 이후 각종 집회와 사상발산의 장(場)에서 널리 불려졌으며, 노랫말을 통한 메시지의 직접적인 전달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노랫말에 음악이 종속됨으로써 음악이 가진 고유한 자율성(自律性)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곧 인류역사의 한 거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5·18 광주항쟁의 의미가 한국에서 일어났던 몇몇 사건의 일례(一例)로 제한됨을 뜻한다.

따라서 광주항쟁이 인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려면, 5·18이 남긴 뜻을 세계 속에 적극 알려야 하며, 그것은 세계와 소통되는 예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윤이상(尹伊桑 1917-1995)의 「광주여 영원히」가 집중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항쟁을 주제로 한 음악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노동은(魯棟銀)의 “5·18과 음악운동”과 정유하의 “5·18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 양식”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¹⁾

노동은의 “5·18과 음악운동”은 5·18과 관련해서 창작된 노래들, 즉 80년대 노래운동의 연장선에서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유하의 “5·18 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 양식”은 5월 광주와 관련된 한국의 서양음악들, 곧 윤이상의 교향시 「광

1)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서울: 역사비평사, 2004); 정유하, 「5·18 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 양식」, 『음악과 민족』, 제26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3); 정유하의 「5·18 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 양식」은 같은 제목으로 「5·18 민중항쟁과 문학 예술」(광주: 5·18 기념재단, 2006)에, 「5·18 항쟁의 형상화와 표현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서울: 역사비평사, 2004)에 각각 실렸다. 그 밖에도 정유하의 「5·18 의례음악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 『지역사회연구』(광주: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4) 등이 있다.

주여 영원히」, 이민수의 가곡 「이 오월에」, 김선철의 오페라 「무등등등」, 그리고 논자의 자작곡 「광주항쟁」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한편, 악곡분석을 통해 각각의 음악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은의 연구는 80년대 민중적 음악운동에 제한시킴으로써 세계사 속에서의 광주항쟁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정유하의 연구는 5월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음악작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특정작품의 구체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따라서 논자는 이 연구에서 5월 광주항쟁의 의미를 관현악으로 형상화(形象化)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 한다.

본 연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을 기초로 창작된 윤이상의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를 분석한다. 이것은 음악작품과 역사적 사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고찰될 것인데, 여기에는 광주항쟁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음악적 이념, 윤이상의 주요한 음악어법, 윤이상 어법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형상화 등이 포괄된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적 방법을 취한다. 분석적 방법이란, 음악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첫째 광주항쟁에 관한 기록물, 단행본 및 학술지 논문 등을 통해 세계사 속에서의 광주항쟁의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윤이상의 주요한 음악적 특징과 그의 표제음악을 사회학적·미학적 관점에서 살핀다. 셋째 「광주여 영원히」에서 윤이상이 가지고 있는 음악내적 속성과 광주항쟁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을 그린 작품이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뒤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후 1980년 5월 17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5월 18일 광주에서의 학생데모가 있었는데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민 10만 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항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은 잔인한 폭력으로 수 천명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형을 선고함으로써 5월 27일에 이르러 마침내 광주를 장악할 수 있었다.

1980년 당시 한국 상황에 귀 기울이던 윤이상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 민주화 투쟁을 주제로 한 표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격렬한 표현을 통하여 인류전체에 폭력의 비애를 경고하고 있는 정치성이 짙은 작품이다.

윤이상은 이 작품을 1980년 12월 30일에 초안해서 1981년 1월 23일부터 3주간 중단했다가 3월 2일에야 완성했다. 그러나 마지막 254-269마디는 4월 2일부터 4일에 가서야 마지막으로 손질할 수 있었다. 반 년이라는 오랜 작업시간이 그가 이 작품에서 다른 총력의 중량을 시사해 준다. 독일의 WDR방송의 위촉작품인 이것은 1981년 5월 8일 와카수기(Hiroshi Wakasugi)의 지휘로 쾰른 방송관현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전 3부로 구성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는 표제적 내용에 걸맞게 1부에서는 군부세력의 학살과 민중의 항거가 악곡의 빠르기로 묘사된다. 점점 빠른 템포로 변화하는 것이 그러하다. 2부는 1부와는 대조적으로 감성적인 측면이 강화된다. 군부세력에게 제압된 민중의 허탈감과 공허감이 다양한 연주기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그러하다. 마지막 3부는 민중항쟁의 투쟁의지를 고취시키려는 트럼펫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예고하는 팡파레가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에 윤이상 특유의 주요음향기법·아티클레이션·셈여림 등이 더해짐으로써 표제적 교향시가 완성된다.

따라서 「광주여 영원히」는 윤이상이 그의 독자적인 음악어법을 토대로 5월 광주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열망한다.

II. 광주항쟁의 양상과 그 의미

1. 광주항쟁의 발생

역사적 사건은 그것이 변증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인과관계를 가지기 마련이다. 1980년 5월의 광주항쟁 또한 그 예외일 수 없다. 사천년 역사 속에서 압제에 항쟁하고 인권을 지켜온 한국 민족의 발자취와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이 모두 광주항쟁의 뿌리가 되겠으나,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70년대 말 박정희 유신정권의 붕괴에 따른 것이었다.

박정희 주도의 급속 경제성장은 표면적으로 현재 부유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낸 예지안적 초석으로 비춰지지만, 실상 그 혜택보다 훨씬 많은 상처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바로 빈부격차가 그것이었다. 경제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상목표가 되면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야 했고, 그들이 희생당하는 만큼 기업과 정치가들은 점점 더 배불러 갔다. 또한 공업중심의 발전계획 속에서 당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이루고 있던 농민들의 소외감도 급속성장이 가지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였다.

박정희 권력 말기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나날이 커져갔고, 그것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표출되며, 마침내 10·26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20여년의 군부 독재의 막이 내리며,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안개정국으로 빠져든다. 그 때, 전두환을 위시한 당시 신군부세력에 의해 12·12사태가 일어나고 신군부는 국가 내 권력장치의 요소요소에 포진하게 된다. 그 속에서도 정치권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80년대 초 이른바 '서울의 봄'²⁾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는 5월 광주에서는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0년 3-4월 전국의 각 대학에서는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회를 탈피한 새로운 학생회를 조직하고, 5월에 이르러 비상계엄 해제와 유신잔당 타도를 골자로 하는 학생운동을 전개한다. 그 규모는 전국적이었고, 유신의 적자와 다름없는 신 군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사태가 발전할수록 신 군부세력의 위기감이 증폭되었고, 결국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군 병력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광주항쟁이라는 정의로운 민중들의 봉기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로 치닫게 된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우방정권으로서 미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 한국은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중에 한국의 정권불안은, 당시 카터 대통령의 유화적인 외교정책으로 제3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던 미국에 부정적인 소식이었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유리했던 미국으로서는, 박정희 정권의 핵심 소장파들로 이루어진 유신정권의 적통자인 신군부를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통한 군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작통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침묵하였고, 언론의 보도 또한 차단함으로써 세계에 유래 없는 비극적 참상을 침묵으로 지원하였다.

2.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으로 광주에 투입된 7공수 부대는 바로 80년 5월 18일 새벽부터 무차별적으로 100여명의 대학생들을 연행했다. 해가 뜨고 휴교령이 내린 학교를 진입하

2) '서울의 봄'과 함께 3김 시대가 시작되고, 대학 학생회 중심의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광주항쟁은 이 시기의 절정에서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상실시킴으로써, 3김 정치와 대학생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려는 학생들과 막으려는 군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의 양상은 더 격해지고, 학생 시위대는 잠시 해산하여 광주역 부근에 재집결하고 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곳에서 저항을 계속하면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났고 학생들은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이용한 무력 저항을 시작하고, 사태가 커지자 군 당국은 이날 저녁 제11공수여단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자행된 군의 횡포를 학생들은 광주 시내 곳곳에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광주시민에게 알렸고, 이러한 탄압을 알게 된 광주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19일에 학생들이 금남로에 다시 집결할 때에는 이미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날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 무력진압의 참상을 알고 분개한 시민들이었다. 금남로에 집결한 약 2000-3000여명의 시민이 시위했고, 군 병력은 이에 무력진압으로 맞섰다. 오전에 제3공수여단이 다시 추가로 투입되었고, 진압의 대상은 이미 시위대를 넘어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어 일반 가정에까지 군인들이 침입하기 시작했다. 군인들에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시민들의 참여도는 커져 갔고, 광주시내의 각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수업거부를 통해 이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즈음 시위대에는 학생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졌고, 시위대 지도부도 학생들로부터 시민 대표로 옮겨간다.

20일, 다시 시내에 모인 시위대는 광주시민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20만명 가까이 모인 시위대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방송국을 포함, 시내 주요기관들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전남도청의 점거를 시도한다. 자신들의 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자 했던 군부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도청 앞에서 농성하던 시민들을 향해 군 병력은 무차별로 발포하고 시민들은 일단 철수한다.

이 무렵 광주항쟁은 가까운 전남지역 여러 도시에 알려지고, 목포·함평·무안·영암·해남·화순 등지에서도 그 뜻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다음 날 21일, 시민들은 다시 전남도청 점거를 위해 모여들었고, 전남도청을 지키던 군인들은 전날과 같이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속출했다. 시민들은 시내 파출소와 예비군 부대, 화순 탄광에서 총기와 화약을 확보, 무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민군'으로서 5시 30분경 도청에 진입, 도청을 점거하였다.

광주를 가득 메웠던 총소리와 화약냄새가 사라지고, 마침내 평화와 해방이 찾아왔다. 시민군 지도부는 임시 시민정부로 변모하여, 질서정연한 가운데 시민자치가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부상자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나누며 엉망이 된 도시를 다시 가꾸었다.

그러나 5월 27일 0시를 기해 군부의 진압작전이 개시되었고, 특공부대를 포함한 약 8,000여명에 이르는 무장군인의 총칼 아래 다시 광주는 짓밟히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

하며 저항한 항쟁 지도부는 총칼 앞에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수 천 여명의 부상자와 수 백 여명의 사상자들을 남긴 채 광주항쟁은 끝을 맺는다.

광주항쟁은 암울한 시대에 인권을 쟁취함으로써, '광주정신'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고, 다른 한편으로 총칼로 민중 위에 군림한 신군부는 그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했다. 훗날 광주정신을 이어받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군부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 민중에 굴복하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2단계의 민주화 투쟁이라 할 때, 1980년 광주항쟁은 그 1단계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³⁾

광주항쟁은 결코 지역주의의 발로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불의에 항쟁하고자 했던 시민들에 의해, 그러한 시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에 대해 항거하고자 했던 저항운동이다. 다시 말해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항쟁이다. 이러한 가치는 결코 어떤 특정집단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즉 광주의 시민들은 광주에서 항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항거한 것이다.

광주의 정신은 과거 역사의 많은 민중항쟁들이 그러하듯 그 숭고한 정신을 남겼고, 인권과 참여 민주주의의 훌륭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에, 우리 후손의 기억이 길이 남게 될 것이다.⁴⁾

3. 광주항쟁의 세계 인류사적 함의

광주항쟁이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의 정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당대 세계는 수정 자본주의의 약점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신 자유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데탕트 시대에서 신 냉전체제로 이전하던 시기였다. 이것은 미국의 카터 정부로부터 레이건 정부로의 이전과 관련이 있다. 신 냉전 체제로의 이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의 군사적 강화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한국의 군부정권은 그러한 미국의 정책을 지탱하는 지지세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광주항쟁은 그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를 거부한 하나의 반제이기도 하다.

그 흐름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양상은 '제3의 물결 민주화'⁵⁾이다. 이

3) 최정집, "운동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모델",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세계사적 의미』, 6쪽.

4) 정대희, "광주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세계사적 의미』, 3쪽.

러한 현상은 70년대 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작은 1973년 태일랜드의 10월 혁명으로 볼 수 있다. 사료적으로는 동아시아 제3의 물결 민주화에 있어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으나,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5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당시 태일랜드는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기 힘들다. 그러던 것이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권위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 속출하기 시작하는데, 1978년 말과 1979년 초에 한국의 부마항쟁을 포함, 대만·네팔·필리핀 등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1979년 12월 대만의 국제 인권의 날 시위는 당시 유혈 저항운동으로 기록될 수 있으나, 국민 전체의 의지가 집결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식인과 정치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광주항쟁이 발발하던 당시는 1979년 초·중반 이후 그 물결이 잠시(약 1년간) 주춤하던 시기이다. 그런 시기에 광주항쟁은 인권운동의 '표본'으로 그 예를 제시하고, 세계에 그 정신을 전파하였다. 나아가 그 정신은 '전염효과'⁵⁾를 통해 동아시아 전역에 민주화운동을 촉진케 하는 근거가 되었다. 전염효과는 동아시아 곳곳에 크고 작은 항쟁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은 1987년 한국의 6·29 선언뿐만 아니라, 1986년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 1988년 태일랜드의 민주화를 일궈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무엇보다 그 자체로도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다. 그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갈망이며,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그러한 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집화된 곳이라는 점에서 세계 인류사 속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윤이상의 창작활동 제2기에 해당되는 「광주여 영원히」는 가장 한국적인, 가장 동양적인 것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광주항쟁의 위대성과 그 의미를 세계에 널리 공포한 현대음악의 표본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5) 제1의 물결 민주화는 프랑스혁명 이후 19세기 현상이고, 제2의 물결 민주화는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주도로 이루어진 엘리트 주도적 민주화 현상을 일컫는다. 그리고 제3의 물결 민주화란 20세기 후반 제3세계 국가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흐름을 말한다. 윤상철, 『제3의 지구촌 민주화 물결과 한국의 민주화』,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세계사적 의의』, 3쪽.

6) 윤상철, 『제3의 지구촌 민주화 물결과 한국의 민주화』,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세계사적 의의』, 19-20쪽.

Ⅲ. 윤이상의 음악과 앙가주망

1. 윤이상의 정치적·사회적 관심

윤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은 주로 70년대 이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모습은 그 이전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의 민족운동은 이미 20대 일본 유학 중 '민족운동서클'에 가입하여 "조국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게 하자고 맹세"한 것이나,⁷⁾ 1944년 7월 독립운동을 위한 무기제조로 계획하다 체포되어 두 달간 구금된 사실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⁸⁾

해방 이후 그는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하고자 공산당 사무소를 찾기도 하였으나, 그곳은 그가 생각한 '조국의 재건을 위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단지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만을 일삼는 곳임을 확인하고 낙향, 통영문화협회를 설립한다.⁹⁾ 이 시기 그는 음악회·야학·아동교육·연극·한글강습회 등의 예술활동을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쟁고아를 위한 사회사업, 동요와 교가의 보급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벌였다. 그의 창작활동 또한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시기 그의 창작장르는 가곡·합창곡·교가·동요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노래는 많은 경우 당대 사회의식이 두드러진 시인들의 시를 가사로 취했다. 가령, 그의 가곡 가운데 「편지」와 「추천(楸鰲)」은 조정 김상옥(卬丁 金相沃 1920-2004)의 시조에 선율을 붙인 것인데, 조정은 동향 사람으로 통영문화협회의 회원이자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윤이상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편지」(1941)는 전통적인 '떠이여' 기법 적용과 민악 장단(굿거리 장단)의 적용, 선법을 음계화하여 그 구성음을 화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역사성과 작곡기법상의 위치를 다른 창작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비상히 주목되는 작품'이다.¹⁰⁾

또한 윤이상은 김상옥의 가사를 바탕으로 육지중학교 교가를 비롯, 청마 유치환(靑馬 柳致環 1908-1967)의 가사를 기초로 통영여중·통영고·두룡초등·용남초등·원평초등·유영초등·진남초등·충렬초등·통영초등학교의 교가를 작곡했다. 유치환 역시 통영문화협회 활동을 통해 예술가의 사회참여를 몸소 실천하던 시인이다. 청마는 당시 비생명적인 문학에 반발해

7) 노동은, '한국에서 윤이상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제17호, 97쪽.

8) 노동은, '한국에서 윤이상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제17호, 69쪽.

9)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권, 118쪽.

10) 노동은, '한국에서 윤이상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제17호, 86쪽.

일어난 생명파의 거장으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합창곡으로는 「충무시민의 노래」(유치환), 「충무공」(정인보), 「낙동강」(이은상)이 있는데, 이들 노래의 작사가인 정인보·이은상은 당대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시인이자 국학자였다. 즉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1892-1950?)는 조선학 운동을 통해서, 노산 이은상(鷲山 李殷相 1903-1982)은 조선어학회 활동을 통해서 각각 일제강점하의 민족적 현실에 참여했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초기 그의 창작활동은 주로 사회참여적·민족주의적 경향의 시인들과의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윤이상 자신이 당시 사회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음악을 통해서 민족전통과 문화유산의 뿌리와 줄기를 회복하려 한 흔적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부산사범학교 교사로 음악활동을 전개한 그는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과 함께 '노래하자회'를 조직해서 개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49년 1월 21일 창립된 노래하자회는 매월 새노래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한층 드높이는데 기여한 바 크다. 여기에는 김호민·정복갑·김상용·박지로·김진안·김창배 등 당대 부산음악가들이 대거 참여, 한때 참가자가 800명이나 될 만큼 성황을 이루었으나 한국전쟁으로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울러 이 시기 윤이상은 부산음악가협회 정회원 작곡부 간사, 주간 「소년태양」의 편집장직을 맡았고, 전쟁이 일어나자 전시작곡가협회 사무국장으로 김세형·이흥렬·윤용하·김동진·김대현·박태현·나운영과 함께 음악활동을 벌이면서 「백두산 행진곡」 등 전시가요와 [산 넘어 남쪽]·「간호언니의 노래」 등 전시동요를 지어 보급했다.

전쟁 와중에 관청이나 학교 등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하게 되자, 그는 다시 부산사범학교 교사로 복직했고, 부산대학에서 서양음악사 강의를 맡기도 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는 유치진 극본·연출의 「처용의 노래」 음악을 작곡, 공연했는데, 그것은 한국 최초로 시도된 음악·연극·무용의 종합공연물이었다.

1952년에 들어 윤이상은 이은상의 시 「낙동강」을 합창곡으로 만들어 전쟁속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수호의 의지를 고취시켰으며, 1951년부터 1953년 사이에는 아동문학가이자 동요작가인 김영일(金英一 1914-1984)과 함께 문교부 김인정의 학년별(1-6학년) 「초등학교 새 음악」과 전시 초등학교 노래책 「소년기마대」를 공동으로 제작, 부산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아기방울」·「오리병정」·「꼬마 위문대」·「파리아 아가씨」 등의 동요가 실려있는데, 이것은 전쟁 와중에서도 자라나는 2세대의 반공정신을 드높이고, 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 윤이상은 현실참여적 음악비평 활동을 피하기도 했다. 53년 5월 28일 그는 도청 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의 알토성악가 메리 앤드슨의 독창회를 참관한 후 “앤드슨양에게-당신의 영가는 당신의 피”라는 서간체 형식의 공연평과 작곡가 채동선(蔡東鮮)의 죽음을 애도한 추도사 “빈사한 예술가-채동선씨의 작고에”를 각각 썼다.

싸우는 우리의 知識人이나 젊은 男女들은 당신의 來韓을 歡迎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잃고 싸움에 지친 韓國의 백성들은 당신의 노래를 듣고자 합니다. 前날에 어느 偉大한 政治人이 왔을 때 보라도 더 반가웁게 당신을 맞는 것을 우리는 滿足히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남달리 당신을 歡迎하는가? 당신은 날 적부터 서러움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길래 당신의 노래는 사람의 肺腑를 찌릅니다. 또 당신이 華麗한 現在의 당신에게 마련된 舞臺에 오르기까지의 苦難의 발자취를 우리는 想像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時代의 偉大한 勝利者라 부를 수 있습니다. 事實인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가지의 特異한 個性을 表現하는 音聲 - 高音의 高高하고 맑은 理念의 世界와 中음의 彈力있는 志操와 主觀의 世界, 低音의 峻烈한 反撥과 寬大한 抱擁 - 은 일찍이 그 누가 그러한 塔을 세웠던가! 당신을 길러준 黑人靈歌는 그대로 당신의 『피』입니다.

당신이 졸연히 찾아온 이 이름없던 땅덩이에 아직도 悲劇을 걸머진 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당신은 보니까? 여기 戰爭孤兒가 얼마나 있는가 情든 고장과 傳來의 良習을 빼앗긴 늙은 父母와 먹기에 풀조차 艱難한 農民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이땅의 純朴하고 어진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의 짐승보다도 못한 食料로써 견디며 戰線에서 원수와 마주 서고 있는가. 이 가난하고 宿命的인 백성들에게 주는 당신의 선물은 오직 당신의 아름답고 情다운 노래일 것입니다. 洽足히 同情으로 부르는 - 오늘 당신을 들으려고 밀고 닥치고 아우성치는 노래에 굶주린 이 群像은 實로 眞正한 당신의 벗이요, 당신의 同志입니다. 당신이 이땅을 떠나 또 그 곱고 힘찬 목소리로 어느 나라에나 들리거든 거기 添附하여 한마디 부탁하여 주시오. - 이위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그 목마른 韓人의 所願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흠어진 同族을 찾고 傳來의 땅위에 統一을 이룩하는 것 뿐이라고 -

당신의 眞實한 說明은 당신의 노래의 힘처럼 萬人에게 信賴를 줄 것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筆者 作曲家)¹³⁾

이 글에서 윤이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민족적 비애를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는 앤더슨의 흑인영가에서 묻어나는 슬픔과 한국 민족의 슬픔을 일체화시켜 두 민족의 동질감을 자아내고 있음은 물론, 문장 곳곳에 당대의 아픔을 통렬히 토로하고 있다. 예컨대 “여기 전쟁고아가 얼마나 있는가 정든 고장과 전래의 양습을 빼앗긴 늙은 부모와 먹기에 풀조차 근색한 농민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이땅의 순박하고 어진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의 짐승보다도 못한 식료로써 건디며 전선에서 원수와 마주 서고 있는가”에서처럼 이 무렵 윤이상이 한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얼마만큼 고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그의 [빈사한 예술가-채동선씨의 작고에]는 당시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음악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토대를 짐작케 해준다.

한사람의 藝術家가 비록 좋은 環境에서 藝術行爲를 한다는 것도 容易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貧寒한 것이 貫錄있는 한 藝術家를 致死케 했다는 事實은 슬프다고만 하여 그치겠는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의 抒情的인 歌曲으로 우리나라 젊은 사람에게 널리 親해진 作曲家요 提琴家인 苦 蔡東鮮氏는 일찌기 獨逸에 留學하여 우리나라에 西歐의 樂壇의 냄새를 도입했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面貌를 갖춘 歌曲을 남겼고 室內樂과 合唱의 作品과 또 이런 音樂樣式의 普及에 直接間接의 指導와 努力을 애끼지 않은 분이다.

八·一五 以後 民族陣營에서 剛直하므로해서 同志中에서도 誤解는 샅으나 앞장서서 일했고 그러기 때문에 늘 左翼으로부터 威脅앞에 섰었다. 事變後 飄然히 釜山으로 내려와 누구도 돌봄이 없이 살기 위해 한때 埠頭에서 그의 體力에 過重하게 肉體勞動을 했다는 것과 그의 家族이 埠頭에서 담배行商을 했다는 事實은 그의 遺族을 爲해서다. 樂壇의 體面으로나 애껴두어야 할 말이나 筆者는 여기 公開하지 않을 수 없는 責任을 진다. 검은 무명韓服에 대추씨같은 마르고 곧은 體軀를 담은 故人은 아수온 茶한잔을 앞에 놓고 痛烈히 民族의 運命을 論하고 文化政策의 經綸을 吐露하군 했는데 그가 그리 困難했어도 남의 추잡함을 보곤 못참았다. 그의 病에 技術의 最善을 다한 서울醫大에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나 短時日에 病名이 여럿으로 移動한 後 급기야는 作故하고만 이 不過한 樂壇先輩의 直接의 死因은 貧寒함에 틀림이 없는 것은 못먹어서 飢로왔고 飢로와서 病났고 病으로 쇠진해가는 肉身을 지탱할 營養을 注給치 못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11) 『부산일보』 1953년 5월 30일자.

우리는 藝術이 지금의 民族大衆에게 影響力을 못가진 것을 恨歎하는 同時에 有能한 藝術家들이 計劃性 밑에 國事に 從事치 못하는 것을 恨歎한다. 昨今 우리 藝術界는 部分的인 活氣를 띠고 있으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얼마나 많은 藝術 文化人들이 意識하여 民族에 遺産을 남길려는 刻苦勳勵가 더러는 嗜血하고 더러는 卒倒하여 가며 그들의 使命을 繼續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동안에 大衆은 文化라는 營養을 조금씩 攝取해가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文化人은 貧弱한 그의 血管에서 피를 뽑아 民衆의 血管속에 輸血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故人은 臨終에 달려간 樂壇人에게 韓國의 交響樂運動을 부탁하면서 添附하여 [당신들도 돈을 벌어서요]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쓰디쓴 忠言으로 오래 記憶해 두어야 할 일이지만 同時에 共通된 運命에서 作故한 이 先輩의 이 悲願과 그의 遺族을 걱정하는 작은 行事라도 베풀어 이 機會가 어쩔 수 없는 先天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우리의 事業을 爲해 흠어진 能力을 結束해서 藝術과 藝術人의 地位를 確立할 수 있는 運動의 좋은 緣由가 되었으면 한다.

심가 故人의 冥福을 빌며 - (筆者 作曲家)¹²⁾

전남 보성이 고향이었던 채동선(1910. 6. 11-1953. 2. 2)은 한국양악 1세대 작곡가로 1924년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18년경 홍난파에게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1924년 본격적인 음악공부를 위해 도독(渡獨), 슈테르넨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했다. 1929년 귀국, 수차례의 바이올린독주회와 최호영·이혜구와 함께 현악4중주단을 결성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쳤다. 1937년 첫 작곡집을 출간하고 1938년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전조선창작곡 발표 대음악제>에서 「환상곡」을 발표했다. 광복 후에는 고려음악협회를 조직, 회장을 맡고 한국문필가협회 부회장, 고려작곡가협회 회장, 서울시 문화위원, 예술원 위원, 국악원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¹³⁾ 그의 이러한 음악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삶을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와 누구도 돌봄이 없이 살기 위해 한때 부두에서 그의 체력에 과중하게 육체노동을 했”고 “그의 가족이 부두에서 담배행상을 했”으며, “못먹어서 괴로웠고 괴로워서 병났고 병으로 쇠진해가는 육신을 지탱할 영양을 주급치 못”할만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토대가 빈약했던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과 함께 윤이상은 서울 성북동으로 이주한다. 양정고교 음악교사로 잠시

12) 『부산일보』 1953년 2월 11일자.

13)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378쪽.

재직하던 그는 서울대·덕성여대 강사로 일하며 독주곡·실내악곡 등의 창작은 물론, 각종 음악회를 열고 음악비평 활동을 벌이면서 한국 음악계에서 부동의 음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첼로소나타 1번」(1953), 「현악4중주 1번」(1955), 「피아노3중주곡」(1955) 등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당시 문화예술가의 최고 영예인 제5회 서울시문화상을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한 바 있다. 또 1954년에 「악계구상의 제문제」라는 평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당시 한국악단이 처한 여러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국 전통음악의 바탕 위에 세계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후에도 「화천근방」(1954), 「오늘의 세계음악」(1955), 「한국적 대중음악에 대한 고찰과 방법론」(1956), 「작곡계 발흥기에 도달하다」(1956) 등의 글을 강연회에서 발제하거나, 「문예」·「새벽」·「음악」 등을 통해 발표했다. 특히 1956년 한국작곡가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작곡 발표회를 마치고, 오화섭(당시 연세대 영문과 교수)과 벌인 음악논쟁은 한국논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6년 6월 유학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윤이상에 있어서 음악적 탐구기간이었다. 유럽음악계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는 서양음악에 한국 민족적 정서를 드러내는 기법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런 그의 연구가 결실을 맺을 무렵인 1967년,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이른바 '동백림 사건'의 주모자로 몰리게 된다.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점, 1963년 강서교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점 등이 그 이유였다. 6월 17일 그는 남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서울로 납치,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1심에서 종신형, 2·3심에서 각각 15년·10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남한 정부는 세계의 따가운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했다. 리게티·헨체·슈톡하우젠·스트라빈스키·카라얀 등 무려 161명에 달하는 세계적 예술인들은 항의서명을 남한 정부에 전달했고,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오 아라우는 서울연주회를 취소했으며, 이들은 독일 정부와 더불어 그의 석방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수감생활 중 심한 고문으로 자살을 기도한 바 있던 윤이상은 세계 각국의 전폭적인 외교적 압력과 독일 정부의 조력으로 1969년 2월 말에 마침내 서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수감 중에 작곡한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1969)은 석방 직후 「류통의 꿈」과 함께 뉘른베르크에서 초연되었다.

1970년대는 윤이상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독일 킬(Kiel) 시(市)로부터 의뢰받은 오페라 「유령의 사랑」(1970)이 70년 6월 20일 '킬의 축제주간'에 성공적으로 초연되었고, 킬 시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같은 해 6월 23일 '킬 문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또 72년에는 서 베를린 음악대학 명예교수(77년 이후 정교수가 됨)로 임명되었고, 뮌헨올림

픽 문화행사의 하나로 의뢰받은 오페라 「심청」(1972)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을 거듭으로써 그의 국제적 명성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그는 1960년대 이래 줄곧 시도해 왔던 '주요음향기법'을 더욱 다듬어 1970년대 이후 창작의 주요한 토대로 삼았다.

1976년에 그는 재독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의장을 맡았고, 1977년에는 '한국 민족통일 해외연합'의 유럽본부 의장을 맡았으며, 나아가 '조국통일 해외기독교자들의'에 참여하는 등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70년대 중반에는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 김대중 구명활동과 시인 김지하의 구명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에게는 항상 '한국', 혹은 '민주화'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다.

1982년 그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대면하게 되는데, 서로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북한에서는 윤이상 음악제를 옴으로써 그는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의 관심은 조국의 민주화에서 민족의 통일로 확대된다. 1988년에 그는 남·북 양측에 '범민족 음악회'를 제안했으나 아쉽게 무산되고 말았다. 그 대신 1990년 10월 19일 평양에서 그를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성대히 개최되었고, 그 해 12월 남한에서는 '서울 송년음악제'가 열렸을 따름이다.

이렇듯 윤이상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평화의 인류사랑을 회구한 음악가였다. 그러나 그는 망명 이후 죽는 날까지 고향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1995년 11월 3일 베를린의 발트병원에서 향년 78세로 삶을 마감했다.

2. 음악적 앙가주망과 그 편린들

음악적 앙가주망(engagement)은 음악으로써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문학에서 사르트르가 즐겨 사용한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행동이나 사회참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상황에 속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극히 윤리적인 사상이었다. 나아가 사르트르가 서서히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앙가주망의 개념도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역사적 전체성으로의 참여라는 뜻까지 갖게 되었다.

이같은 앙가주망은 윤이상의 음악에서도 보여진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사회참여에 대한 생각은 물론, 그 생각을 실천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 시대의 사회조직의 일원인 예술가는 그 민중에 대해 시대계발의 책임을 지고 있다. 무릇 예술은 어느 시대고 간에 그 시대의 산물이요, 민중은 자기세대의 감수력과 사고력을 타고 나는 것인데, 민중에게 어느 한 시대의 예술을 편식시키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한 군데 고이게 하는 것과 같이 교착과 부패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¹⁴⁾

동백림 사건으로 부당한 옥고를 치르게 된 이후 그의 시대정신은 조국의 민주화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민족정신’이라는 테제와 민주화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민족정신의 회복이라는 것이 범국가적인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¹⁵⁾ 민주화라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이상은 음악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단지 사회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을 뿐 정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실제 그는 김대중 구명운동, 남북 범민족음악회 등 많은 정치적 제안을 했지만, 작품활동 속에서는 결코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광주여 영원히」의 원제가 ‘실례’(實例, Exemplum)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단지 그 시대에 비극적인 참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을 뿐 그러한 비극에 대해 정치적인 시도나 제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작품들은 그러나 정치적인 음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내적인 신념에 음악적인 표현을 주고자 했던 것들입니다.¹⁶⁾

예술가는 그가 예술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음악은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장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작곡가는 비단 예술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세계 속의 한 인간입니다. 그는 결코 그의 세계를 무관심하게 관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인 고통, 억압, 고난과 부당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고통이 있고 부당함이 있는 곳에

14) 윤이상, 「악계구상의 제문제」, 『민족음악의 이해』, 제3호, 333쪽; 윤신형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83쪽에서 재인용.

15) 이것은 민족 이기주의나 민족 우월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민족정신은 한 민족의 뿌리(정체성)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이라 할 수 있다.

16) 윤이상의 휘빙겐대학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식 강연내용 중 일부. 이수지, 「내 남편 윤이상」, 하권, 233쪽에서 재인용.

나는 음악을 통해 더불어 얘기하고자 합니다.¹⁷⁾

윤이상은 음악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신이 당시 한국과 한민족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작품은 이를 뛰어넘어 전 세계와 그 속을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 열려 있음을 뜻한다.

그는 항상 자신은 정치를 하지 않았고 음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옥중에서 갓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창작의 펜을 놓지 않았던 그에게 있어 음악이란 결국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통로였다. 그리고 그의 음악 속에 표현된 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민족과 인류의 정신이었다.

한편 슈파러(Walter-Wolfgang Sparrer)는 윤이상의 음악활동을 세 시기로 나누어 음악적 변화를 설명한 바 있다. 유학 이후 70년대 전반의 제1기, 75년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시작으로 「광주여 영원히」까지 이어지는 제2기, 그리고 「교향곡」 제1번을 작곡한 때로부터 80년대 이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 각각의 구분점은 그의 음악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이상의 음악사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제1기의 주요 작품으로는 12음 기법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1958)과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1959)을 비롯, 관현악곡 「바라」(婆羅·1960),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착적 음향」(1961), 실내앙상블 「낙양」(洛陽·1962),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가락」(1963), 관현악을 위한 「유동」(流動·1964), 오페라 「류통의 꿈」(1965)과 「나비의 미망인」(1967/1968), 대관현악을 위한 「예악」(禮樂·1966) 등이 있다.

이 시기 창작에 있어 그의 관심은 자신의 대표적 어법이라 할 수 있는 주요음향기법(Hauptklangtechnik)¹⁸⁾의 완성과 한국 전통적 음악요소를 서양음악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있었다. 주요음향기법은 이미 12음기법을 사용한 초기작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에서부터 그 양상이 나타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착적 음향」과 「유동」에 이어 「예악」에서 비로소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도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양사상을 서양음악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음 속의 움직임'(靜中動)을 갖는 주요음향기법이며, 그것

17) 울리히 에카르트, 「나의 음악은 물결치며 흘러가야 합니다」, 『객석』 1995년 12월호 부록,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하권, 203쪽에서 재인용.

18) '주요음향기법'(Hauptklangtechnik)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각 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음렬이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음 내지 음군이 그 주변의 음들로 장식되면서 작품의 핵심을 이루게 하는 기법이다. 그는 압꾸밈음·전타음·진동·글리산도를 사용하고 음색을 변화시켜 넓게 구획된 스펙트럼을 그 때미다의 주요음들을 장식한다.

은 노자와 장자의 도교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작곡기술적으로 동아시아적 음악언어와 유럽의 아방가르드적 음악언어와의 융해과정의 핵심”이었다.¹⁹⁾

1975-76년을 고비로 윤이상의 작품세계에는 일대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백림사건’의 아픔을 극복한 윤이상은 이제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즉 작곡의 동기와 소재는 인류가 처한 보다 현실적인 것에서 찾아졌으며, 폭력과 불평등을 거부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그의 작품 속에 담게 된다. 세계의 수용자들을 향한 음악이었던 만큼 한층 쉽게 쓰려는 노력도 기울여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이상 음악의 본질적 구성법칙인 주요음향기법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이 기법은 70-80년대를 거쳐 윤이상의 마지막 작품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전의 엄격하고 복잡한 음악구조가 차츰 완화되어 그 직조과정에서 개별음들의 화성관계가 보다 부드럽고 명료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전의 정태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으로부터 벗어나 각 요소들의 과정들을 더욱 첨예하게 표출해 간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²⁰⁾

윤이상의 창작 제2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는 사회문제를 다룬 다수의 작품이 쓰여진다. 나치에 의해 처형된 시인 하우스호퍼(A. Haushofer)의 ‘모아비트 소네트’(Moabiter Sonette)에 의한 칸타타 「사선에서」(1975),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희구하는 하프와 소편성 관현악을 위한 이중협주곡 「견우와 직녀이야기」(1977), 나치에 저항한 여류시인 넬리 자흐스(Nelly Sachs)의 시를 텍스트로 한 칸타타 「밤이여 나뉘어라」(1980)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정점에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1981)가 위치한다.

칸타타 「사선에서」는 나치에 의해 감옥생활을 한 하우스호퍼가 처형을 기다리면서 썼던 텍스트인데, 그는 시로써 자살에의 충동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견뎌냈다. 그것은 독재체제 속에서 감옥생활을 했던 작곡가의 심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타악기가 중심이 된 오케스트라(잔혹한 외부세계)에도 불구하고, 솔로파트(개인)는 슬한 경악과 불안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인간의 영혼, 고문과 죽음에 직면해서도 조용한 희열에 잠길 줄 아는 인간의 영혼을 대변한다. 또 이중협주곡 「견우와 직녀이야기」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통해서 1945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상기시킴으로써 단순한 설화 이상의 것을 지향했다. 즉 하늘은 일 년에 단 하루라도 두 연인의 재회를 주선하는데, 조국의 통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이것은 여러 악장을 구성하는

19) 오희숙, 『20세기 음악 : 시화』, 172-173쪽 재인용.

20) 김용환, 『윤이상 연구』, 44-45쪽.

원리가 한 악장 속에 모여져 마치 단악장의 관현악곡인 교향시(symphony poem)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즉 1악장에 해당되는 빠른 첫 부분에 이어서 2악장과 같은 둘째 부분이 나오고, 이는 다시 하프의 카덴차를 거쳐 셋째 부분의 이중주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하다.

칸타타 「밤이여 나뉘어라」는 예술가로서의 윤이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대의 문제들을 예술 속에서 표현해 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작곡가는 1971년에 출판된 벨리 자흐스의 시집 「밤이여 나뉘어라」에서 우선 3편의 시를 골랐다. 「굳게 닫힌 이 문」에서는 파시즘적 집단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만행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불의를 고발한다. 「내 방 창밖에서」는 죽음에 의해 열려진 문 안쪽의 위안을 보여주고, 「밤이여 나뉘어라」에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과 묵시록적 미래상이 서로 중첩되고 있다. 풍부한 음색과 연주력을 요청하는 윤이상의 기악곡이 하나의 분명한 전체, 그러나 흘러가는 전체를 추구하고 있다면 벨리 자흐스의 텍스트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갑작스런 대조와 대비를 표현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80년대 윤이상의 창작 제3기는 그의 다섯 개의 교향곡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시기는 음악기법이 발전된 제1기, 음악사상이 정립된 제2기가 융합된 때로, 곧 그의 음(음악양식)과 악(음악관)이 체계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전통적 기악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향곡을 비롯한 관현악 작품에 집중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대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마침내 그의 음악적 이상을 실현시키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교향곡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작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곡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연작)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형식의 토대에 작곡되었지만, 이들 모두는 인류에게 보내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1번(1982/83)은 원자폭탄에 의한 파괴에 대한 강력한 경고, 제2번(1984)에서는 모든 인류적 문제를 외부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세계 속의 '나'에게로 관심을 돌리며, 제3번(1985)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경고한다. 그리고 제4번(1986) 「어둠속에서 노래하다」에서는 작곡가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동양의 모든 불행한 여인을 위해 썼으며, 전 5악장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제5번(1987)에서는 과거사를 극복함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모색하고자 한다.²¹⁾

21) 김용환, 『윤이상 연구』, 46쪽.

IV. 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

1. 「광주여 영원히」에 나타난 음악어법과 악기편성

1950년대 후반 유럽의 작곡가들은 음악표현의 다양성을 위하여 이국적인, 특히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에 눈을 돌리게 된다. 메시앙과 슈톡하우젠은 인도의 전통적인 리듬과 형식에서 영향을 받았고, 케이지는 주역사상에서 음악적 아이디어를 모색했으며, 펠트만은 명상음악을 자신의 음악에 차용하였다. 그리고 쇤베르크 이후 풍미하던 음렬음악이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작곡과정의 부차적 영역이었던 '음색'과 '음향'이 창작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윤이상은 음향구성에 있어서 항상 개별음(주요음)을 고려한다. 동아시아의 헤테로포니의 원칙 아래 개별음의 움직임은 피함으로써 음향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의 음악은 동시성(同時的)이면서도 다성적(多聲的)인 성격을 드러낸다. 리게티의 경우 개별음에 대해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상이한 밀도와 구조를 지닌 개별음들로 음악적인 짜임새를 구성하였으며, 펜데르츠키는 개별음을 잡음에 가까운 음다발 형성의 구성인자 정도로 이해했다. 이것은 윤이상의 '음향'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윤이상은 내부적 움직임으로 가득한 음 복합체(Tonkomplex)에 중심을 두었고, 이 속에 내재된 핵심(주요음)을 멜리스마적(melismatic) 장식음 운동을 통해서 변화와 변조를 꾀한다. 음 복합체를 기초로 작곡하는 그의 방식은 한국의 전통음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악기들이 고정된 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음이 장식을 동반하면서 울린다(헤테로포니). 그 중심음은 4도에 이르는 폭넓은 비브라토(vibrato, 본래의 음높이를 약간씩 변화시켜 풍부한 느낌이 들도록 음을 떠는 것), 15종류가 넘는 다양한 방식의 글리산도(glissando,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두 음 사이를 연주하는 것), 크고 작은 음고운동, 음색과 음의 섞여림에서 나타나는 농담효과 등에 의해서 살아 움직인다. 이러한 음 개념을 작곡가 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럽음악에서 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음과 연결되어 이어짐으로써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비교적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 우리네 개별음은 그 자체가 이미 살아 있는 음이다. 우리의 음들은 붓을 가지고 그 선으로서, 소묘연필로 그 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모든 음은 시작부터 사라질 때까지 변화를 거듭하게 되며, 장식음·앞꾸밈음·진동·글리

산도·음량의 변화를 망라하는데, 무엇보다도 각 음의 비브라토가 형상화의 수단으로서 의 식적으로 사용된다. 하나의 음에 있어 음고가 변화하게 될 때 이 변화는 선율을 형성하는 음정으로 보이기보다는 장식기능으로, 그리고 같은 음의 부분들로 파악된다.²²⁾

이것은 작곡가가 음악의 선율적 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화성이나 형식구성적 측면은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보이게 한다.

윤이상은 이러한 독특한 작곡방식을 토대를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철학적 가르침인 노장사상의 본질적 요소가 실현된 것이라고 한다. 즉 윤이상 음악의 핵심을 나타내는 개별음(주요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도교적 의미의 유전과정이라 할 수 있는 변화원칙에 따르며, 여기에서는 음과 양이라는 두 근본원리가 대립하면서 상호 보충물로서 공동 작용한다는 것이다.²³⁾

『광주여 영원히』에서 윤이상은 앞서 자신의 고유한 작곡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악기편성은 목관과 금관을 비롯한 현악기, 그리고 다채로운 타악기군(특히 강하면서도 밝은 글로켄슈필과 실로폰)의 음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욱이 소악구들의 클라이막스와 주요음(개별음)들이 하나의 작은 음향을 만들고, 이들이 모여서 큰 음향을 이룬다. 다음은 이 작품에 사용된 악기편성이다.

목관악기군 : 플루트3(피콜로1), 오보에3, 클라리넷3, 파곳3.

금관악기군 : 호른4, 트럼펫4, 트롬본3, 튜바1.

타악기군 : 팀파니2(스틱의 소재는 목관이 아닌 단단한 것)

타악기 1 : 실로폰, 마라카스2, 탬탐(음고가 다름), 기로, 트라이앵글2, 라세, 박.

타악기 2 : 글로켄슈필, 심벌즈, 큰북, 마라카스2, 탬버린, 작은북(올림줄 제거).

타악기 3 : 탬탐5, 심벌즈5, 템플블록5, 우드블록5, 박, 라세, 작은북(올림줄 제거), 방울.

현악기군 :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목관과 금관악기를 대거 사용한 것은 이 작품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 나아가 섬여림을 이끌어내는 각종 타악기는 악곡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부여한다. 다만 이들이 단지 큰 소리

22) 최성만·홍은미 편역, 『윤이상의 음악세계』, 295-296쪽 재인용.

23) 김용환, 『윤이상 연구』, 38쪽 재인용.

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작곡가는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²⁴⁾ 목관·금관악기와 현악기의 대비는 군부세력과 이에 맞서는 민중들을 형상화하며, 타악기는 그 흐름을 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통 타악기 박(拍)은 악곡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2. 「광주여 영원히」의 음악적 분석

1) 작품의 대강²⁵⁾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Exemplum in memoriam Kwangju*)는 단악장으로 이루어진 표제 교향시이다. 그러나 음악내적인 구조를 볼 때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 성	마 디	템 포	의 미
제1부	1-110 마디	J=60, 66, 60, 66, 72	항쟁과 군부의 학살
제2부	111-170마디	J=46, 56, 60	경악과 비탄의 통곡
제3부	171-269마디	J=82, 88, 92	정의를 위한 투쟁

제1부는 군부의 학살과 그에 맞서는 민중의 항거가 음악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입부인 제1부는 1-110마디까지이다. 이는 다시 1-46마디까지의 첫 부분과 47-110마디까지의 둘째 부분으로 세분된다.

〈악보 1〉 제1부 시작부분(1-5마디)

제1부의 첫 부분(1-46마디)은 작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역동적인 성격을 갖는 6마디로 시작된다.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어 G음에서 g^3 에 이르기까지 짧은 G음을 *fff*로 연주한다. 이것은 힘과 결단성을 상징한다. 그러던 것이 6마디 총주의 금관파트가 반음계적 하행선율을 보이고, 이어 7마디에서 반음계적 상행선율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구분되지 않았던 파트가 여기서 분리되기 시작한다. 금관악기 파트는 주로 군부세력을, 목관악기 및 현악기 파트

24) "타악기 연주자들은 가능한 맨 뒤에 위치한다. 다이내믹은 연주장에 적합하도록 하고, 극적이어서는 안된다." 최성만·홍은미 편역, 『윤이상의 음악세계』, 439쪽.

25) 이 부분은 정유하의 '5·18 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양식', '5·18 민중항쟁과 문학 예술', 489-494쪽을 참고, 인용했음을 밝힌다.

는 민중을 각각 상징한다. 14마디에서는 금관파트(군부세력)의 제압에도 불구하고, 현악파트(민중)의 *fff*는 15마디 목관파트(*ff*)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강렬한 역동성을 자아낸다.

EXEMPLUM in memoriam Kwanju

Isang Yun (1981)

그러나 상행하는 24마디 금관파트의 강력한 진압에 현악파트의 움직임이 차츰 약화되고, 31마디에 이르러 현악파트는 다시 목관파트와 공조하면서 역동성을 회복한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악기군을 상호 대비시킨 것은 군부세력과 민중이라는 두 대상의 대립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ffff*와 *crescendo*, *decrescendo*와 같은 셈여림 효과는 두 대상이 벌이는 투쟁의 양상과 그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81마디에서는 현악파트가 *fff*와 *ffff*의 밀도있는 셈여림으로 강렬한 저항을 묘사한다. 그런 가운데 84마디에서 목관파트의 스타카토는 마침내 총소리를 예고하고, 이어 대립되는 두 대상은 본격적인 전투를 벌인다. 95-108마디에서 세 차례의 혼란스런 총주가 군부세력과 민중의 격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잦은 트레몰로(*tremolo*, 같은 음이나 3도 이상의 음을 빠르게 반복시키는 것)가 나타나는 *f*에서 *ffff*에 이르기까지의 강렬하면서 지속적인 악상의 세기는 트릴(*trill*, 2도의 음을 빠르게 교대로 반복시키는 것)과 글리산도가 사용되면서 차츰 둔화된다. 특히 107마디에서의 하행선율은 109마디의 현악파트에 이르러서 점차 느리게 진행되고, 매우 여린 셈여림(*ppp*)에 음정도 최저음까지 떨어진다. 이것은 군부세력의 무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민중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박이 장면을 전환시킨다.

제2부는 제1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느린 악곡진행은 사뭇 감성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며, 활동력을 빼앗긴 공포감·경악 등의 감정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죽음의 정적, 묘지의 고요, 무감각 상태와 긴장의 이완, 삼키는 듯한 슬픔이 묘사된다.

〈악보 2〉 제2부 시작부분(111-115마디)

111마디부터 현악파트에서는 저음부를 담당하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줄곧 지속음을 유지한다. 콘트라베이스가 A음을 제시하고 나면 첼로가 F[♯]음을 첨가한다. 뒤이어 금관 및 현악기군도 마찬가지로 저음부 악기들이 이따금 지속음을 유지한다. 이들은 시종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것은 민중의 절망과 슬픔, 고통 따위의 감정을 드러내려 한 듯하다. 또한 123마디에서 탐탐이 트릴로 연주됨으로써 마치 장례를 위한 종소리를 연상시키게 한다.

그러던 것이 141마디부터는 현악파트가 트레몰로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그것은 151마디에 이르러 현악파트와 플루트·클라리넷·파곳 등 목관파트에서 3도, 5도는 물론, 7도까지의 폭넓은 도약진행을 보인다. 그러나 161마디에서 현악파트가 지속적인 트릴로 느리게 진행하면서 마침내 슬픔에 대한 여운을 남기며 2부를 끝맺는다.

제3부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트럼펫의 힘찬 팡파레로 시작된다. 4개의 트럼펫이 각각의 음에 액센트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구가한다. 나아가 그것은 민중항쟁의 승리

를 위한 이상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ca. 46

Fl. 1. 2. 3.
Cl. 1. 2. 3.
Trp. 1. 2. 3. 4.
Tbn. 1. 2. 3.
Cym.
Vio I.
Vio II.
Vla.
Cel.
Cb.

con sord
ppp
pppp
con sord
ppp
pppp
tam-tam
pppp
pppp
pppp
pppp
pp
ppp
ppp
pppp

p ppp
pp pppp
ppp pppp

〈악보 3〉 제3부 시작부분(171-176마디)

전 3부 가운데 가장 짧은 제3부는 느린 지속음의 사용으로 큰 변화가 없던 2부에 비해 점차 템포가 빨라진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제1부의 재현으로 보여진다. 171마디부터 187마디까지는 마치 제3부의 서주같은 뉘앙스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다른 동기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 188마디에서는 현악파트가 피지카토와 아르페지오의 *fff*로 시작되고, 이후 리듬의 변화와 강렬한 셈여림이 두드러진

다. 그것은 민중의 단합과 단호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따금 금관악기 파트의 제압으로 현악파트가 잠깐동안 멈칫거리기도 하지만, 행진하는 듯한 일관된 리듬으로 줄곧 행동의 일체감을 유지하고 있다. 트릴과 글리산도, 트레몰로 등 연주기법의 활용, *fff*에서 *ffff*에 이르는 다양한 셈여림으로 힘찬 행진의 모습을 묘사하던 음악은 마침내 팀파니의 강렬한 울림과 더불어 대미를 장식한다.

따라서 윤이상의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이 세계의 자유·민주·평화의 표본임을 강조한 음악적 기록이라 할 수 있다.

4/4 ca. 82

171

The score is arranged in systems. The top system includes strings (Violins 1 & 2, Violas, Cellos, Double Basses) and woodwinds (Flutes, Clarinets, Bassoons). The second system includes brass (Trumpets 1 & 2, Trombones 1 & 2) and percussion (Tom-Toms, Snare, Cymbals). The third system includes a Saxophone section. The score is marked with various dynamics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2) 음악적 내용²⁶⁾

(1) 제1부

제1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악구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첫째 악구(1-46마디)는 서주부에 해당되며, 악곡을 이루는 음악적 재료를 제시하고 있다.

1-6마디(6/4, 5/4) : 개별음 가운데 주요음인 G음이 전 음역에 걸쳐 유니즌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음향 덩어리로 전체를 강조한다. 전체의 음향 덩어리는 점점 더해지는 리듬으로 인해 긴장되고 밀집되다가 6마디에서 타악기의 트릴로 발전된다. 그러나 G음의 지속은 6마디 현악파트(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에서 'E^b-D-D^b-C-B' 음으로 반음씩 하행한다. 이것은 반음계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음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전체적인 움직임 안에서 헤테로포니적인 확대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fff*에서 *ffff*로 셈여림의 흐름과 팀파니에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의 셈여림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5-6마디의 리듬은 악곡 전체를 대표하는 리듬구조를 가지며, 이것은 15-22마디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지속된다. 그리고 6마디 금관파트에서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7마디에서는 상행하는 대비적 선율구조를 보인다.

7-14마디(5/4, 6/4) : 7마디부터는 6마디의 하행과 반대로 현악파트의 'G-B^b-A^b-G' 음이 지속됨으로써 패시지가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지속음에 대비된 금관파트의 리듬변화와 장·단3도의 음정이 목관파트에서 두드러진다.

15-22마디(4/4, 5/4) : 6마디의 리듬형태가 약간 변화된 16-17마디에서는 타악기의 잇갈리는 리듬과 겹쳐지면서 증폭된다. 이 리듬은 15마디부터 발전되어 22마디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15마디부터 서서히 화음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목관(파곳)과 금관(호른)에서는 2도의 빠른 반복과 부가화음의 사용, 현악파트에서는 여섯 잇단음표의 빠른 진행속에 이어지는 단2도·단3도의 글리산도가 보인다. 그리고 팀파니에서 4도 구성과 5도 구성의 화음, 트롬본의 6도화음도 나타난다. 이들은 복합적인 화음구조와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악곡 전체의 지배적인 화음형태를 이룬다.

23-29마디(5/4) : 리듬형태의 반복이라는 개념에서 23마디의 지속음과 그 정지상태는 앞서 7마디와 흡사하다. 4옥타브의 음역과 목관악기의 마지막 음들이 지속음으로 남아 있는 23마디는 특히 팀파니가 A음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이상에 대한 갈망이라는 의미를 들 수 있으며, 이때 A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요음 역할을 한다. 바로 이어서 트롬본과 튜바가

26) 작품분석에 활용된 악보는 다음과 같다. Isang Yun, *Exemplum in memoriam Kwangju*, Berlin: BOTE&BOCK, 1981.

연주되고, 현악파트에서도 트릴과 글리산도로 G[#]과 B음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 역시 6마디의 셋잇단음과 9마디의 32분음표 등 리듬의 반복과 발전형태를 보인다.

30-46마디(4/4, 5/4, 4/4) : 30마디에서 셋잇단음의 음형을 시작으로 발전한다. 여기서는 폭넓은 음역이 사용됨으로써 매우 급격한 변화를 느끼게 한다. 고음과 저음의 급격한 전환에서 일어나는 음향의 파동은 군부세력의 폭력에 대한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제1부 첫 부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같은 리듬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리듬은 일정한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피하며, 리듬의 변화는 여러 다른 악기와 겹쳐서 진행시킨다. 그리고 짧은 리듬 속에서 극단적인 셈여림과 음역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긴장감과 격렬한 투쟁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아울러 각 악기군 간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이같은 긴장감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같은 음의 연속과 같은 리듬의 반복은 자칫 지루하고 단조로워지기 쉽다. 그러나 윤이상은 셈여림의 변화, 트릴·트레몰로·글리산도 등의 연주기법을 통해서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43마디에서 46마디까지는 앞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1부의 둘째 부분을 맞는다.

제1부 둘째 부분(47-110마디)에서는 제시된 음악적 재료들이 보다 확장되면서 군부세력과 민중 간의 갈등이 극대화된다. 마침내 첨예한 갈등이 폭발하고, 투쟁상황이 세 개의 큰 파고로 그려진다. 그리고 악곡은 아비규환 상태에 이르게 된다.

47-51마디(5/4) : 시작하는 G음은 도입부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리듬은 반대로 지속적이다. 그리고 롬바르디아 리듬(lombardicstyle, 짧은 첫 번째 음과 보다 긴 두 번째 음이 결합된 리듬, 예컨대 ♩ ♩와 같은 1:3의 리듬), 늘임표·트릴·셈여림 등의 사용을 통해 긴장감을 더한다.

〈악보 4〉 다양한 기법과 셈여림(47-49마디)

첫 부분과 같이 계속해서 중심음 G음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속성 속에는 트레몰로의 사용으로 음향적인 새로움을 드러낸다. G음의 반복 사용은 결연한 의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거기에 목관과 현악파트가 한결같이 높은 음을 사용한 것은 음향의 색채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한편 템포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51마디의 목관파트가 반음계적 선율진행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역시 음악적 색채감과 관련된다.

52-62마디(4/4, 6/4, 4/4, 5/4) : 51마디의 하행하는 목관파트의 리듬과 52마디의 상행하는 금관파트의 리듬은 이질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목관파트에 대비되는 금관 및 현

악파트의 반진행을 보여주기도 한다. 52마디의 현악파트는 각기 다른 리듬으로 되어 있지만, 제1·제2바이올린은 같은 리듬의 형태를 취한다. 53마디에서는 목관파트의 하행선율에 이은 금관파트의 지속음과 분산화음 형태의 현악파트가 연결되듯 진행된다. 이때 현악파트와 팀파니가 롬바르디아 리듬의 형태를 보인다. 이후 62마디까지는 목관과 현악의 두 파트

가 주고 받는 형식의 고전적인 대화어법으로 이어가지만, 그 진행방식은 같지 않다. 집단적인 현악기군이 아래에서 위로 상행하는 반면, 목관악기군은 위에서 아래로 하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저항과 지배를 연상케 한다.

63-80마디(5/4, 4/4, 5/4, 6/4) : F[#]음으로 동시에 시작된 현악파트는 3, 4, 5도의 음정들이 동행 진행하면서 한 옥타브 위의 음에까지 도달한다. 이때 관악파트는 짧은 리듬과 지속음의 형태를 반복하고, 목관파트는 70마디에서 급작스런 트레몰로로 잠깐 도약한 다음, 지속음을 낸다. 이 지속음은 76마디의 금관파트에서의 트릴과 타악기의 트레몰로로 어느 정도 유지된다. 77마디부터 79마디까지는 현악과 목관파트가 다시 대화형식을 이어가는데, 이때는 앞서 62마디에서와는 달리, 두 파트 모두 해방을 상징하는 상행선율로 주고 받는다. 80마디는 금관파트와 타악기가 지속음으로 화음을 연주한다.

81-110마디(4/4, 5/4, 6/4, 5/4, 4/4) : 1부의 마지막 단락인 이 부분에서 윤이상은 집단적인 악기군의 쓰임새와 두터운 악기편성, 드라마틱한 요소의 사용, 공간의 확대를 통해 다시금 투쟁의 장면을 묘사한다. 대립과 충돌이 세부적으로 그려지며, 각 악기군은 유사한 리듬형태로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89마디부터 110마디까지는 실재없는 리듬과 선율이 지속된다(특히 목관파트). 그것은 *ff*에서 *ffff*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셈여림으로 아수라장과 아비규환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97마디부터 나오는 박은 장면이 전환되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한다.

〈악보 5〉 셈여림의 대비(108-110마디)

제1부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그 변화는 한층 폭넓어진 음역(자유로운 상·하행의 선율진행)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악곡 전반에 걸쳐진 그 전개 과정에서도 찾아진다. 점차 격렬해지는 각 악기군의 집단적이고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악기인 박의 사용은 1부의 종말을 예고한다. 끝부분 109-110마디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셈여림, 목관과 금관파트의 이어지는 지속음과 늘어진 휴지부는 고요한 제2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행한다.

(2) 제2부

제2부(111-170마디)에서는 죽음 뒤의 정적, 고요와 무감각한 현실이 그려진다.

111-124마디(6/4) : 콘트라베이스의 A음과 첼로의 F[#]음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다가 115마디부터는 줄곧 지속음으로 병진행한다. 그것은 매우 여린 진행(*p*-*ppppp*)을 보여준다. 그러던 것이 124마디에 이르면, 현악파트 저음부(첼로·콘트라베이스)에서 롬바르디아 리듬이 간

100

The image shows a page of a musical score, page 100. It features a dense arrangement of instruments including strings, woodwinds, brass, and percussion. The score is written in a complex, rhythmic style with many notes and rests across multiple staves. The instruments listed on the left include Flute (Fl.), Oboe (Ob.), Clarinet (Cl.), Bassoon (Fg.), Trumpet (Tr.), Trombone (Tbn.), Horn (Hr.), Violin (Vln.), Viola (Vla.), Cello (Vcl.), Double Bass (Cb.), Percussion (Perc.), and various other instruments like Piccolo (Pic.), Harp (Harp.), and Mallets (Mallets). The score is divided into measures, with a double bar line visible in the middl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musical symbols such as clefs, time signatures, and dynamic markings.

간이 나와 이따금 긴장감과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 여기서 악곡의 움직임 정도는 2분음표를 기본박 단위로 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변동이 없이 한결음씩 내딛는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악의 화성과 탐탐의 타주는 마치 장례의 종소리처럼 들린다.²⁷⁾

125-140마디(6/4) : 125마디부터는 목관파트의 플루트가 1/4의 미분음과 글리산도를 동시에 사용하고, 현악의 저음부 파트에서는 반음 글리산도가 사용된다. 127마디의 플루트와 클라리넷은 단3도, 단2도에 가까운 음정관계가 유지된다. 슈파르(W. W. Sparrer)에 따르면, 느린 중간부분(111-140마디)은 '대학살 후의 영령과도 같은 정적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악구 정도의 마비상태를 지나 금관과 팀파니의 신호로 절정을 이루면서 잠이 깬다.'²⁷⁾

141-150마디(5/4) : 현악파트가 지배적인 움직임 보이는 141-148마디는 두 옥타브 내에서 3도에서 5도의 음정간격으로 선율이 상향 진행한다. 바이올린·비올라·첼로가 트레몰로로 연주하는 동안 콘트라베이스는 트릴과 트레몰로로 연주된다. 그러나 썸머림은 시종 매우 어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것은 149마디 파곳을 비롯한 금관파트의 전 악기와 팀파니·기로·마라카스 등의 타악기가 등장하면서 강렬한 역동성을 드러낸다. 군부세력의 권력을 상징한다.

151-170마디(5/4) : 156마디부터 팀파니에서는 8분음표의 당김음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리듬은 제3부의 주요 리듬이 된다. 현악기의 지속음, 썸머림의 변화가 특징적이며, 어조가 점차 높아지다가 160마디 팀파니의 리듬이 변화되면서 절정을 이룬다. 161마디부터는 다시 어린 패시지로 전환됨으로써 차츰 클라이맥스가 하강하는 국면을 맞는다. 이것은 제3부 이어지는 희망과 승리에 대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느린 제2부에서도 제1부의 주요 기법들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 대체로 비탄에 잠긴 애도의 모습들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흐느끼듯 표현된다. A음의 화성적인 구조를 드러내며, 느린 진행 속에서도 극한의 슬픔에 젖게 하는 비브라토의 사용과 썸머림이 주를 이룬다. 율이는 그런 모습을 현악파트에서 A, C, E, G음(마치 단조인 a⁷)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pppp*의 고요함으로 제2부의 마지막인 170마디를 장식하고 있다. 현악파트의 화음은 트릴로 길게 끌므로써 오랜 여운을 남긴다.

(3) 제3부

트럼펫의 힘찬 팡파레로 시작되는 제3부(171-269마디)는 지속적인 투쟁과 민중항쟁의 승리를 기원한다.

171-187마디(4/4) : 제3부의 서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관악기(트럼펫)와 타악기(탐탐)가 룡가(Lunga, 늘임표를 좀더 길게 연장함)로 엄숙하게 연주한 후 그밖의 타악기와 관악기

27) 홍은미 옮김(H. W. Heister), "구체성", 『윤이상의 음악세계』, 446쪽.

28) 홍은미 옮김(H. W. Heister), "집단성과 구체성", 『윤이상의 음악세계』, 447쪽.

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제시부에서 불분명했던 팡파레가 여기서는 뚜렷한 윤곽을 드러낸다. 그것은 비록 정의와 평화의 새날이 오지 않았지만, 훗날 언젠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두들 이 과정에 참여하고 일어설 것을 호소하는 듯이 보인다.²⁹⁾ 한편 폴리포니적인 서법이 헤테로포니(heterophony, 하나의 선율을 즉흥적으로 다른 음높이로 연주하는 것)적인 어법과 결합되면서 변화무쌍한 흐름이 줄곧 지속된다. 군부세력이 승리를 자축하듯 진행되던 음악은, 그러나 186마디에 이르러 곧 멈춘다.

188-208마디(4/4) : 188마디부터는 당당한 행진에 따라 취주가 시작된다. 현악파트는 일정한 화음을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다가 E와 A음으로 된 화음을 규칙적인 피치카토로 연주한다. 188-193마디에서는 타악파트와 관악파트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준다. 관악파트의 상행 선율과 현악파트의 행진은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하나의 통일감을 이룬다. 현악파트의 저음 악기(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201마디부터 지속적인 행진을 하는 가운데, 고음악기(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당김음을 지속함으로써 현악파트의 엇갈린 리듬진행을 보여준다. 이러한 엇박리듬은 204마디에서부터 파곳으로 전이되는데, 앞선 203마디부터 목관파트(오보에와 클라리넷)이 6잇단음표의 빠른 패시지를 지속적으로 연주한다.

208-238마디(4/4) : 목관파트의 선율이 주로 저음에서 고음으로 도약하며, 금관파트는 트릴을 사용하면서 각 악기들의 화음을 이룬다. 209마디부터 현악파트는 다시 아르페지오로 된 4중음의 행진으로 규칙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며 진행된다. 이때 타악기는 앞서 나왔던 현악파트의 당김음 리듬을 그대로, 혹은 두 배로 확대시켜 재현한다. 213-214마디에서 현악파트는 자유로운 상행과 하행을 한 차례 시도하고, 다시 215마디부터 아르페지오로 된 화음의 행진이 계속된다. 이때부터 앞선 리듬의 통일감이 확연히 드러난다. 목관파트에 이어 타악파트와 금관파트가 각각 일정한 리듬의 통일감을 가지고 행진을 지속한다. 각각의 악기군이 갖는 통일감은 차츰 전체의 집단성과 맞물리면서 오케스트라의 짙은 총주로 확대된다.

239-269마디 : 239마디부터는 여러 다양한 기법들이 모두 쓰이고 있다. 개별음의 사용보다는 그 음에 트릴, 트레몰로, 글리산도 등의 아티클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음향언어로서의 음 조직을 생성시킨다. 더 빨라진 속도(J=92)와 *fff*-*ffff*같이 극도의 셈여림을 유지하며, 264마디부터는 파곳·트럼펫·트롬본·튜바의 길게 끄는 음들이 지속된다. 이제 트릴과 트레몰로의 행진은 극에 달해 한 번의 쉽도 없이 종지까지 치달는다.

29) 홍은미 옮김(H. W. Heister), "집단성과 구체성", 『윤이상 음악세계』, 454쪽.

제1부의 마지막을 연상케 하듯 제3부의 끝도 비슷한 느낌을 부여한다. 그러나 3부는 재현의 차원에서 1부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결연한 현악파트의 행진에 대한 표현은 1부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특히 목관과 현악파트에서 지속되는 트릴과 트레몰로의 아티클레이션, *f*에서 *ffff*에 이르는 강렬한 셈여림은 자유와 평화에의 열망을 증폭시킨다.

V. 끝말

이 연구는 5·18 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를 시도한 윤이상의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를 분석한 것이다.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 이것은 광주항쟁과 그 의미, 윤이상의 음악과 앙가주망, 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 등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첫째 '광주항쟁과 그 의미'에서는 광주항쟁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을 살피고, 그것이 세계 인류사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여기서는 광주항쟁이 70년대 말 박정희 유신정권의 붕괴와 이후 신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의 무력 앞에서 수 천 여명의 부상자와 수 백 여명의 사상자가 속출했음을 살폈다. 그러나 그것은 암울한 시대의 민중적 저항운동으로서 불의에의 항거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 한 참여 민주주의의 표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둘째 '윤이상의 음악과 앙가주망'에서는 음악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지향했던 윤이상의 삶과 음악관,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창작된 음악의 대강을 기술했다. 여기서는 '민족'에 국한되었던 그의 음악적 현실참여 정신이 동백림 사건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애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잖은 수의 창작음악을 남기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 '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는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에 대한 음악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이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서는 작품에 나타난 윤이상의 음악어법과 악기편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군부에 맞서는 민중의 항거, 무력에 의한 민중의 죽음, 승리를 위한 희망과 이상 등 항쟁의 주요 전개과정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여기서는 작품의 각 부분에 적용된 음악양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윤이상은 「광주여 영원히」에 나타난 주된 양식으로는 주요음향기법·아티클레이션·셈여림 등이 있다.

주요음향기법은 하나하나의 음이나 음군이 그 주변의 음들로 장식되면서 작품의 핵심을 이루는 기법인데, 그것은 앞꾸밈음·전타음·글리산도 등이 사용되면서 주요음을 장식한다.

가령 시작부분(1-6마디)에 전 음역에 걸쳐 모든 악기가 G음의 유니즌으로 강조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음향 덩어리를 형성함으로써 전체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주요음 이외에도 트릴·트레몰로·셈여림 등의 잦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음향을 창출해 낸다. 또한 35-38마디에서는 급격한 음역이동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림으로써 발생하는 음향의 파동을 주요음향기법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윤이상은 또한 이 작품에서 다양한 아티클레이션을 즐겨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롬바르디아 리듬, 연속되는 당김음 등을 통해 더욱 강렬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트릴·글리산도·트레몰로와 1/4의 미분음을 사용함으로써 주요음을 강조한다. 특히 239마디부터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기법들이 모두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음보다 음향언어로서의 음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작품에서는 잦은 셈여림과 그것의 급진적 변화가 자주 나타난다. 예컨대 108마디의 관악기군과 타악기군이 *fff*에서 *ffff*까지 커지면서 절정을 이루며, 110마디 이후에서는 리타르단도와 늘임표를 통해 *pp*와 *pppppp*까지 셈여림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38-240마디에서도 *ffff*에서 *fffff*처럼 극도의 세기로 강화되기도 한다.

이같은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는 그의 말처럼 광주항쟁에 대한 “자신의 내적 신념에 음악적 표현을 부여하고자 한 시도의 소산”³⁰⁾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음악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고발하는 참여음악의 한 모델임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나치의 만행을 규탄한 쇤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나 왼쪽 희생자를 추모한 펜데레츠키의 「히로시마의 희생자들에게」 등과 비견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예술작품과 사회적·정치적인 사건이 결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를 통해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이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셋째 「광주여 영원히」를 통해서 세계 속에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그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로 말미암아 광주항쟁,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음악학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0) 최성만·홍은미 옮김, 『윤이상의 음악세계』, 51쪽.

| 참고 문헌 |

〈단행본〉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 연구의 현황』, 제1권(광주: 5·18기념재단, 2006)

김용환, 『윤이상 연구』 (서울: 한국예종 한국예술연구소, 1997)

민족음악학회 편역(H. Bergmeier), 『윤이상』 (부산: 세종출판사, 1992)

윤신향,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서울: 한길사, 2005)

윤이상, 『상처 입은 용: 윤이상·루이제 린저의 대화』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오희숙, 『20세기 음악: 시학』 (서울: 심설당, 2004), 172-173쪽.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하권(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최성만·홍은미 편, 『윤이상의 음악세계』 (서울: 한길사, 1991)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작곡가사전』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1995)

한국정치학회,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세계사적 의의』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0)

〈논문〉

김민자, “고등학교 현대음악 학습방안에 대한 연구: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를 중심으로”(서울: 중앙대 석사논문, 2002)

김수진, “윤이상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정치적 요소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 석사논문, 2003)

김은영, “윤이상의 ‘주요음기법’ 에 나타난 전통음악의 정신”(서울: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김정연, “윤이상 작품에 나타난 한국적 요소의 현대적 표현과 기법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 석사논문, 2000)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5·18 민중항쟁사』 (광주: 고령, 2001)

손지원, “윤이상 작품에 나타난 한국적 Idiom의 분석 고찰”(서울: 서울대 석사논문, 1984)

윤신향, “윤이상의 대관현악곡 [예약]: ‘제3의 공간’ 의 음향언어”, 『음악과 민족』, 제26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3)

윤신향, “윤이상의 목소리·기타·타악기를 위한 가곡”, 『음악과 민족』, 제24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2)

이미경, “윤이상의 음악사상”, 『음악과 민족』, 제22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1)

이혜영,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분석”(전남: 전남대 석사논문, 2001)

정유하, “5·18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 양식”, 『음악과 민족』, 제26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3)

최애경, “윤이상 교향곡의 형상화 원칙에 관하여”, 『음악과 민족』, 제27호(부산: 민족음악학회, 2004)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광철(한신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 교수)

I. 머리말

5·18 광주민중항쟁은 한국인의 자주 정신과 민주 의지를 전(全)세계에 천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명명(命名)하는 용어는 다양하며, 각각의 용어는 나름의 ‘관점’을 반영한다. ‘광주민중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이란 용어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5·18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관점 정립과 관련해서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즉 ‘5·18 영화’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영화이며, 분석 텍스트로서의 영화에서 ‘5·18’이 다루어지는 맥락이 주로 ‘민중항쟁’의 과정과 항쟁 이후의 민중들의 삶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자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작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왔다. 최근 5·18기념재단에 의해 집대성된 연구 목록집을 보더라도, 다양한 영역과 시각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법학, 문학·예술(미술, 영상, 음악), 심리학, 신문방송학, 여성학, 종교 등 분야별로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제1권), 1980~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시대별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제2권), 이를 종합한 학술자료 목록집을 발간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입문하려는 이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제3권).¹⁾ 이러한 시도의 주축을 형성하는 것은 학술연구와 기초자료 정리 등 이 분야 학문의 토대 구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학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져 왔다. 이른바 ‘5·18 문학’이 그러한 시도를 대변하는 것일 것이다.²⁾ 실제로 5·18

문학은 이미 하나의 장르를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 또한 상당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5·18 문학은 또한 그것 자체로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의 중요한 영역을 구축하기도 하여, 현재 5·18 문학 연구는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 5·18 미술과 음악, 그리고 공연 예술도 점점 중요성을 더 해 가고 있다.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5·18 정신 형상화는 영화 영역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아직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5·18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영화는 일차적으로 그림 이미지이기 때문에, 억눌린 이야기 혹은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하곤 한다. 나아가, 영화는 이야기를 머금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때때로 텍스트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사회주의권에서 영화예술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5·18 영화의 경우에도 공개적 논의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영상적 재현을 시도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성찰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자연히, 초기 5·18 영화의 흐름을 주도하였던 것은 독립영화 계열이었다. 실제로, 한국 독립영화가 스스로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에 광주민중항쟁 및 광주정신의 영상화가 중요한 동력을 이루었다. 후술하게 되겠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이전에 독립영화 진영은 광주민중항쟁 및 광주정신의 영상화를 꾸준히 시도하였다. 5·18 광주민중항쟁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부터 5·18 영화의 흐름은 독립영화 진영으로부터 상업영화권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의 공식화로 인하여 광주민중항쟁은 단순히 '알리기'의 차원을 넘어서, 대중적 의의의 성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역사 알리기를 통한 영상적 재구성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상적 해석이 시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5·18 영화가 다큐멘터리의 그늘을 벗어나 대중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상업영화가운데 몇몇 작품은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영화는 대중(大衆)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예술로서의 속성을 강하게 지닌다. 영화는 그 이미지와 메시지의 강렬함을 통하여 대중들의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대중들이 영화문화의 변화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영화는 또한 이야기를 머금은 이미지라는 점에서 텍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문화간(間) 소통

1) 5·18기념재단 편, 『5·18 민중항쟁의 연구 현황』1~3, 도서출판 심미안, 2006.

2)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5·18기념재단 편,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학술논문집)』, 도서출판 심미안, 2006.

성이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한다. 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대중적 파급력과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성을 전제한다면, 5·18 영화가 광주정신의 형상화 및 구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최근,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5·18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서게 된 것도 이러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기희시대』는 2007년 3월 개봉을 목표로 5·18 영화 <화려한 휴가>(가제)를 제작 중에 있는데, 광주시는 이 영화 제작 과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³⁾ <목포는 항구다>로 2004년 일본 '유바리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김지훈 감독이 <화려한 휴가>의 메가폰을 잡았다. 광주시는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에 금남로를 재현할 1만 4천 평의 촬영세트장 부지를 알선하고 촬영시설, 항공 촬영 헬기, 컴퓨터 그래픽 제작 등을 지원하는 등, 영화 <화려한 휴가>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의 관심은 5·18 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중요성의 파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5·18 영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5·18 영화의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종국적으로 광주정신 구현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설정하고,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5·18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한 '정신'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룰 것이다. 이는 5·18 영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콘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⁴⁾ 5·18 영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종현의 논문이 있다. 김종현은 「기억과 재현의 영상 이미지: 5·18영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18 영화의 콘텍스트를 아주 잘 분석해 낸 바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 성과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5·18 영화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그것에 내재되어진 주제의식의 구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5·18 영화의 메시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구조적 해석학'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 형상화와 그것을 통해 만들고자 한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 및 그 이미지에 있기 때문에, 5·18영화에 나타난 의미구조와 연계망, 그리고 상징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텍스트가 문헌이 아닌 영상자료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구조와 함께 이미지 구사 전략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영화는 이야기를 머금은 이미지의 세계이다. 따라서 이야기와 함께 이미지를 포착하고, 그것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3) 서형식, 「5·18 광주' 영화 만든다」, 『중앙일보』, 2006.4.25.

4) 김종현, 「기억과 재현의 영상 이미지 : 5·18영화를 중심으로」,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메시지 구조를 포착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18 영화의 이야기 구조 해독과 함께, 중요하게 사용된 상징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 과 그 '이미지' 를 파악하고자 한다.

5·18 영화의 제작은 크게 보아서 독립영화 진영과 상업영화 진영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는 '영화 만들기'의 목적과 지향점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독립영화의 경우, 영화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추구 및 예술로서의 영화 창작이 우선적 과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품에 담겨진 주제성 혹은 주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점진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일방적 주제 전달의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곤 한다. 이에 비해, 상업영화는 근본적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제 전달보다는 간접적인 의미 소통의 경향을 취하곤 한다. 상업영화는 또한 근본적으로 영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계몽' 보다는 '대중 추수주의'의 경향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따라서 각기 다른 경향을 지닌 두 진영의 산물(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각각 구별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장을 각각 설정하여 각각의 진영에서 산출된 대표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되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5·18 영화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개관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5·18 영화의 이야기 구조와 상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5·18 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과 그 이미지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논의의 집중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 진영의 대표작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김태영 감독의 <칸트 씨의 발표회>를,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장선우 감독의 <꽃잎>을 분석의 주요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이들 두 작품을 미시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는 맥락에 대해서는 II장 말미에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는 한편,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5·18 영화의 방향을 나름의 입장에서 간단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II. 5·18 영화의 현황

지금까지 제작·발표된 5·18 영화로는 <칸트씨의 발표회>(김태영 감독, 1987년), <황무지>(김태영 감독, 1988년), <오! 꿈의 나라>(이은·장동훈·장윤현 감독, 1989년), <마디>(금보상·김종현·장기철·최영진·한승호·홍준석 공동 연출, 1989년), <부활의 노래>(이정국 감독, 1990년), <꽃잎>(장선우 감독, 1996년), <박하사탕>(이창동 감독, 1999년), <맹(盲)>(고호빈 감독, 2003년) 등 8편이 있으며,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화려한 휴가>(김지훈 감독, 2007년 발표 예정)가 현재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밖에도 금년(2007년) 초에 개봉된 임상수 감독의 <오래된 정원>에서 광주민중항쟁이 시대적 배경으로 차용된 바 있다. <오래된 정원>은 광주민중항쟁에 연루되어 16년 8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친 뒤 퇴소한 오현우(지진희 역)와 수배 기간 중 짧은 사랑을 나눴던 미술교사 한윤희(염정아 역)의 이야기를 그린 일종의 멜로드라마이다. 하지만 <오래된 정원>에서 광주민중항쟁은 단순한 배경으로 차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5·18 영화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본다.

5·18 영화를 발표 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 때, 1980년대에 제작·발표된 영화가 4편, 1990년대에 제작·발표된 영화가 3편, 그리고 2000년대의 작품이 1편이다. 그리고 진영별로 정리해 볼 때 독립영화가 5편이고 상업영화가 3편이다. 발표 시기와 진영을 조합해서 볼 때 1980년대에 제작·발표된 영화는 모두 독립영화가이고 1990년대에 제작·발표된 영화는 모두 상업영화에 해당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재 제작중인 <화려한 휴가>를 제외하면 <마디> 한 편만이 발표되었는데, <마디>는 24분 분량의 짧은 단편영화로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⁵⁾ 따라서 <마디>를 다른 작품과 비슷한 반열에서 '독립영화'로 규정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은 <마디>와 <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VHS나 DVD 형태로 출시되어 있어서 텍스트 분석이 용이한 실정이다. 본 논문 작성을 위해 참고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①작품명, ②감독명, ③영화 제작년도, ④VHS 또는 DVD 제작년도, ⑤VHS 또는 DVD 출시사명, ⑥텍스트 형태 순서로 정리하였음.)

5) <마디>의 줄거리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가솔 원인이 6.25의 피해 후유증을 알게 된 아들 경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고향방문에서 광주항쟁으로 인해 정신이상이 된 꽃바람을 폭행한다. 6년 후,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 곁에 묻으러 고향에 다시 왔다가 꽃바람이 안고 있는 여섯 살짜리 소년을 보고 놀란다. 다행히 소년은 자신을 달지 않았다."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 <http://www.kmdb.or.kr>)

- ①<칸트씨의 발표회>, ②김태영, ③1987년, ④2001년, ⑤한국독립영화협회, ⑥VHS⁶⁾
- ①<칸트씨의 발표회>, ②김태영, ③1987년, ④2006년, ⑤한국독립영화협회, ⑥DVD⁷⁾
- ①<황무지>, ②김태영, ③1988년, ④2001년, ⑤한국독립영화협회, ⑥VHS⁸⁾
- ①<오! 꿈의 나라>, ②김태영, ③1989년, ④2001년, ⑤한국독립영화협회, ⑥VHS
- ①<부활의 노래>, ②이정국, ③1990년, ④1991년, ⑤(주)삼부프로덕션, ⑥VHS
- ①<꽃잎>, ②장선우, ③1996년, ④1996년, ⑤(주)동우영상, ⑥VHS
- ①<박하사랑>, ②이창동, ③2000년, ④2000년, ⑤(주)동우영상, ⑥VHS

5·18 영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김종현의 「기억과 재현의 영상 이미지: 5·18 영화를 중심으로」가 있다. 김종현의 연구는 “영상 이미지화는 기억의 재현이며, 새로운 역사적 기억을 기술하는 작업”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비롯되었다.⁹⁾ 그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5·18 영화를 “광주민중항쟁”을 재현하는 것,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영상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갈무리하면서, “5·18 사건의 내용들이 영화의 주된 서사적 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영화”로 정의 내리고 있다.¹⁰⁾ 5·18 사건의 내용을 영화의 주된 서사적 구조로 한정된 이러한 정의는 비교적 엄격한 것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5·18 영화 목록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5·18 영화를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재 또는 주제로 삼은 영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5·18 영화의 외연을 좀 더 폭 넓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김종현이 적절하게 언급하였듯이, 5·18 광주민중항쟁은 학생운동의 주도세력들과 민중운동가들이 영화를 ‘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 역사적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¹¹⁾ 1987년 6월 항쟁은 이러한 계기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그러한 열기는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의 운동으로 구현되었다. 영화운동 또한 민주화를 향한 사회운동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에 이르렀다. 급변하는 사회정세 속에서 영화운동, 특히 대학영화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²⁾ 대학영화운동은 우리 역사와 현실 속에

6)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라는 제목 하의 패키지 타이틀로서, <황무지>와 함께 실려 있다.
 7)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Vol.1 70~80년대’라는 제목 하의 패키지 타이틀로서, <아침과 저녁 사이>(이익태 감독, 1970년), <색동>(한옥희 감독, 1976년), <또 다른 방>(이공희 감독, 1979년), <백일방>(이장국 감독, 1984년) 등의 작품이 함께 실려 있다.
 8)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라는 제목 하의 패키지 타이틀로서, <칸트씨의 발표회>와 함께 실려 있다.
 9) 김종현, 앞의 논문, 300쪽.
 10) 김종현, 위의 논문, 300~301쪽.
 11) 김종현, 위의 논문, 305쪽.

서 민중적 투쟁의 에너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한편에서는 민중의 현실에 대한 영상적 성찰을 추구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 속에서의 민중적 투쟁의 의의를 영상으로 부각시켰다. 대학영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영화 진영이 특별히 주목한 것이 5·18 광주민중항쟁이었다.

5·18 영화의 서장을 장식한 것은 김태영 감독의 <칸트씨의 발표회>(1987, 16mm, 35분)였다. <칸트씨의 발표회>는 상징적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이 분열된 한 청년을 사진작가의 앵글을 통해 그려낸 <칸트씨의 발표회>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관찰’(사진작가의 카메라)과 ‘상징화’(광주민중항쟁의 상흔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와 사건에 대한 회상)를 통해 재현해 낸 작품이다. <칸트씨의 발표회>는 제3자적 관점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기법은 관객 의식을 일깨우는 효과를 지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작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만 해도 5·18 광주는 온전히 밝혀진 역사가 아니라, 밝혀져야만 했던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심장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큰 소리로, 직설법적으로 말하기에는 80년 광주가 지닌 무게감이 지나치게 컸기에, 직접적인 묘사 이전에 그 날의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일깨우는 작업이 보다 시급했던 것이다.¹²⁾ <칸트씨의 발표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표장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칸트씨의 발표회>는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내적으로는 제5회 대한민국의 독립영화제 우수상과 제14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조명부문을 수상하였으며, 국외적으로는 제38회 베를린영화제 영 포럼 부문 초청을 받았고 이태리 노리노영화제 본선에 진출하였다.

김태영 감독은 <칸트씨의 발표회>를 만들기에 앞서 1985년 <관찰노트>라는 제목의 작품을 만든 바 있었다. <관찰노트>는 <칸트씨의 발표회>와 거의 비슷한 작품이었으며, 주인공(최민수 역)만 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리버설 필름으로 만들었던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산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따라서 최초의 5·18 영화의 자리를 <칸트씨의 발표회>가 점할 수밖에 없다.

<칸트씨의 발표회>가 비록 3자적 관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김태영 감독의 또 다른 영화 <황무지>(1988, 16mm, 45분)는 80년 당시 가해자의 자리에 섰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무지>는 1980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의

12) 김수남, 『한국독립영화』, 실림, 2005, 25쪽.

13) 김소원, 『칸트씨의 발표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64쪽.

양심선언과 분신자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해자의 시선에서 광주를 조명”¹⁴⁾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김태영 감독은 두 편의 5·18 영화를 만들면서 철학과 문학의 문제의식을 원용하기도 하였다. <칸트씨의 발표회>에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인용되었다면, <황무지>에서는 T. S. 엘리엇의 시 「황무지」가 인용되었다. 김태영의 영화 <황무지>는 정신적인 메마름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T. S. 엘리엇의 시 「황무지」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 황폐함(메마름)과 죽음이 인간 실존 자체의 공허감과 죽음을 향한 인간의 육체 자체가 지닌 한계라는 본질적인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신식민지적 역사에 기인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사뭇 다른 맥락을 지닌다.¹⁵⁾

김태영의 <황무지>는 1980년 5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6층에서 투신자살한 김의기 열사의 죽음에 담겨진 의미를 역사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영화이다. 김태영 감독은 <황무지>의 주인공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김의기’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김태영 감독의 제작노트에 따르면, 작품 속의 주인공의 이름을 김의기로 명명한 것은 실제의 김의기 열사를 추모코자 그렇게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그의 이러한 인용은 영화 <황무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인 ‘반미’ 혹은 ‘미국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영화 <황무지>는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영화 <황무지>가 상영금지 조치에 처해졌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영화 <황무지>는 개인의 지점과 사회(역사)의 지점을 교차시키면서 주제의식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980년 광주에서 공수부대원으로 끌려가서 민간인 소녀를 학살한 데 대한 기억과 죄책감이 개인의 실존과 관련된 것이라면, 군산의 기지촌, 정확하게는 ‘헬로우 아이 러브 유’라는 바에서 벌어지는 기생적 삶의 묘사는 신식민지적 역사가 낳은 역사·사회적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황무지>는 1980년대의 반제 반미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황무지>의 이러한 관점은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진다. 김태영 감독은 제작 후기를 통해 “한국의 기지촌 내에서 빛어내고 있는 폐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한 시각의 각성을 말하고자 하였다”라고 영화 <황무지> 제작 의도를 밝혔다. 또한, 영화 속 미군의 이름에 대해서도 “미군의 주인공 ‘라이언’은 대통령 레

14) 김종현, 앞의 논문, 302쪽.

15) 김선아, 「황무지」,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75-76쪽.

16) 김태영, 「황무지 연출을 마치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205쪽.

이건의 상징이다. Lies+Gun= '거짓말하는 총'으로 설정해 보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서 김태영 감독의 관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¹⁷⁾

김태영의 영화 <황무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참회와 우리사회의 억압된 구조적 모순을 들추어내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¹⁸⁾ "80년 5월 광주항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역사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갈등을 앞세"웠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¹⁹⁾

장윤현, 장동훈, 이은(장산곶매) 감독의 <오! 꿈의 나라>(1989, 16mm, 83분)는 대학에서 단편영화 작업을 하던 독립 영화인들이 모여 '장산곶매'라는 이름을 걸고 작업을 했다는 점, 당시로서는 꽤 큰 규모의 제작비를 독립영화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점, 이후 재생산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장편 영화로 대중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심의를 거부한 점 등에서 한국 독립영화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꼽히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²⁰⁾ <오! 꿈의 나라>는 전국 150개 상영공간에서 500회 이상 상영하여 1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독립영화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연 작품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오! 꿈의 나라>는 5·18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했던 전남대 학생(종수)의 도피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꿈의 나라>의 무대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80년 5월 광주라는 공간과 동두천 미군기지라는 한국사회의 신식민적 공간이 각각의 겹을 이루고 있다. <오! 꿈의 나라>는 이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이야기 축이 평행을 이루며 진행된다. 종수는 이 두 개의 공간 모두에서 탈주하게 된다. 80년 5월 광주 도청 사수대에서 최후의 순간 도망쳐 나왔던 종수는, 고향 선배가 잡혀간 후 동두천 기지촌에서도 또 다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이다.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이야기 축을 지닌 <오! 꿈의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중의 가면을 폭로하려는 의도 속에서 하나의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개의 공간이 서로 같은 의미망 속에서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²¹⁾ 광주항쟁 당시의 민중과 동두천 기지촌과의 연계가 너무 작위적이라는 비판적인 평가 또한 제시된 바 있는 것이다.²²⁾ 이 점은 <오! 꿈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미국의 실체에 대한 해체 작업이 녹록치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목에서 드러

17) 김태영, 위의 글, 206쪽.

18) 김종현, 앞의 논문, 303쪽.

19) 김선아, 앞의 글, 79-80쪽.

20) 김소원, 「오! 꿈의 나라」,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82-83쪽.

21) 강석훈, 「80년의 광주, 오! 꿈의 나라」, 『독립영화』, 4호, 한국독립영화협회, 2000.

22) 김종현, 앞의 논문, 303쪽 참조.

나뭇, <오! 꿈의 나라>는 '꿈의 나라' 라고 명명되는 미국의 허구성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지닌 작품이었다. 제작노트에 따르면, <오! 꿈의 나라>는 80년 광주항쟁을 미국과의 연관성 속에서 풀어내고자 한 영화이다. 제작부에서 작성한 제작노트에 따르면, <오! 꿈의 나라>의 소재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노동운동과 광주항쟁에 관한 소재가 제기되어 토론에 붙여졌으나 우리 현대사에서 민족 민중운동의 분수령인 광주항쟁을 다루어보자는 데 자연스러운 합의에 도달했고 이 소재가 대중들에게 유인물, 책자, 선거과정 등을 통해 어느 만큼 선전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서술에 그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의의와 보다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민족운동-미국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작업의 중심을 두고 광주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폭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²³⁾

<오! 꿈의 나라>가 취한 전략은 반어법적이다. 이는 영화의 결말부가 카메라 정면으로 고개를 숙이고 울부짖는 종수를 뒤로 한 채,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미대사관의 기세 좋게 필러이는 성조기를 확인하며 끝을 맺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할 미국의 힘에 대한 재확인이자 주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결말로 언급된 바 있다.²⁴⁾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1993, 35mm, 92분)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직접적 기술에 가까운 작품이다. 광주항쟁의 발생부터 진압까지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재현하고자 한 점에서, 광주 '안'의 시선에서 사건을 재현하려 노력한 영화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²⁵⁾ <부활의 노래>는 구체적으로 윤상원, 박관현, 박기순 등 실제 인물을 모델로 광주민중항쟁의 실체에 접근하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징의 남발과 지나친 직접 기술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활의 노래>에는 광주의 피를 상징하고 부활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불의 이미지가 너무 자주, 그리고 직설적인 맥락에서 동원되어 오히려 관객의 몰입을 저해하곤 한다. 이러한 한계는 상징-이미지 차원뿐만 아니라 서사(내러티브)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영화 <부활의 노래>에 대해, 5·18이라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지나친 친절함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5·18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

23) 제작부, 「오! 꿈의 나라」를 마치며,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210쪽.

24) 김소원, 「오! 꿈의 나라」, 85쪽.

25) 김중현, 앞의 논문, 303쪽.

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²⁶⁾

장선우 감독의 <꽃잎>(1996, 35mm, 101분)은 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실성한 한 소녀가 겪는 고통을 스크린에 재현해 냄으로써, 시대의 방관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날 그 사건의 의미를 되묻는 한편, 앞으로의 길에 대해 성찰하게끔 만드는 영화이다. <꽃잎>은 감독 스스로의 시대적 채무와 강박관념이 투영된 작품이기도 하다. 장선우는 1995년 영화 <꽃잎>을 제작하면서 "광주는 때가 되면 하고 싶은 소재였다. 내가 81년 영화에 발을 내딛게 된 것도 광주항쟁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영화 작업 깊숙한 곳에 광주민중항쟁으로 상징되는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채무 내지는 죄의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꽃잎>의 주인공 소녀(이정현 역)가 지닌 극한에 다다른 죄의식에는 "사회적인 고통을 나눠야 함에도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감독의 "자책감"과 강박관념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소녀의 모습은 1980년 5월 이후, 일종의 심리적인 절름발이가 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하며, 죄의식과 자책감에서 연유한 여주인공의 정신이상은 이제는 모든 것을 과거사로 돌리고 광주를 잊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편리한 사고방식에 대한 호된 질타일 수도 있다"는 왕은철의 언급은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²⁷⁾

영화 <꽃잎>의 성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광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타일에 대한 실패가 제기된 바 있다. 전자가 극좌적 이념공세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후자는 극우적 이념공세에 가까운 것이다.²⁸⁾ 이에 대하여 영화사가 이효인은 장선우가 나름대로 용의주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주도함이 편견과 원죄의식과 맞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효인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누군가가 <꽃잎>이 광주를 잘못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원죄 의식에 시달린 나머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묘사된 현실과 대상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²⁹⁾

채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꽃잎>은 80년 5월 광주의 참화를 온몸으로 통과한 한 소녀의 미쳐버린 생을 리얼하면서도 몽환적인 독백으로 다루었다.³⁰⁾ 문제는 어떻게 리얼한

26) 김충현, 위의 논문, 304쪽.

27) 왕은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예술가의 역사의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문학 예술』, 도서출판 심미안, 2006, 421쪽.

28) 이효인, 『산짐부시(散點透視)를 통한 <꽃잎> 분석: 이념과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해』, 『영화이학과 비평입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238쪽.

29) 이효인, 위의 논문, 236쪽, 239-240쪽.

30) 김정동, 『떠돌기, 짙은 여행의 기록: 장선우론』, 『우리 영화의 미학: 한국영화 감독론』, 문학과 지성사, 1997, 106쪽.

것과 몽환적인 것이 공존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녀가 겪은 처참한 실존적·역사적 체험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소녀는 피해의 극한을 체현한 상징적 존재이며, 장선우 감독은 우리로 하여금 상징을 공유할 것을 채근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의 초점이 소녀 정연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꽃잎>의 의미론적 주인공은 기실 소녀가 아니라 장씨와 '우리' 여야 한다는 김정룡의 분석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³¹⁾ <꽃잎>의 의미론적 주인공이 장씨 혹은 우리라면, 문제의 핵심은 80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그 날 광주에서의 저항 불가능한 폭력 앞에 내던져진 민중들의 상처를 응시해 온 태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일이 된다. 장선우 감독은 소녀가 겪은 처참한 고통을 몽환적 영상으로 재현해 냄으로써 그러한 성찰의 실마리를 열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업의 성과가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빈번한 회상으로 그녀가 겪은 끔찍한 사건을 재생하는 데 전념했다는 비판, 이진 강조가 아니라 동어반복이라는 비판이라는 것, 영화에서 함부로 미쳐버린다는 것은 혹은 함부로 비웃어버린다는 것은 적어도 광주에 관한 한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³²⁾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2000, 35mm)은 착하고 소심한 한 개인이 광주 진압에 투입되어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참담한 경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세속적 풍요를 쫓다가 결국 좌절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박하사탕>은 진압 군인으로서 5·18에 대한 기억과 한국사회의 모순 그리고 그 아픈 기억과 상처가 한 인간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황무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황무지>가 미국의 실체를 드러내는 전략 위에 큰 틀에서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면, <박하사탕>은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성 속에서 밝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하사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역행(逆行)의 과정에서 90년대 말의 경제위기와 80년대의 학생운동을 거쳐 1980년 5월의 광주항쟁까지 다다르면서, 주인공의 경험을 역사적 맥락에서 읽어내려 하고 있다. <박하사탕>의 이러한 주제의식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대사가 “나, 돌아갈래”이다. 이 대사에는 ‘시간 역행’을 통한 시간 갱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박하사탕>을 ‘영상적 씻김굿’으로 읽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³³⁾

31) 김정룡, 위의 논문, 144-145쪽.

32) 김정룡, 위의 논문, 146쪽, 149쪽.

33) 박종천, 「언급술적 상상력과 제의적 영화 체험」, 『종교문화연구』 제5호, 한신인문학연구소, 2003, 10, 55쪽.

〈박하사탕〉에 대해서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무기력하게 보낸 한국 남성들의 자기 연민 가득한 애송가이며, 이는 이창동 감독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자기위안이자 자기 세대를 위한 비가였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⁴⁾ 하지만, 80년 5월 광주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점, 그 결과 광주의 문제를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속 깊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박하사탕〉의 미덕으로 손꼽히고 있다.³⁵⁾

고호빈 감독의 〈맹〉은 '2003 전주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한국단편의 선택'에 출품된 단편영화이다. 그동안 5·18 영화로서의 〈맹〉이 언급된 바 없었으므로, 영화의 줄거리를 인용하고자 한다.³⁶⁾

80년 5월, 계엄군들이 진을 치고 있던 자리에는 대형 합인점이 들어서고, 시민들의 피로 얼룩졌던 시민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신축된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리고 남은 그 시절의 흔적들도 밀려나고 있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두 구의 주검이 발견되고, 그 길을 지나가던 맹인 안마사는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린다.

80년 5월 어느 날, 자신의 아파트로 숨어든 퍼투성이의 사내는 물 한 모금을 채 얻어 마시기도 전에 들이닥쳐 문을 두드리는 계엄군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다간 둘 다 죽소, 꼼짝 말고 계시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제 발로 창밖으로 나서 집중사격을 받는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그의 혼령은 굴착공사장에 누워있던 시신 자리에서 살아나 안마사와 이야기를 나눈다.

-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비겁하기까지 해서, 그 때는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리지도 못했소."

- "아직도 그걸 기억하시오? 남들은 다들 잊었는데……. 잊으시오."

고호빈 감독은 영화 〈맹〉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광주'에 관한 한 모두가 맹인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은식은 그날 자신을 스쳐서 사지로 몸을 던진 사내를

34)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개마고원, 2003, 222쪽, 231쪽.

35) 왕은철, 앞의 논문, 429쪽.

36) 김은식, 「'80년 광주'의 기억을 들으시는 새로운 화자(話者)」, 『오마이뉴스』 (인터넷뉴스), 2003. 5. 1.

기억하는 맹인 안마사가, 오월항쟁의 영웅 윤상원 열사(〈부활의 노래〉)나 죽은 엄마의 손을 뿌리친 죄책감을 못 이기고 미쳐버린 소녀(〈꽃잎〉)보다 훨씬 집요한 방식으로 곁에 붙어 앉아 '광주' 라는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평하고 있다.³⁷⁾ 〈맹〉은 5·18 광주에 대한 데이터와 담론이 다양하게 분출하였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에 대해 무덤덤해져 있는 21세기 초의 한국사회에 대해 다시금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5·18 영화의 나아락 바에 대해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Ⅲ. 독립영화 〈칸트씨의 발표회〉에 나타난 광주정신과 그 이미지

칸트씨의 일과는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그 나름의 패턴을 가진 것이다. 그에게 '칸트씨' 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바로 그의 움직임이 정시성과 패턴을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칸트씨가 움직이면서 내뱉는 짧은 말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이 80년 5월 광주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 “화, 화려한 휴가”, “작전 개시, 긴급 출동” 등. 그런데, 칸트씨가 헤매고 다니는 거리와 사람들은 칸트씨의 의식과 심장을 꽉 채운 80년 5월 광주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 거리에는 애국가와 국민의례가 반어법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봄은 왔습니다. 모두 회개하십시오. 천국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사의 광적이고 공허한 외침이 오버랩 되고 있다.

Ⅱ장에서 언급했듯이, 〈칸트씨의 발표회〉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이 분열된 한 청년을 사진작가의 앵글을 통해 그려낸 작품으로서, 3자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제3자의 시선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그런데, 80년 5월 광주에 무지하기는 사진작가도 마찬가지이다. 80년 광주를 알지 못했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사진작가의 모습에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³⁸⁾ 사진작가가 칸트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진작가는 칸트씨의 상처와 고통을 감싸 안고 보듬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김태영 감독은 사진작가의 관심과 질문이 칸트씨에게 고문관의 심문처럼 들리는 것으로 이미지화해 내고 있다.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칸트씨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는데, 그가 던지

37) 김은식, 위의 기사.

38) 강소원, 「칸트씨의 발표회」, 65쪽.

는 질문들은 칸트씨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고 칸트씨는 그 순간 고문 받던 고통의 순간을 기억해 낸다. 하지만 칸트씨는 이런 그에게, 그리고 세상에(궁극적으로는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온몸으로 시(詩)를 쓰면서.

이 사회는 칸트씨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무섭고 불안한 곳이다. 그러한 사회를 향해 칸트씨는 KBS가 보이는 여의도 광장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공정성 보도요원 여러분께.
삼천리는 여전히 비단 같은가?
교차로 등에서는 인권을 요합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칸트씨는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기억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처럼 긴박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씨가 이와 같은 현재를 사는 데에는 80년 5월 광주에서의 극한 경험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칸트씨는 그 날 그 곳에서 누이를 잃었다. 하지만, 칸트씨가 누이를 잃은 슬픔 속에 매몰되거나 갇혀 있는 것만은 아니다. 소녀의 영정과 발레 슈즈를 놓고서 씻김굿을 하듯 춤을 추는 무용수 장면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거촌에서 칸트씨가 만든 아주 조그마한 누이의 무덤에 푸른 풀을 엮는 행위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칸트씨는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거리에서 마주친 여인(서갑숙 역)에게 태극기를 건네는 장면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인은 칸트씨가 들고 있던 태극기가 참 이쁘다고, 그것을 가져도 되냐고 말한다. 칸트씨 손에는 늘 너털너털한 태극기가 쥐어져 있었다. 칸트씨는 여인에게 그 태극기를 건넨다. 찢겨진 태극기! 태극기를 건네받은 여인은 빨간색 상의와 청색 치마를 입고 있다. 여기에서 여인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빨강과 파랑은 남과 북을 상징한다. 여인이 건네받은 태극기는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강렬한 희망을 상징한다.

여인에게 태극기를 건네준 칸트씨는 그 나름의 발표회를 가진다. 칸트씨는 누이의 발레슈즈로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잡혀들어 간다. 거기에서 그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80년 행불자로 밝혀진다.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칸트씨의 발표회>인지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칸트씨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특별발표회였다. 정광식은 ‘칸트씨의 발표회’가 지닌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칸트씨는 땅을 파고 들어간 사람이다.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철의 모터브는 그의 정신적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는 <아리랑>의 영진이가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제 순사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상처다. <아리랑>의 영진이 일제 앞잡이를 낚을 처 죽인 후에야 제정신이 들어왔듯이 그렇게 해야만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것이다. 칸트씨는 명동성당을 지키는 경장의 면상을 누이의 발레슈즈로 힘껏 때린다. 그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낼 “특별 발표회”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이 80년대 이후 행복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80년대 후반에도 허다했듯이 위문사 한다. 그는 비록 죽지만 그것이 그 나름대로 속죄의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씨의 발표회> 속의 사진가나 <아리랑>의 현구처럼 구경만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하던 우리는 왜 속죄하지 않는가? 광주의 꿈과 피는 칸트씨에게나 사진가에게나 우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매혹이고 원죄다.³⁹⁾

그리고 또 하나의 발표회가 열린다. 사진작가는 ‘칸트씨의 발표회’라는 이름의 사진전을 연다. 사진작가는 칸트씨의 사진에 ‘자유1’, ‘자유2’, ‘자유3’……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사진전 ‘칸트씨의 발표회’는 TV 뉴스로 처리되고 있으며, (A) 앞뒤로 이어지는 다른 뉴스와 짝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이 영화의 메시지가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사진전 뉴스 앞에는 노태우가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사회가 정상을 찾고 있으며, 수출은 활기를 띠고 있고, 국민은 밝은 표정으로 살고 있으며, 노사는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말이 범람하고 있다. (B) 사진전 뉴스 뒤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짤막한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C) (A)는 (B)에서 제시된 거짓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책임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화 <칸트씨의 발표회>에는 80년 5월 광주를 알리고 광주정신을 알리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이 투영되어 있다. 이는 영화가 김지하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영화가 종국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지점은 민주주의의 승리였던 것이다. <칸트씨의 발표회>는 이러한 소명의 수행을 직설법적으로 풀기보다는 상징적 전달 방식을 취했다. 광주항쟁의 몇 개의 스틸 사진, 고문자가 보이지 않는 고문 장면, 어둡고 좁

39) 정광식, 『칸트씨의 발표회』, 『독립영화』 4호, 한국독립영화협회, 2000.

다란 지하를 꺾어 도는 전철, 빨간 신호등, 너털거리는 종이 태극기, 누이의 발레 슈즈, 애국가와 국민의례, 오랜 침묵 뒤에 띄엄띄엄 새어나오는 증언들 등에서 이러한 상징적 전달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화 전반을 관통하는, 친절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몇 개의 모티브는 결국은 민주주의 쟁취를 향한 광주정신이라는 주제로 성공적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⁴⁰⁾

김태영 감독은 <칸트씨의 발표회> DVD에 수록된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작업이 “은밀한 모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광주정신의 의의를 밝히려는 것! 그것이 그의 모반의 핵심이었다. 그에게 “광주는 숙제”였으며, 특히 “청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다. 광주는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첫번째로 풀어내야 할 숙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영화 <칸트씨의 발표회>는 ‘광주, 광주정신’에 대한 ‘청년 김태영의 발표회’였던 셈이다. ‘청년 김태영의 발표회’의 주제는 ‘자유’였다.

IV. 상업영화 <꽃잎>에 나타난 광주정신과 그 이미지

장선우의 <꽃잎>은 읽기 고통스럽고 해독하기 어려운 텍스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가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선우의 <꽃잎>은 서양화의 투시화법과는 다른 동양화의 ‘산점투시(散點透視)’를 통한 묘사를 지향하고 있다.⁴¹⁾ 이는 재현보다는 해석에 역점을 두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현이 감독의 몫이라면, 해석은 관객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둘째로, <꽃잎>이 발표되던 시점에는 광주 관련 영상이 이미 충분히 유포되었고, 그 영상은 그것 자체로 보는 이에게 충분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꽃잎>을 다시 읽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광주, 광주정신을 영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의 심층을 일깨우지 않는 직접적이고 즉자적인 영상은 이제 더 이상 광주정신을 일깨우기에 역부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장선우 또한 이를 명백하게 인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심층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40) 김소원, 「칸트씨의 발표회」, 67쪽.

41) 이효인, 「산점투시(散點透視)를 통한 <꽃잎> 분석 : 이념과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해」, 238쪽.

고통의 심층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자리에 서야만 한다. 장선우가 <꽃잎>의 플롯을 다중적으로 설정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효인은 <꽃잎>의 다중 플롯을 명쾌하게 포착한 바 있다.⁴²⁾ <꽃잎>의 중심 플롯은 소녀(이정현 역)가 어머니를 따라 광주 시내에 나갔다가 군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여 그 충격으로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은 죽은 어머니의 손을 발로 뿌리쳤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공포감이다.(가) 여기에 두 개의 보조 플롯이 더해지고 있다. 그 소녀가 오빠로 착각하고 만나게 된 장씨(문성근 역)와의 생활이 하나이며(나), 소녀의 오빠 친구인 '우리들'(설경구, 추상미, 박철민 등)이 소녀를 찾는 과정이 또 다른 하나이다.(다) (가)를 통해서서는 왜 당했는지도 모르며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즉 처참한 피해자의 시점이 제시되고 있으며(가-1), (나)를 통해서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기이한 형태로 소녀를 맞닥뜨린 후 자각하게 되는 그러나 속수 무책인 간접적 피해자의 시점이 제시되고 있고(나-2), (다)를 통해서서는 엄청난 상처의 한 조각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우리'의 시점이 제시되고 있다.(다-3)

(가-1)은 영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지만, 특별히 그 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흑백 영상과 소녀의 심층적 의식을 반영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2)는 장씨가 광주의 참혹상을 듣고 그것이 소녀의 정신적 외상과 연관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 칼을 가는 대목, 영화 말미 무덤가에서 온몸으로 씻김굿을 하는 소녀를 지켜보는 대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효인은 이를 "감염된 자의 질곡"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2)는 (가-1)의 개인적·가족적 참화를 사회적 맥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며, 이는 재차 관객에게 전달되는 몫이기도 하다. (다-3)은 '우리'의 여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들'(소녀의 오빠 친구들)이 기차간에서 다른 중년의 여자를 소녀라고 착각하여, 그것도 네 명이 동시에,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그들의 관점이 여전히 핵심에서 비껴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제3자적 시선이 광주정신을 형상화해내는 데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가-1)이 광주(혹은 광주 사람들)의 자리라면, (나-2)는 광주를 알게(혹은 이해하게) 된 사람들의 자리라고 할 수 있고, (다-3)을 광주를 알고자 하지만 광주에 대한 이해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장선우 감독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나-2)의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42) 이효인, 위의 논문, 242-244쪽.

문제는 (가-1), (나-2), (다-3)의 시점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장선우 감독의 의도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셋이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지닐 때, 어떤 자리에 서서 광주, 광주정신으로의 정서적 투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흔히 <꽃잎> 읽기가 못내 불편한 것은 이 영화에서 왜 '강간' 이 서사와 이미지 모두에서 과잉되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들 말한다. 물론, 그것은 광주에서의 폭력을 극한적으로 묘사하고자하는 의도에서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문학산의 말마따나 장씨에 의한 소녀의 성적 착취는 소녀 스스로 죄 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장치이면서 아울러 상처받는 자에 대한 하층민의 가해라는 의미를 추가하여 역사에 대한 방기할 수 없는 채무감을 관객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을 수도 있다.⁴³⁾ 하지만, <꽃잎>이 그 날 광주에서의 일보다 '광주 이후'를 다루는 데 무게 중심을 둔 영화라면, 이 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기획이 필요했다고 본다.

영화 <꽃잎>이 우리의 시대적 부채의식을 건드리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의 의식은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한다. 거기에 비하면 이 영화의 결말은 지나치리만큼 냉철한 편에 속한다. 영화 말미에 깔리는 내레이션은 점점 광주, 광주정신에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

당신은 무덤가를 지날 때, 아니면 강가에서나 어느 거리 모퉁이에서 어쩌면 이 소녀를 만날 지도 모릅니다. 찢어지고 때 묻은 치마폭 사이로 맨살이 눈에 띄어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쳐 주십시오. 어느 날 그녀가 당신을 쫓아오거든, 그녀를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섭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관심 있게 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영화 <꽃잎>의 말미를 보면서, 정확히는 위의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문득 '광주민중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차이를 떠올리게 된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의 성화(聖化)로 인하여, 우리가 정작 '광주민중항쟁'의 처참했던 기억과 치열했던 고민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장선우는 다시금 '관심'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것은 아닌지.

43) 문학산, 『눈 덮린 카메라의 자율성, 편향된 성담론의 위험성, 『10인의 한국 영화감독』, 집문당, 2004, 64쪽.

V. 맺음말

5·18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5·18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의 상황을 돌파하는 데,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문화와 예술은 광주, 광주정신을 하나의 도그마로 선포하기보다는, 인간 의식의 심층을 파고드는 '따뜻한 칼날'을 머금고 있다.

필자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뜻하지 않은 질문을 접하고는 이성을 잃듯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다. 대학에 입학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속 좋은 서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내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정말로, 광주에서 사람이 죽었느냐"고. 5·18 광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는 없다. 하지만 무지보다 더 한 무관심이 다시금 우리의 혼을 옥죄고 있다. "그래, 나도 다 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대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또 다시 예술가들의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 예술가의 책무는 광주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을 관심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다. 광주, 광주정신의 형상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영상 세대인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영화·영상을 통한 광주, 광주정신의 형상화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영상물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그때의 일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때문이다.⁴⁵⁾

그렇다면, 영상을 통한 광주, 광주정신의 형상화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충격적 영상의 재현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5·18 영화는 보다 깊숙이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1972년 1월31일 북아일랜드 데리 시의 하루를 꼬박 담은 영화 <블러디 선데이>(폴 그린그래스 감독)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30년 전에 데리 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마치 당시의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처럼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돈 물란이 수백 명의 증언을 채록한 <피의 일요일을 바라보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⁴⁶⁾ 5·18 문학의 영화화, 5·18 기록 속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영화화를 통해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숨결과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

44) 원은철, 앞의 논문, 429쪽.

45)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5·18다큐멘터리의 전개과정」,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255쪽.

46) 「'광주 영화'를 꿈꾼다」, 『한겨레21』, 2004.6.30.

이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블러디 선데이>를 수입하여 국내 관객에게 소개했던 이광모 감독이 5·18 영화 제작의 의향을 비춘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한국전쟁의 상처를 그린 <아름다운 시절>(1998)로 데뷔하여 평단과 관객의 주목을 받았던 이광모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광주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나 역시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키워왔다. <블러디 선데이>를 수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영영 만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 과거의 재현에 충실한 광주 영화를 만들고 싶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80년대와 요즘의 사진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남대 정문 등은 성지화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많이 변해 있다. 재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⁴⁷⁾

이광모 감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진정성 있는 5·18 영화의 제작은 시급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3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인 5·18 영화 <화려한 휴가>를 위해 당시 금남로를 비롯한 현장을 재현해내기 위해 광주시와 예술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항쟁 현장인 금남로가 광주시 북구 첨단단지 내 1만 7천 평의 대지에 재현된 것이다.⁴⁸⁾ 뿐만 아니라, 영화 <화려한 휴가>가 그 날 현장에 선 민중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도 기대 되는 요소이다.⁴⁹⁾ 휴머니즘이 넘쳐나는, 그러나 광주정신을 올바르게 형상화해내는 작품을 기대해 본다.

47) '한국의 <블러디 선데이>를 만든다', 『한겨레21』, 2004.6.30.

48) 김석봉, 『귀 액션 현장을 가다. 화려한 휴가』, 『스포츠진』, 2006. 11. 3.

49) 광명동, 『실감나는 '광주의 그날' 합성』, 『FOCUS』, 2006. 10. 31.

(1) <칸트씨의 발표회>

감독 김태영

각본 김태영

출연 조선묵(칸트), 김윤택(사진가), 김명수(전경A), 김영석(전경B), 변달수(전도사), 진영(무용수), 백승찬(사내), 남희섭(경찰), 서갑숙(여자)

스태프 제작자(김대식), 기획(백승찬), 촬영(김동기), 조명(김영수), 편집(이은미), 음악(김기만), 소품(최용배), 분장(김청경), 사운드(김대식), 조감독(장상일), 스크립터(심승은, 노연경), 촬영팀(유승규), 조명팀(조태영), 기타스텝(서준원)

즐거리 사진작가인 주인공은 우연히 칸트씨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그의 행동에 호기심을 느껴 그를 촬영하게 된다. 어느 날 사진작가는 그동안 찍은 칸트씨의 사진을 인화해서 칸트씨를 기다리지만 전경으로부터 칸트씨가 잡혀간 상황과 그가 광주항쟁 때의 실종자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괴롭게 돌아선다.

수상내역 제38회 베를린영화제 '포럼' 부문 초청, 제5회 한국단편영화제 우수상, 제14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조명부문 수상

(2) <황무지>

감독 김태영

각본 김태영

각색 정홍순

출연 조선묵, 양재만, 서갑숙, 김영석, 문창근, 한영숙, 이영자, 방은희, 이현란, 선동혁

스태프 촬영(김성복), 조명(김영수), 음악(신대철), 미술(황호연), 소품(이동원), 분장(박혜정), 조감독(조명남, 유명규), 스틸(안주혜), 현상(셋방현상소), 제작부(엄주현), 촬영팀(장상일), 조명팀(정의영, 김태형, 이대열)

즐거리 1980년 5월의 탈영병 김의기는 6개월째 도망 다니던 중 군산의 기지촌 술집에서 일하게 된다. 술집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다. 주인공의기는 파멸하는 주변의 비참한 삶들을 지켜보며 광주에서 학살한 소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망월동 묘지에서 분신한다.

(3) <오! 꿈의 나라>

감독 이은, 장동홍, 장윤현

각본 공수창, 홍기선

제작사 한국독립영화협회

출연 권인찬, 김경선, 김선경, 김현주, 박충선, 오지혜, 이병수, 정진완, 홍정욱

스태프 제작자(남희섭), 제작자(이재구), 촬영(김현철, 박대영, 오정욱), 조명(임태형, 장재기, 정성진), 음악(강현, 조익환), 스크립터(정유식)

줄거리 광주민중항쟁이 무력으로 진압된 이후 종수는 제업당국의 수사를 피해 고향의 형 뺨되는 태호를 찾아 동두천으로 온다. 그는 전남대의 학생이며 야학의 교사이며 광주항쟁에서의 활동 때문에 쫓기는 신세다. 태호는 미군부대의 스넬 바에서 일하지만 실제 본업은 미제 물건장사이다. 한 몫 벌어 미국으로 떠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태호와 미군 때문에 거칠 대로 거칠어진 양공주들과의 생활에서 종수는 동화되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광주항쟁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돈과 미국을 목표로 PX 뒷거래까지 마다하지 않는 태호와 마치 미국에 가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처럼 생각하는 양공주들 속에서 종수는 야학학생인 구두담이 구질을 떠올린다. 마치 미국을 천국처럼 생각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구질은 자신과 함께 항쟁의 동지가 된 이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을 고수하고 민주주의를 기원했다. 종수의 계속되는 기억은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그를 짓누르고 그의 고민과는 또 다르게 주위 사람들의 인생은 고통으로 물들어간다. 한 몫 벌어 미국으로 가버리겠다던 태호는 자신과 거래를 해오던 스티브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고, 그와 마찬가지로 스티브와 함께 살 생각에 가슴 부풀어하던 제니 또한 스티브의 배신에 자살을 한다. 분노한 태호와 망연자실한 종수는 어떠한 일도 도모하지 못한 채 다시 억눌리는 일상으로 돌아온다.

(4) <마디>

감독 금보상, 김종현, 장기철, 최영진, 한승호, 홍준석

제작사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연 한명구, 박예숙, 김만이, 신찬일, 안진수, 조주미, 박서영, 김우석, 황돌순, 유은숙

스태프 촬영(김은주, 이재덕, 김형주, 김영재, 최만호), 조명(함형석), 편집(양해석), 음악(정성조), 미술(조용삼), 소품(김호길), 의상(이해운), 분장(이윤희), 사운드(영화진흥공사), 특수효과(박광남), 현상(영화진흥공사)

줄거리 어머니의 가솔 원인이 6.25의 피해 후유증을 알게 된 아들 경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고향방문에서 광주항쟁으로 인해 정신이상인 된 꽃바람을 폭행한다. 6년 후, 어머니의

유골을 아버지 곁에 묻으러 고향에 다시 왔다가 꽃바람이 안고 있는 여섯 살짜리 소년을 보고 놀란다. 다행히 소년은 자신을 닮지 않았다.

(5) <부활의 노래>

감독 이정국

각본 이정국

제작사 새빛영화제작소

출연 김영건(철기), 박지수(현실), 이정영(태일), 김수경(민숙), 이상철(봉준), 박건희(왕태), 박종철(최교수), 김해연(어머니), 김재강(동생), 최우용(병일)

스태프 제작자(주경중, 차성기), 기획(유병선, 주필호, 김해숙), 촬영(유용옥), 조명(김석진), 편집(현동춘), 음악(강인구), 소품(김한상, 이용승, 김종국), 분장(이태실), 사운드(청맥녹음실), 특수효과(이정일)

즐거이 사회정의실현을 꿈꾸던 철기는 야학에 참여하면서 정치, 사회적 모순과 민중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더해간다. 야학선배 태일과 민숙, 노동자 야학생 현실, 봉준 등과 공장실태를 조사하던 그는 유신과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깨닫는다. 10. 26이후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대중집회를 주도하여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가져갈 무렵, 비상계엄확대에 따른 정치적 격변은 철기를 도피생활로 몰아넣는다. 도피생활을 하던 철기는 현실과 봉준에게서 광주상황과 태일과 민숙의 장렬한 최후를 듣고 자책에 빠진다. 항쟁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쇠잔해진 봉준은 죽음이 두려워 도피한 비겁자라고 철기를 비난한다. 철기와 현실이 사랑으로 의지하며 새로운 생활을 준비할 무렵 체포 수감된 철기는 교도소 내 민주화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한다.

(6) <꽃잎>

감독 장선우

각본 장문일, 장선우

제작사 미라신코리아(주)

출연 이정현(소녀), 문성근(장), 설경구(우리들1), 박철민(우리들2), 추상미(우리들3), 나창진(우리들4), 이영란(엄마), 박광정(김상태), 구재연(옥포댁), 박충선(경운기사내), 명계남(인부)
스태프 제작자(박건섭), 기획(대우시네마, 김수진, 영화센타), 촬영(유영길), 조명(김동호), 편집(김양일), 음악(원일), 미술(MBC미술센터, 박시종, 오형석), 세트(양성대), 의상(김진목, 이지혜), 분장(장소진)

줄거리 5월 광주, 총성 속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버리고 도망친 15세 소녀, 그녀는 공사장 인 부 장을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나선다. 깨지지 않는 침묵과 초점 잃은 시선, 무언가 무서운 일을 겪었던 것처럼 망가진 소녀의 몸은 장을 분노 속으로 몰아넣고, 소녀의 악몽에 서 도망치고 싶은 장은 그녀를 무참히 학대하지만 차츰 소녀의 아픔과 슬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한편 의문사를 당한 친구의 여동생 소녀를 찾는 우리들은 방방곡곡을 헤매기 시작 하지만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어느 날 장은 무덤가를 헤매는 소녀를 지켜보게 된다. 무덤 앞에 앉은 소녀는 죽어가는 엄마의 손을 처절하게 뿌리치고 달아나야 했던 진실을 고백한다.

(7) <박하사탕>

감독 이창동

각본 이창동

제작사 이스트필름

공동제작 NHK

제작지원 unikorea, 문예투자(주), DREAM VENTURE CAPITAL CORP

출연 설경구(김영호), 문소리(윤순임), 김여진(양홍자), 박세범(신광남), 서정(미스리), 고서희(경아), 박지영(여학생), 이대연(강사장&강형사), 김경익(박명식), 정우혁(박상병)

스태프 제작자(명계남, 마코토 우에다), 프로듀서(전재영, 전양준, 케이코 이노), 촬영(김형구), 조명(이강산), 편집(김현), 음악(이재진), 미술(박일현), 세트(오상만), 소품(최승영), 의상(차선영), 분장(황현규), 동시녹음(이승철)

줄거리 아유희(1999년 봄) 젊은 시절의 꿈, 야망, 사랑, 모든 것을 잃은 중년의 영호. 그는 20년전 첫사랑과 함께 소풍을 나갔던 곳에 찾아가지만 20년이란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후.. 사진기(사흘전, 1999년 봄) 동업자에게 사기당하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아무 것도 남은 것 없는 마흔 살의 영호. 어렵사리 구한 권총한정으로 죽어버리려 하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사내의 손에 이끌려 첫사랑 순임을 만나게 된다. 삶은 아름답다(1994년 여름) 서른 다섯의 가구점 사장인 영호. 마누라 홍자는 운전교습 강사와 바람을 피우고 그는 가구점 직원 미스 리와 바람을 피운다. 과거 형사시절 자신이 고문했던 사람과 마주치는 영호. 고백(1987년 4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권태로움에 지쳐버린 닳고 닳은 형사, 영호. 홍자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몸이다. 그러나 군산의 허름한 옥탑방, 카페 여종업원 품에 안긴 그는 순임을 목 놓아 부르며 눈물을 터뜨린다. 기도(1984년 가을) 신참내기 형사, 영호. 그는 선배 형사들의 과격한 모습과 자신의 내면에 내재된 폭력성에 의해 점점 변해가기 시

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순수함을 부인하듯 순임을 거부하고 자신을 짝사랑 해왔던 흥자를 택한다. 면회(1980년 5월) 영호는 전방부대의 신병. 그는 자신을 면회 왔다가 헛걸음치고 가는 순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영호는 그녀를 소리쳐 부르고 싶지만 다른 장병들의 휘파람 소리와 요란한 트럭 소리에 묻혀 그저 그녀를 떠나보내고 긴급 출동하는 트럭에 올라타는 데…… 소풍(1979년 가을) 갓 스무 살의 영호와 순임. 그들은 난생 처음 순수한 사랑의 행복 감에 잔뜩 젖어있다. 영호는 순임이 건네 준 박하사탕 하나가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다. 젊음도 아름답고 인생도 아름답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79년의 어느 가을이었다.

I A. 참고 문헌 I

- 5·18기념재단 편, 『5·18 민주항쟁의 연구 현황1~3』, 도서출판 심미안, 2006.
- 강석윤, 「'80년의 광주', 오! 꿈의 나라, 『독립영화』 4호, 한국독립영화협회, 2000.
- 강소원, 「오, 꿈의 나라,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강소원, 「칸트씨의 발표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강현, 「음악(〈오! 꿈의 나라〉),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김선아, 「황무지,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김수남, 『한국독립영화』, 살림, 2005.
- 김정룡, 「떠돌기, 짧은 여행의 기록: 장선우론, 『우리 영화의 미학: 한국영화 감독론』, 문학과 지성사, 1997.
- 김종현, 「기억과 재현의 영상 이미지: 5·18영화를 중심으로,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 김태영, 「황무지 연출을 마치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문학산, 「눈 달린 카메라의 자율성, 편향된 성담론의 위험성, 『10인의 한국 영화감독』, 집문당, 2004.
- 박종천, 「연금술적 상상력과 제의적 영화 체험, 『종교문화연구』 제5호, 한신인문학연구소, 2003.10
- 연출부, 「연출(〈오! 꿈의 나라〉),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왕은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예술가의 역사의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 5·18 기념재단 편, 『5·18민주항쟁과 문학·예술』, 도서출판 심미안, 2006.
- 이효인, 「산점투시(散點透視)를 통한 〈꽃잎〉 분석: 이념과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해, 『영화미학과 비평입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개마고원, 2003.
- 이효인, 『우리 영화의 몽상과 오만』, 민글, 1994.

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 5·18다큐멘터리의 전개과정』, 『기억 투쟁과 문화 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제작부, 『〈오! 꿈의 나라〉를 마치며』, 한국독립영화협회 편,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한국독립영화협회, 2001.

| B. 5·18 영화 목록 |

〈칸트씨의 발표회〉(김태영 감독, 1988)

〈황무지〉(김태영 감독, 1988)

〈오! 꿈의 나라〉(이은 장동홍 장윤현 감독, 1989)

〈마디〉(금보상 김종현 장기철 최영진 한승호 홍준석 감독, 1989)

〈부활의 노래〉(이정국 감독, 1990)

〈꽃잎〉(장선우 감독, 1996)

〈박하사탕〉(이창동 감독, 1999)

〈맹〉(고호빈 감독, 2003)

김정숙 「5·18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

김형중(조선대 국문과 교수)

오월 항쟁이 일어난 지 벌써 27년이 지나간다. 거의 한 세대의 나이를 오월 항쟁도 채워가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오월 항쟁은 더 이상 현재의 일이 아닌 기억하고 기념할 대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흐르는 시간을 잡아놓을 수 없는 바에야 문제는 이제 기억의 방식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숙 선생님의 「5·18 민중항쟁의 기억의 서사화와 치유의 윤리학」은 참 시의적절한 연구 성과라 생각된다. 발표문의 기본적인 전제로 기억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미의 복합성은 역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닌 그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는 개별자들에 의해서 추동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와 기억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표문의 대전제인바, 대문자 역사로부터 소문자 역사들로의 이행, 즉 '보편자로서 행하는 역사의 폭력과 탈마법화에 대항하는 대항기억'에 대한 강조에 심분 공감한다. 그런 공감 속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한다.

우선, 이 발표문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다. 발표문은 주로 아스만의 기억론에 기대 대문자 역사가 아닌 개별 주체들에 의해 활성화된 기억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 방법론을 문학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오히려 역사, 특히 구술사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문학은 기억하는가, 아니면 기억을 사후적으로 구성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작가들, 가령 이순원, 최윤, 정찬 같은 작가들은 오월 항쟁 당시 광주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혼」의 장준하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소녀가 '기억'하는 오월 항쟁은 사실은 '기억'이라기보다는 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작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허구라 보아야 한다. 문학적 장치에 의해 '기억'으로 구성된 허구적 체험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체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발표문에는 이러

한 문학적 가공작업과 실제 당사자의 구술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작중 인물의 기억을 항쟁 당시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으로 환원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의 기억은 항상 실제 기억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기억은 의도적으로 문학적 은유와 상징에 의해 구성된 채로 작품 속에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발표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불나방」이란 작품의 환청(나방이 타는 소리)은 실제 기억이라기보다는 당시 '불나방' 처럼 무모하고 영웅적이었던 시민군들에 대한 문학적 상징으로 읽어야지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 읽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봄날」의 '사이렌 소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항상 비상시국으로 나라를 몰아가는 지배 체제의 은유로 읽어야지 실제 기억으로 읽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요컨대 이 발표문은 어쩌면 역사학의 하위 범주로서의 구술사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문학작품의 분석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로,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의문이다. 발표문의 연구 대상은 주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작품에 국한되어 있다. '기억의 서사화'가 이 작품들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듯싶다. 우선 이 시기의 작품들이 유독 일종의 '후일담' 형식을 취하면서 항쟁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서사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의 활성화란 측면에서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시와는 달리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갈무리해서 형상화하는 데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다보니 이 시기의 작품들은 항쟁을 전체적인 시야 속에서 서사화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런 작품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97년 임철우의 「봄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봄날」 이후 항쟁을 장편의 형식 속에 담은 작품들이 다수 등장한 것도 이처럼 소설 장르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검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기 항쟁 관련 소설들은 여전히 잔존하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 씌어진다. 그럴 때 대개가 개인의 병리적 고통을 소재로 취하면서 정공법을 피해가는 서사 기법을 동원하는 것은 시대 정황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덧붙여 기억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사실은 이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란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가령 2000년 이후에 씌어진 정찬의 「광야」,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 그리고 임철우의 「백년여관」 모두가 항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작품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은 '환대'의 '윤리'를 거론하면서 항쟁 기억의 '치유'를 대망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이 '치유'라는 말은 토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상쩍은 말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갈등을 주관적으로 해소하는 일종의 해원(解冤)이 아니면 무엇일까? 가령 임철우의 근작 『백년여관』도,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도 소설의 마무리를 '굿'을 통한 한의 해소로 삼고 있던 사실이 딱히 우연만은 아니라 생각되는 것도 이런 의문 때문이다. 기억의 공유, 환대, 해원 등을 통한 '치유'가 아도르노가 말한 소위 '거짓 화해' 혹은 '기만'과 다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가 궁금하다.

김창욱 「5·18광주항쟁의 음악적 형상화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분석

정유하(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조성이라는 common practice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작품과 현대에 쓰였을지라도 조성을 바탕으로 한 음악은 서양화성학과 악식을 염두에 두면 분석이 가능하다. 또 신고전주의의 한 분파라고도 말해지는 1900년대 2/4분기를 지배했던 음렬음악과 총렬음악도 처음 진행되는 음렬과 각종요소들의 질서를 찾아내면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작곡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작곡기법이 허용된 이후의 작품들은 너무 다양하고 작곡방법에 있어서 common practice가 없는 음악들이어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분석은 가장 추상적인 대상인 음악작품을 놓고 작곡가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표현대상을 찾아내며 작곡자마다의 개별적인 작곡기법을 찾아내고 음재료와 관현악법, 상징과 의미를 밝히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는 우리나라의 서양음악사상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는데 1981년 독일의 한스-베르너 하이스터가 최초로 분석했고 토론자(정유하)가 2003년에, 최근에는 변지연이 “국가폭력에 대한 음악텍스트”라는 논문에 이 작품을 분석하여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에 실었다.

윤이상의 일반적인 작곡기법은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는 주요음 기법과 주요음향 기법 혹은 음복합체 등이 있다. 또 서양음악작곡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금 넓게는 중국의 궁중음악의 여러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작곡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작곡기법이자 관현악법이다.

김창욱선생의 글에는 윤이상의 작곡기법이 잘 정리되어있다. 또 음악적 내용에서는 작품을 매우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음악적 표현이 실제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자

세히 설명되어있어 많이 듣고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이상의 가장 중요한 작곡기법은 중심음기법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매우 섬세하게 음들의 진행을 묘사한 가운데 첫 부분의 주요음 G를 제외하고는 주요음을 밝히는 작업이 제외되었다. 부분별로 구체적인 주요음과 그 주요음을 장식하고 있는 주변음들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윤이상의 작곡기법은 대부분의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변화가 있었다. 조성 음악에서 12음기법으로, 처음에는 불협화적인 화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요음기법과 주요 음향기법을 구사하다가 점차로 3도구성화음의 협화적 화성을 허용하면서 점차 투명한 화성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 작품도 불협화적 집단음향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투명한 3도구성 7화음이 곳곳에 사용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도 '화음을 이룬다. 화음을 아르페지오로 연주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화성분석은 피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서양음악어법이 주가 되고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양음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화성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좀 더 분명한 분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제2부에서 처음 한동안 동종의 악기에 의한 화음덩어리들은 3도구성화음의 자리바꿈들이다. 이러한 부분들의 상세한 분석이 더해지면 좋겠다.

셋째는 용어의 문제인데 '2) 음악적 내용'에서 '제1부는 서로 다른 악구로 구성된다'는 문장에서는 '악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같은 내용의 분석을 하면서 후에는 계속해서 '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음악분석에서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세계적으로도 어렵기로 소문난 윤이상의 작품을 훌륭하게 분석해놓은 김창욱선생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한다.

신광철 「5·18영화」에 나타난 「광주정신의 형상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조정권(전남대 정치외교학과)

- 기존의 518영화들은 전반적으로 추상과 상징, 그리고 미시적인 - 혹은 개인적인 - 렌즈를 통하여 예술성을 추구해온 것 같다. 초기에는 영화의 제작환경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1990년대부터는 이미 널리 알려진 518의 내용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주의적이고 서사적인 방향의 영화가 지양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미시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일 수 있음을 강조해온 것이 아닌가 한다. 나름의 이유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마디로 난해하고 재미없다. 518 영화가 직접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518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중적 예술로서는 이제껏 실패해왔다고 생각한다.

- 또 이제껏 518영화는 광주항쟁의 두가지 큰 요소 - 학살/피해와 봉기/투쟁/승리 - 중 에서 전자에 치중되어왔다. 민주화이후 시대의 변화로 518에서 후자의 부분이 보다 정신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주제의식이 치우쳐있고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518영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신광철교수의 제안에 동감하며 “사실주의”적이면서 감동과 대중성을 지향하는 영화가 많이 시도되기를 바란다.

- “부활의 노래” 같은 사실주의적 영화는 예외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화의 경우에는 예술성과 재미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 켄 로치(Kenneth Loach)감독의 영화에서 우리는 이념성과 사실주의를 모두 보면서, 단순하고 비상징적이지만 감동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례를 본다. 한국의 518영화도

그러한 성공의 방향을 지향해가기를 바란다.

- 신광철교수가 제안하는 "Bloody Sunday"같은 영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가 없다. 518은 엄청나게 많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 소재를 통하여 정말 성공하는 상업영화가 나오기를 바라며, 바로 그러할 때 518의 전국화, 세계화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생각한다.

2007년 학술연구사업 - 5·18기념재단

■ 발간사업

1. 5·18대학교재 출판
2. 5·18법령집(영문) 발간 및 해외단체 배포
3. 『5·18민중항쟁사』, (2001, 광주시사료편찬위원회) 영문번역 (2007~2008)
4. 구술자료 수집

■ 연구지원사업

1. 지정과제 : 5·18항쟁이 한국사회 전 분야에 미친 영향분석(4과제)
2. 자유과제 : 소형(4과제), 대형(1과제)
3. 연구모임 지원
 - 광주지역 소규모연구회 지원(2팀)
 - 5·18관련 주제를 특별세션 혹은 전체주제로 기획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회지원(2팀)

■ 학술연구기획

1. 월례포럼 개최 : 2007년 5월~11월(매월 1회 진행)
2. 운영위 구성 : 월례포럼 기획 및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 총서 기획 준비

* 자세한 사항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참고

* 문 의 : 전화\062-456-0518, 전송\062-456-0519

* 담당자 : 주문희(massey77@hanmail.net)